



제3장 전통의 맥, 문화유산과 인물

제1절 지정문화재

제2절 남한산성

제3절 왕실도자기

제4절 광주실학

제5절 천진암 성지

제6절 관적성씨와 주요 세거성씨

제7절 광주를 빛낸 인물

제3장 전통의 맥, 문화유산과 인물

제1절 지정문화재

1. 문화재의 개념과 유형

1) 문화재란 무엇인가?

(1) 문화재의 정의

‘문화’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습득·공유·전달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른다. 여기에는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풍습·종교·학문·예술·제도 따위가 모두 포함된다. 문화재는 이러한 문화로서의 삶의 양식을 실제의 물질로 나타낸 것이다. 실제의 물질은 유형의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래나 춤처럼 무형의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최근에는 ‘문화유산’이란 용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자연유산’의 경우처럼 자연적인 것 중에서도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재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는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열거할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을 살펴보기 전에 그 개념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네스코에서 규정한 포괄적 개념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정의와도 상통하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개념

이기도 하다. 유네스코에서는 1970년에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 양도와 관련하여 문화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문화재 :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며, 국가가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재산

(2) 문화재의 분류

문화재는 유형이나 지정 주체, 성격 등에 따라 몇 가지의 분류 방식이 있다. 유형별로는 「문화재보호법」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률로 지정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눈다. 또 긴급한 경우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가지정 중요문화재도 있다. 지정 주체에 따라서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가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문화재자료와 향토지적재산을 도지사가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매장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동산문화재와 비동산문화재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편,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을 문화유산·자연유산·혼합유산으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특별히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을 별도로 지정한다.

문화재의 분류

분류	구분		내용
유형별	유형문화재		건축물·전적典籍·서적書蹟·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이다.
	무형문화재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다.
	기념물		조개더미·고분·성지·궁지·요지窯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명승지로서 예술상·관상상觀賞上 가치가 큰 것, 동물·식물·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등이다.
	민속자료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및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구가옥舊家屋 등으로서 민족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지정 여부	지정 주체	국가지정	문화재청에서 총괄하며,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등록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시·도지정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지방유형문화재·지방무형문화재·지방기념물·지방민속자료가 있다.

분류	구분		내용
지정 여부	지정 주체	시·도지사	도지정이 아닌 문화재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문화재자료가 있다.
	가지정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 중에서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문화재청장이 급히 지정하는 문화재이다.
	비지정문화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으나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의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이다.
기타	매장문화재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이다.
	등록문화재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 근대 문화유산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이다.
	일반 동산문화재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으나 지정되지 아니한 동산문화재이다. 보통 제작된지 50년 이상이고 생존인의 작품이 아니어야 한다.

2) 광주시 문화재의 의미

광주시는 한강유역에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일찍부터 고대문화가 발달하였다.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광주삼리 구석기유적을 비롯하여 산이리 지석묘, 장지리 구석기유적 등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곤지암읍에는 연곡리 유물산포지와 상오향리 유물산포지 등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산포지가 있으며, 남한산성이 이 시기에 처음 축성되기도 했다. 오폭읍·초월읍·도척면·퇴촌면 등지에서도 유정리 건물지 등 고려시대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으며, 조선시대와 관련해서는 남한산성 수축과 사옹원 분원 설치, 실학·의병항쟁 등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문화재도 많이 있다. 이 밖에도 시 전역에 걸쳐 분묘유적이 산재해 있으며, 한강유역이 백제의 도읍지였고 삼국의 각축장이었던 것을 생각할 때 광주에는 삼국시대의 유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만하다. 따라서 광주시 문화재의 특징은 우리나라 역사의 전 시기를 아우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정문화재

1) 지정문화재 분포 현황

광주시는 일제강점기 이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울·성남·하남 등지에 관할구역의 일

부를 떼어주면서 행정구역이 축소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광주의 읍치도 17세기에 현재의 하남시에서 남한산성으로 이전된데 이어 1917년에는 다시 현재의 자리로 옮김에 따라 중요 문화재가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광주시에는 중요무형문화재로 갯일과 단청장 2분야가 있으며, 사적으로 남한산성과 남한산성행궁, 광주조선백자 도요지 등 3분야가 있다. 광주시는 남한산성을 수축한 이래 조선시대 왕실의 보장처로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산성 안에는 비상시 사용할 행궁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사옹원의 분원이 설치되어 왕실에 도자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시설물들은 현재 국가에서 사적으로 지정하였다. 경기도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8점, 무형문화재 4분야, 기념물 12점, 문화재자료 6점 등이 있으며,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16건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문화재는 다음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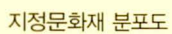
국가 지정문화재

종별	지정 번호	명칭(기능보유자)	소재지	지정일	분포도 번호
중요무형 문화재	4	갯일(정춘모)	오포읍 양벌리	1991. 5. 1	①
	48	단청장(홍창원)	퇴촌면 영동리 60	2009. 2. 24	②
사적	57	남한산성	중부면 산성리 산 일원	1963. 1. 21	③
	314	광주조선백자 도요지	초월, 곤지암, 도척, 퇴촌, 남종, 중부, 송정 (7개 읍면동)	1985. 11. 7	④
	480	남한산성행궁	중부면 산성리 935-6 외	2007. 6. 8	⑤

경기도 지정문화재와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종별		지정 번호	명칭(기능보유자)	소재지	지정일	분포도 번호
경 기 도	유형 문화재	1	수어장대	중부면 산성리 815-1	1972. 5. 4	⑥
		2	송열전	중부면 산성리 717	1972. 5. 4	⑦
		3	청량당	중부면 산성리 815-2	1972. 5. 4	⑧
		4	현절사	중부면 산성리 310-1	1972. 5. 4	⑨
		5	침괘정	중부면 산성리 591-1	1972. 5. 4	⑩
		6	연무관	중부면 산성리 400-1	1972. 5. 4	⑪
		88	유정리좌불상	도척면 유정리 222-7	1979. 9. 3	⑫
		201	광주극락사석조지장보살좌상	오포읍 양벌리 825	2006. 6. 19	⑬
지 정 문 화 재	무형 문화재	13	남한산성소주 제조기능(강석필)	곤지암읍 연곡리 51	1994. 12. 24	⑭
		14	소목장(김의용)	곤지암읍 장심리 315	2002. 11. 25	⑮
		41	사기장-분청사기(박상진)	초월읍 대쌍령리 217-2	2011. 6. 17	⑯
		42	석장 조각(박찬봉)	곤지암읍 이선리 423-2	2005. 2. 10	⑰

종별	지정 번호	명칭(기능보유자)	소재지	지정일	분포도 번호
경기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21 맹사성 선생 묘	직동 산27	1974. 9. 26	⑱
		33 최항 선생 묘	퇴촌면 도마리 산11-1	1976. 8. 29	⑲
		90 허난설헌 묘	초월읍 지월리 산29-5	1986. 5. 7	㉔
		95 신립 장군 묘	곤지암읍 신대리 산15-1	1986. 5. 7	㉕
		98 김자수 선생 묘	오포읍 신현리 산120-1	1988. 3. 21	㉖
		105 김균 선생 묘	오포읍 능평리 산89-1	1988. 3. 21	㉗
		111 망월사지	중부면 산성리 14	1988. 12. 12	㉘
		119 개원사지	중부면 산성리 198-5 외8	1989. 12. 29	㉙
		134 신익희 생가	초월읍 서하리 160-1	1992. 12. 31	㉚
		145 신희 묘역 및 신도비	퇴촌면 영동리 산12-1	1994. 4. 20	㉛
	문화재 자료	166 의안대군 방석 묘역	중부면 엄미리 산152	1998. 4. 13	㉜
		188 광주삼리 구석기유적	곤지암읍 삼리 11 외 4	2003. 4. 16	㉝
		14 지수당	중부면 산성리 124-1	1983. 9. 19	㉞
		15 장경사(대웅전)	중부면 산성리 22-1	1983. 9. 19	㉟
		53 추곡리 백련암 부도	도척면 추곡리 산14(산25-1)	1984. 9. 12	㊱
		63 곤지암	곤지암읍 곤지암리 453-20 외	1985. 6. 28	㊲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 유산	1 정충묘	초월읍 대쌍령리 산87-1	2008. 4. 21	㊳
		2 정뇌경 묘지석 및 함	장지동 675-3	2008. 4. 21	㊴
		3 광산김씨 직제학공파 김약시 /김체 묘역 내 묘표 · 문인석	곤지암읍 삼합리 산50-1	2008. 12. 4	㊵
		4 이극증 묘역 내 석물	초월읍 지월리 산37	2011. 7. 26	㊶
	무형문화 유산	1 송렬전 제향	중부면 산성리 717	2008. 4. 21	㊷
		2 현절사 제향	중부면 산성리 310-1	2008. 4. 21	㊸
		3 광주 광지원 농악	중부면 광지원리 일대	2011. 7. 26	㊹
	기념물	1 산이리 지석묘	초월읍 산이리 236-1	2008. 4. 21	㊺
		2 백인대	곤지암읍 열미리 산174	2008. 4. 21	㊻
		3 사옹원 분원리 석비군	남종면 분원리 116	2008. 4. 21	㊼
		4 신남성 동 · 서돈대	중부면 검복리 산99-6 외 5	2008. 4. 21	㊽
		5 남옹성 무인각석	중부면 산성리 산137	2008. 4. 21	㊾
		6 서훈남 묘비	중부면 산성리 124-1	2008. 4. 21	㊿
		7 탁지부측량 소삼각점	중부면 산성리 815-1	2008. 4. 21	㋀
		8 여성제 묘역 및 신도비	남종면 수청리 산101-10, 693-3	2011. 7. 26	㋁
		9 이손 묘역 및 신도비	초월읍 신월리 산22-1, 산22-2	2011. 7. 26	㋂



2) 국가지정문화재

(1) 중요무형문화재

① 갓일(정준모 :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우리나라 갓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평안남도 용강군 화상리의 고구려 합신총 벽화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삼국유사』에는 서민들이 소립素笠을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갓이란 명칭은 고려 말 공민왕 때 풍속에 따라서 관모冠帽를 제정한데서 비롯됐다고 하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누렸다. 특히 임진왜란 발발 이



갓일 기능보유자 입자장 정준모 씨

듬해인 1593년(선조 26) 두릉포(현 통영시)에 삼도수군통제영이 설치되면서 만들기 시작한 통영 갓은 최상품으로 인정받아 400년 이상 그 전통이 이어져왔다.

갓은 조선시대 성인남자들이 외출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예복 중의 하나였다. 원래는 햇빛이나 비바람을 가리기 위한 실용적인 모자였으나 주로 양반의 사회적인 신분을 반영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넓은 의미로 방갓형과 패랭이형 모두를 갓이라고 하며, 보통은 흑립·칠립·평립이라 부른다.

선비들이 외출 때 착용했던 흑립은 대표적 입자笠子이며 통칭 갓이라 한다. 종류는 진사립眞絲笠, 음양사립陰陽絲笠, 음양립陰陽笠, 마미립馬尾笠, 저모립鰲毛笠, 죽저모립竹猪毛笠, 자립紫笠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재료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진사립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대오리로 만든 최상품의 입자로 왕이나 귀인들이 착용했다. 음양사립은, 모자 부분은 말총을 엮어서 만들고 양태는 대오리에 옷칠을 하여 만든 것이다. 음양립은 음양사립보다 한 단계 낮은 품질이며, 마미립은 말총, 저모립은 돼지털, 죽저모립은 돼지털과 대오리를 혼합하여 대우와 양태를 만든 것이다. 또한 흑립은 검은 칠을 한 것이며, 주립은 붉은 칠을 한 것을 말한다. 망건을 쓴 위에 흑립을 착용하였으며 품계에 따라 갓끈의 재료가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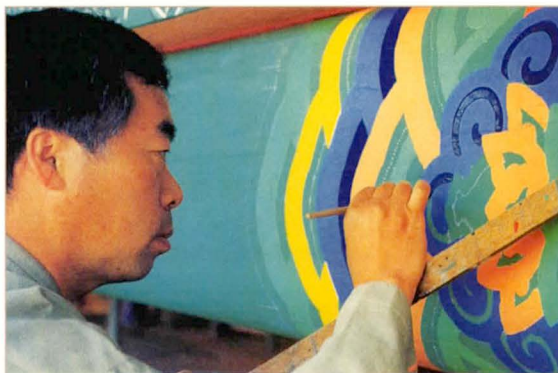
갓의 제작 공정은 크게 양태, 총모자, 입자의 단계로 나뉜다. 그런데 이를 세분화하면 각

단계마다 손이 가는 작업이 많아 양태 24단계, 총모자 17단계, 갓을 완성하는 입자 10단계 등 무려 51단계를 거쳐야 한다. 양태는 갓의 차양을 만드는 작업이다. 대나무를 삶아 머리카락보다 가늘게 쪼갠 후 4가닥의 올로 레코드판처럼 얹어 만든다. 총모자는 겹을 뒤집어 놓은 듯한 대우 부분을 만드는 작업이다. 말총이나 목덜미 털을 이용해 만든다. 입자는 총모자와 양태를 합치는 작업이다. 이때 명주를 입히고 옷칠을 해서 제품을 완성시킨다.

기능보유자 정춘모는 경북 예천 출생으로 1960년경 대구에서 유학 중에 하숙집에서 갓일을 처음 접했다. 이때 그가 만난 분들은 갓일의 최고 장인들로서 무형문화재였다. 당시 갓일은 사양 산업이었으며, 제대로 된 갓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명을 바쳐야 했으므로 기술을 전수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 정춘모는 1970년에 세 분 선생님의 제자로 입문해 민족의 자존심을 엮는다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기술을 모두 전수받았다. 1973년 제1회 인간문화재 작품 전시회에 출품하여 입상한 이후 수차례 수상을 하였으며, 1974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로 등록되고, 1982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었다. 그리고 1991년에 갓일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1992년 한국공예가회 회장, 1996년 (사)한국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이사장, 1999년 한국중요무형문화재총연합회 부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서울 삼성동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갓일 공방에서 전수 작업 중이다.

② 단청장(홍창원 :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丹靑은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등 다섯 가지 색(오채 : 五彩)을 기본으로 하여 건물 등에 여러 가지 화려한 그림을 장엄하게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궁궐이나 사찰, 서원, 향교 등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다. 단청은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는 목적 외에도, 목재의 단점을 보완하여 오랫동안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표면도장에도 유용하여 건축에 많이 이용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음양오행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섯 가지 색깔은 음양오행설에 입각한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나타내며, 반복되는 문양은 화재와 잡귀를 막아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단청 기능보유자 단청장 홍창원 씨

우리나라 단청은 삼국시대의 고분 등에서 기원을 살필 수 있고, 불교가 수용되면서 더욱

발전되었다. 단청문화는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유행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전통이 계승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광주시 퇴촌면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홍창원이 만든 한국단청연구소가 있어 단청 연구는 물론 제자를 양성하면서 장엄하고 화려한 단청의 전통을 잇고 있다. 과거에는 돌이나 흙에서 채취한 것을 아교에 희석해서 만든 천연안료를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생산하는 곳이 거의 없어 대부분 화학안료를 사용한다.

작업은 단청할 부재에 면적과 모양이 같은 초지를 만든 다음, 묵탄 또는 연필로 초안을 만드는 '출초(도본 만들기)'로 시작된다. 이어 초안된 초지의 그림(선)을 따라 바늘로 촘촘히 구멍을 내는 '천초', 단청할 부분의 흙과 먼지 등을 제거하는 '바탕 닦기', 아교를 넣고 묽게 끓인 물을 바탕에 바르는 '포수', 연목 사이의 개판인 연골에 백색(또는 토옥색이나 청록색) 칠을 하는 '가칠', 바탕칠이 된 부재에 천초된 도본(초지)을 대고 분 주머니를 두드려 바늘구멍을 통해 나온 가루로 바탕에 문양을 만드는 '타분(타초)', 본에 따라 청·적·황·백·흑의 다섯 가지 색을 입히는 '오색 입히기'로 이어진다.

기능보유자 홍창원은 1970년 15세 때 당시 단청장 만봉 스님의 제자로 입문하여 40년 이상 외길을 걷고 있다. 그는 1986년 4월 창경궁 문정전 회랑 단청, 1994~1995년 경복궁 경회루·강녕전·사정전·교태전 단청, 2001년 10월 덕수궁 중화전 단청, 2003년 5월 경복궁 근정전 단청, 2006년 7월 일본 쇼오고 무량수사 단청, 2008~2010년 충남 부여 백제역사재현단지 단청 등 궁궐은 물론 국내외 유명 사찰 등의 단청을 도맡아 진행했다.

1981년 7월 무형문화재 단청장 전수 장학생, 1986년 단청 이수자를 거쳐, 2009년 2월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으로 지정되었다. 1990년 한국단청연구소를 개소하고 2004년에 사단법인 단청연구원을 개원하여 단청기술자를 고급기술자로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2008년에 방화로 소실된 국보 제1호 숭례문을 복원하기 위한 숭례문복구단 일원으로 복구 작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2) 사적

① 남한산성(사적 제57호)

남한산성¹⁾은 주변에 한성백제 시기의 유적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일찍부터 온조왕대溫祚王代의 성으로도 알려져 왔다. 673년(신라 문무왕)에 한산주漢山州에 주장성晝長城(일명 日長城)을 쌓았는데, 둘레가 4,360보로 현재 남한산성이 위치한 곳이라고 믿어져 내려온다. 고려시대

1) 남한산성은 제3장 제2절에서 추가로 다루었다.

문신 이세화의 묘지명²⁾에 “광주성이 임금이 의지하는 ‘남방의 요충지’로서, 몽골군의 침입 시 밤낮으로 성을 수리하고 방비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시대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일장산성이란 기록이 있다.

1595년(선조 28)에 산성을 수축(보수)하였고, 1621년(광해군 13)에 증축하였으나 현재의 모습으로 대대적인 개수를 한 것은 후금의 위협이 고조되고 이괄의 난을 겪고 난 1624년(인조 2)이다. 인조는 강화도와 함께 조선왕실의 보장처로서 유사시 도성을 옮겨 항전할 수 있도록 남한산성을 수축할 것을 총융사總戎使 이서李曙에게 명하였다. 2년 뒤에 둘레 6,297보, 여장女牆 1,897개, 웅성甕城 3개, 성랑城廊 115개, 대문 4개, 암문 16개, 우물 80개, 샘 45개 등을 만들고 광주읍의 치소治所를 산성 내로 옮겼다. 이때의 공사에는 승려 각성覺性을 도총섭都摠攝으로 삼아 팔도의 승군을 사역하였으며, 개원사를 비롯한 7개의 사찰이 새로 건립되었다. 축성의 목적을 대변해 주듯이 유사시 임금이 거처할 행궁이 73칸 반의 규모이고, 하궐이 154칸이나 되어 산성대궐로도 불렸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신한 이후로 1638년에는 산성의 미비점을 고려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설의 정비와 증설이 이루어졌다. 1686년(숙종 12) 봉암蜂巖에 성을 쌓았고, 1692년 한봉汗峯의 좌우에 돈대塾臺를 쌓아 방비를 강화하였으며, 1710년에도 남격대南格臺에 돈대를 쌓았다. 1731년(영조 7) 서장대西將臺와 한봉의 성첩城堞을 더 쌓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비碑를 세웠다. 1779년(정조 3)에는 남한산성에 대한 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1798년에는 한남루漢南樓를 세우고, 둔전屯田을 설치하였다. 1829년(순조 29)에는 1624년에 세운 객관客館인 인화관人和館을 수리하였다.



남한산성 서문 성곽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2) 이규보, 『이세화묘지명』, 『동국이상국집』 후집.

남한산성으로 옮긴 광주부의 행정을 위한 관청으로는 좌승당左勝堂·일장각日長閣·수어청守禦廳·제승헌制勝軒 등의 시설이 있었고, 비장청碑將廳·교련관청敎鍊官廳·기패관청旗牌官廳 등의 군사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또한 종각·마구·뇌옥·온조왕묘溫祚王廟·성황단·여단癘壇 등 읍치에 필요한 시설들이 고루 갖추어져 우리나라 산성 가운데 각종 시설을 완비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남한산성의 수어守禦는 처음에 총융청이 맡았다가 성이 완성되면서 수어청이 따로 설치되었다.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면서 남한산성 내의 시설이 상당수 파괴되었으며, 1917년 군청사를 경안리로 이전하면서 남한산성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문화재 보호 차원의 복원공사가 이루어져 지금은 동·서·남쪽의 문루와 수어장대·돈대·암문暗門·우물·보堡·누臺 등의 방어시설과 관청시설, 군사훈련시설, 남한산성행궁, 사찰, 사당 등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② 광주조선백자 도요지(사적 제314호)

조선 왕실에서는 필요한 자기를 수급하기 위하여 사옹원에서 왕실도자기³⁾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관요를 운영토록 하였다. 사옹원은 왕실에서 소용되는 자기와 공납자기 제작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았고, 경기도 광주에 자기 제작소인 분원分院을 두었다. 분원이 광주에 설치된 이유는 한양과의 거리가 가깝고 한강을 통한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광주는 경상도 고령 1곳, 상주 2곳과 함께 상품자기所上品磁器所가 있었던 곳으로, 이 미 백자 제작지로서 여러 장점을 지닌 곳이었다.

본래 분원은 사기를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연료를 충당하기 위해 나무가 많이 자란 장소를 찾아 옮겨 다녀야 했는데, 이를 위해 경기도 광주 일대 6개 면이 분원시장分院柴場 절수처折受處라 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되었다. 퇴촌면·실촌면·초월면·도척면·경안면·오포면 등이 그곳이다. 그런데 이 일대가 분원의 연료채취 뒤에는 다시 화전으로 개간되면서 시장이 줄어들고 연료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17세기 말경에는 분원을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고정해두고, 번목을 옮겨 쓰면서 시장 안의 화전민으로부터 세를 거두어 번목을 충당하는 데 쓰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처음 고정 분원이 설치된 곳은 현 남종면 금사리였으나, 금사리는 강변에서 10리 정도 떨어져 나무 운반이 어려웠다. 이에 교통이 편리한 경안천변인 남종면 분원리에 분원을 고정시켜두고 반대로 번목을 옮겨 쓰기에 이르렀다. 분원리로 분원이 고정되자 10년마다 분원을 옮길 때 생기는 공사의 허비를 막을 수 있었고, 특히 남한강과 북한강으로의 편

3) 왕실도자기는 제3장 제3절에서 추가로 다루었다.



분원백자자료관 입구의 도요지 표석



우산리에서 출토된 15~16세기의 조선백자편

리한 수운 덕택에 번목의 조달은 물론 백토와 진상자기의 운반이 수월해졌다.

분원의 주된 역할은 왕실용 자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자기는 봄과 가을 두 차례 진상됐는데, 봄에 만들어 6월에 진상하는 것을 춘등진상春等進上, 가을에 만들어 10월에 진상하는 것을 추등진상秋等進上이라 했다. 또한 1년 중에 통상 필요로 하는 수요를 진상하기 위해 굽는 것을 예번例燔이라 하며, 경우에 따라 굽는 것을 별번別燔이라 하였다. 별번품은 주로 갑발匣鉢에 넣어 번조燔造하였으며, 진상은 춘추진상 때 함께 하였다. 진상자기의 소용所用은 왕궁의 일반 생활용기와 봉상시奉常寺의 제기祭器, 내의원의 제약용기 등이었으며, 외국 사절 접대용 등으로 공급되었다. 1년 동안 만들어진 자기의 양은 매해 일정하지 않았으나, 1867년(고종 4) 간행된 『육전조례』에 따르면 1,372죽(13,720개)의 자기가 봄가을에 진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大殿에 소용되는 자기는 분원에서 직접 번조하여 사용원에 납입하는 형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 공장工匠의 생계를 보조하는 의미에서 분원의 사경영이 일부 허용되었고,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상인자본이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19세기에는 상인자본의 규모가 점차 늘어 결국 분원은 1884년 상업자본가에 의해 민영화되었고, 1910년 이후로 점차 쇠퇴하였다.

분원리 백자는 특유의 맑은 청백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며, 양각·투각·면취面取와 같은 상형기법의 순백자는 물론이고 청화·진사·철화백자도 많이 제작되었다. 종류는 사발·접시·잔과 같은 음식 용기를 비롯하여 병·항아리·등잔·베개와 같은 생활용구, 제기祭器와 각종 문방구류 등이 있다. 특히 선비들의 생활과 정신을 잘 보여주는 문방구는 두꺼비·잉어·복숭아와 같은 동식물 또는 금강산·원통형·사각형·팔각형의 형태를 응용한 연적과

필통·필가筆架·필세筆洗 등이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문양으로는 운룡雲龍·산수·파초芭蕉·화조花鳥·사군자 이외에도 민화풍의 십장생·모란·칠보七寶·박쥐·수복壽福문자 등이 그릇 가득히 표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③ 남한산성행궁(사적 제480호)

행궁行宮이란 정궁正宮에 대비되는 용어로 국왕이 궁궐을 벗어나 능행이나 피난, 휴양 등의 목적으로 거동舉動할 때 머무는 곳을 말한다. 남한산성행궁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조정의 정부시설은 물론 종묘의 위패를 옮겨 봉안할 건물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남한산성행궁은 산성이 축성 중이던 1625년(인조 3) 6월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이서李曙의 계책에 따라 조성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인조가 이곳에 거동하여 항전을 지휘하였으며, 숙종·영조·정조·철종·고종 등이 여주의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광주의 헌릉獻陵과 인릉仁陵 등의 능행길을 오갈 때 이용했다. 왕이 머무는 중에는 서장대(수어장대)에서 성을 공격하고 방어하는 군사훈련을 관망하고 성을 순시하였으며, 음식을 내려 군사를 위로하는 호궐稿饋 등의 행사가 치러졌다.

행궁은 상궐과 하궐, 그리고 한남루漢南樓라는 외삼문의 누문을 기본으로 하고, 이들을 둘러싸고 연결된 행각을 갖추고 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내전과 외전, 그리고 문지門址가 서고 동저西高東低의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3단의 층단層段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숙종 때는 좌전左殿(임시 종묘)과 우실右室(임시 사직)을 조성하여 비상시에는 종묘사직을 옮겨와 항전할 수 있도록 꾸몄다.

행궁의 전체 규모는 상궐 구역에 조성된 내행전, 남행각, 북행각, 재덕당, 좌승당을 합하여 『광주부읍지』에서 기록한 72.5칸과 하궐과 좌전, 우실, 인화관 등을 합하여 모두 325칸 정도



복원된 남한행궁 상궐



남한행궁 하궐(1910년경)

였던 것으로 보인다. 행궁은 평상시 광주부 읍치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좌승당, 일장각 등의 관청(公廳: 公廳)이 있었다. 한편 행궁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중정남한지』, 『여지도서』, 『광주부읍지』 등 문헌마다 각 건물의 명칭이 다른 경우가 많고 규모 또한 일정치 않다. 이것은 인조대부터 순조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건축물들이 필요에 따라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남한산성행궁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 대부분 훼손되어 빈터가 되었으나, 조선시대 행궁제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커 1997년 5월 27일에 경기도 기념물 제164호로 지정되었다. 그 후 복원이 추진되면서 1999년부터 행궁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지를 확인하였고 건물이 복원되었으며, 2007년 6월 8일에 국가 사적으로 승격되었다.

3) 경기도 지정문화재

(1) 유형문화재

① 수어장대(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

장대將臺란 지휘관이 군대를 지휘 하도록 높은 곳에 쌓은 대臺이다. 남한산성 내의 최고봉인 일장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수어장대는 성 내부는 물론 인근의 양주, 양평, 용인, 고양, 서울, 인천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요지에 세워졌다.

1624년(인조 2) 남한산성을 쌓을 때 만들어진 4개의 장대 중 하나로 처음에는 1층 누각으로 짓고 서장대라 불렀으나, 1751년(영조 27) 영조의 명으로 이기진李箕鎭이 서장대 위에 2층 누각을 지었다. 건물의 2층 바깥쪽 앞면에는 '수어장대守禦將臺'라는 현판이, 안쪽에는 '무망루無忘樓'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무망루'란 병자호란 때 인조가 겪은 시련과 효종이 청나라에 대한 복수로 북쪽 땅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죽은 비통함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수어장대

수어장대는 1636년 병자호란 때, 청 태종太宗의 13만 대군에 대항하여 인조가 친히 군사들을 지휘, 격려하며 항전하던 곳이다. 조선 후기 5군영 가운데 남한산성에 주둔한 수어청 소속의 우영장右營將이 진을 치고 있었다. 효종의 능소陵所인 여주 영릉寧陵에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남한산성에 들렀던 영조와 정조는 이 장대에 올라 병자호란의 치욕을 되새겼다고 전한다. 현재의 건물은 1836년(헌종 2)에 유수 박기수朴岐壽가 다시 고쳐 세운 것이다.

② 승렬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호)

승렬전崇烈殿은 1638년(인조 16)에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지은 사당이다. 원래 건물 이름은 ‘온조왕사溫祚王祠’였으나 1795년(정조 19)에 광주판관 이시원李始源의 주청을 받아들인 정조는 기자箕子의 승인전崇仁殿이나 단군과 동명왕東明王의 승령전崇靈殿, 신라 시조의 승덕전崇德殿, 고려 시조의 승의전崇義殿 등의 예에 따라 ‘승렬崇烈’이라는 현판을 내렸다. 승렬전의 편



승렬전

액은 대신에게 명하여 쓰도록 하고, 제문祭文은 정조가 직접 지었다.⁴⁾

뒷날 남한산성을 쌓을 당시 총책임자였고 병자호란 때 병사한 이서 장군의 위패를 배향配享하게 되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인조의 꿈에 온조왕이 나타나 인조의 인품과 성업을 칭찬하면서 ‘혼자 있기가 쓸쓸하니 죽은 사람 중에서 명망 있는 신하를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인조는 남한산성을 쌓은 공로자인 이서를 같이 모시게 했다고 한다. 매년 봄과 가을에 제향을 올렸으며, 향축香祝은 예조에서 보내왔다. 승렬전 제향은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③ 청량당(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호)

청량당淸涼堂은 이회李晦와 그의 본부인과 첩, 그리고 벽암대사碧岩大師를 함께 모신 사당祠堂이다. 이회는 1624년(인조 2) 남한산성의 동남쪽 축성공사를 담당하였으나 축성 경비를 탕진

4) 『정조실록』 권43, 정조 19년 9월 18일 병인.

하고 공사에 힘쓰지 않아 기일 내에 마치지 못하였다는 무고한 모략을 받고 무참히 처형을 당하였다. 그의 부인과 첩은 남편의 일을 돕기 위해 삼남지방에서 축성 자금을 마련하여 오는 길에 남편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하였다. 그 후 그때까지 이런 공사를 재조사해보니 견고하고 충실하게 축조되어 있어 그의 죄가 없음이 밝혀져 서장대 옆에 사당을 지어 그의 넋을 달래게 하였다.



청량당

벽암대사는 법명이 각성(覺性)으로 남한산성 축성 때 팔도도총섭에 임명되어 승군을 이끌고, 서북쪽의 성역(城役)을 감독하였고, 병자호란 때는 전국에 격문을 띄워 승군을 조직하여 남한산성으로 향하다 항복의 소식을 듣고 돌아갔다. 이후 1660년에 입적하였는데, 뒤에 청량당에 함께 배향되었다.

청량당은 '맑고 시원하다'는 뜻으로, 사당이 위치하고 있는 산봉우리의 명칭을 따왔다. 안에는 가운데에 이희의 초상화가 있고 좌우에는 벽암대사와 이희 처첩의 초상화가 봉안되어 있는데, 원래 것은 6·25전쟁 때 분실되었고 현재 있는 것은 그 후 새로 만든 것이다.

④ 현절사(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호)

병자호란 때 항복하기를 끝까지 반대했던 홍익한(洪翼漢), 윤집(尹集), 오달제(吳達濟)는 청에 끌려가 갖은 곤욕을 받은 끝에 참형을 당하였다. 숙종은 1688년(숙종 14)에 이들 삼학사의 명령을 위로하고자 유수 이세백(李世白)에게 명하여 남한산성 동문 안쪽에 사당을 세우게 하였고, 1693년에 '현절사(顯節祠)'라 이름을 지어 현판을 내렸다.⁵⁾



현절사

5) 편액에 '癸酉三月日'이란 연기(年紀)와 '사액(賜額)'이란 기록이 있는데, 하사 당시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1700년에는 척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김상헌金尙憲과 정온鄭蘊을 함께 배향하면서 지금의 장소로 옮겨지었고, 1749년(영조 25)에는 현절사의 제향을 위해 전결과 노비를 획급하였다. 1871년(고종 8) 전국의 서원 및 사우에 대한 대대적인 철폐 때에도 보존되어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매년 음력 9월 10일에 봉행되는 현절사 제향은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

⑤ 침괘정(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호)

‘침과枕戈’란 ‘침과침갑枕戈寢甲’ 또는 ‘침과대단枕戈待旦’의 준말로 ‘창을 베개 삼고 갑옷을 착용한 채 누워 결전의 아침을 기다린다’는 의미이다. 즉 무기를 갖춰 항상 전쟁에 대비한다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부모의 원수에 복수하기 위해 고심苦心한다는 의미도 있다. ‘과戈’는 ‘괘’로 읽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표기는 ‘침과정’이 옳지만 침괘정으로 통칭되고 있다.



침괘정

침괘정枕戈亭은 남한산성 산성리마을 동쪽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인데, 이서가 남한산성 축성에 착수하였을 때 수풀 속에서 이 건물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건립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주초가 견고하며 방의 온돌이 상하지 않았고, 건물 중간 방 하나의 온돌높이가 수척에 달하였다고 한다. 시험 삼아 아궁이에 불을 때어보니 윗목부터 차차 아랫목이 데워졌다고 한다. 백제 온조왕의 왕궁지라는 이야기가 전하는데, 이를 고증할 아무런 자료도 없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 병자호란 때 청의 포환砲丸이 남한행궁에까지 떨어지자 인조가 침괘정으로 이어移御하기도 하였다.⁶⁾

침괘정의 오른편에는 명의 사신 부총병副總兵 정룡程龍이 ‘충융무고摠戎武庫’라 이름 하였다는 군기고가 있어 무기고나 무기 제작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건물은 1751년(영조 27)에 유수 이기진이 중수하고 침괘정이라 명명한 것이다.

6) 『승정원일기』 1446책, 정조 3년 8월 9일 경신.

⑥ 연무관(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호)

연무관演武館은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무술을 연마하던 곳으로 1624년(인조 2) 남한산성을 쌓을 때 함께 지은 것으로 추정한다. 처음에는 연무당으로 부르던 것을 숙종 때 수어사 김재호金在好로 하여금 개수改修하게 하고 ‘연병관練兵館’이라 쓴 현판을 하사하여 통칭 ‘연병관’ 또는 ‘연무관’이라 부르고 있다. 정조 때에는 이를 수어영守禦營이라 개칭하였으나 그 뒤에도 연병관 또는 연무관이라



연무관

부르고 있다. 1779년(정조 3) 남한산성에 행차하였던 정조는 이곳에서 부내의 유생과 무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과거시험을 보고, 장사들에게 술과 음식을 베풀었다.

⑦ 유정리좌불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8호)

유정리좌불상柳井里坐佛像은 높이 약 2.1m의 석불좌상으로 앞에는 석조로 된 사각형의 배례석拜禮石이 놓여 있어 불상의 다리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원래는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나 호분胡粉을 너무 많이 발라 세부적인 모습을 잘 알 수 없다. 몸에 비해 유난히 큰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정수리에는 상투 모양의 둥근 머리묶음이 있다. 귀는 크고 길게 늘어져 어깨에 닿고, 목에는 삼도三道가 표현되었다. 불균형한 신체 비례, 좁은 어깨, 작은 손, 형식적인 옷주름에서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양 어깨에 걸쳐 입은 옷에는 굽고 완만한 U자형 주름이 있다. 무릎 역시 상체에 비해 너무 좁아서 전체적인 비례가 맞지 않는다. 또한 결



유정리 좌불상

가부좌하고 무릎 위에 올려 놓은 양손은 왼쪽 손바닥 위에 오른손을 얹고 양손의 엄지를 맞댄 선정인禪定印으로 양팔만 큼이나 그 양감이 빈약해 보여 세련되지 못한 주름과 함께 도식적

수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큼직한 얼굴에 보이는 온화한 분위기는 부처님의 세계를 전달하고자 하는 면모가 엿보이고 있다.

⑧ 광주극락사 석조지장보살좌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01호)

극락사는 광주시 백마산에 자리한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로 창건연대에 대한 정확한 문헌기록은 알 수 없다. 광주극락사 석조지장보살좌상廣州極樂寺石造地藏菩薩坐像是 극락사 대웅전 주존불상의 오른쪽에 따로 마련된 불단에 봉안되어 있다.

화강암을 정교하게 쪼아 만든 상으로 높이는 49.1cm이고 어깨 폭은 20.2cm이며 밑바닥 면에 15cm 폭의 둥근 복장공이 있는데, 이 구멍은 얼굴 부분부터 바닥까지 뚫려 있어 원래는 복장물을 넣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의 복장물은 주로 금동·목조·소조 불상에서 발견되는 예가 많은데 석조불상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밑바닥에 구멍을 내고 복장물을 넣은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광주극락사 석조지장보살좌상

결가부좌하고 선정인의 손 모양을 하였으며 민머리의 모습에서 지장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현재는 후대의 것으로 짐작되는 빨강고 둥근 보주가 손에 올려 있다. 이 보살상은 크고 둥그란 얼굴에 어깨가 좁고 허리가 짧은 편이지만 무릎이 넓어 안정적으로 보인다. 착의법은 오른쪽 어깨에 반달형의 변형 편단우견偏袒右肩식의 법의를 걸치고 속에 편삼을 입은 변형통견식이며, 법의의 단이 살짝 반전하면서 흘러내린 것이나 가슴 아래 수평으로 처리된 상의와 띠매듭 등이 특징적이다. 또한 다리 사이에 세모꼴로 흘러내린 치맛자락은 특히 눈에 띈다.

광주극락사 석조지장보살좌상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지장보살로는 선정인의 수인手印이 희귀할 뿐만 아니라 석조불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복장공이 있으며, 불상 양식도 16~1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 조선시대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2) 무형문화재

① 남한산성소주 제조기능(강석필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3호)

남한산성에서 전승된 민속주이다. 술을 빚기 시작한 시기는 남한산성을 축성한 인조 때부

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후 왕실에 진상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조 재료는 남한산성에서 흘러내려오는 깨끗한 물과 광주에서 생산되는 좋은 쌀, 그리고 재래종 통밀로 만든 누룩과 재래식 엿이다.

술을 빚을 때 반드시 재래식 조청을 두 번에 걸쳐 사용하여 술의 맛과 향기를 내는데 다른 토속주에서는 보기 힘든 큰 특징이다. 이렇게 해서 빚은 술은 죽엽색竹葉色의 아름다운 빛



남한산성소주 제조기능 보유자 강석필 씨

깔을 내고 벌꿀에서 느낄 수 있는 복잡하면서도 그윽한 향취를 자아내며, 특별한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오래 저장할 수 있고 술을 마신 후 숙취가 적다. 또한 여러 가지 유기물과 각종 향미가 함유되어 있어 적당히 마시면 식욕증진과 혈액순환,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있다. 처음 거른 술의 알코올 도수는 약85도 이상이고 점차 주정도가 낮아지므로 이를 섞어 40도가 되도록 조절한다. 때문에 용기에 담은 후 밀봉만 잘 해두면 오래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 될수록 무르익어 술 맛이 더욱 좋아진다.

특히 부잣집의 가양주家釀酒였던 산성소주는 산성마을의 명물로서 그 맛과 향취가 뛰어남 전국에 이름을 떨쳤다. 하지만 성안의 모든 시설과 군郡의 행정기관이 지금의 경안동으로 이전되면서 쇠락했고, 6·25전쟁과 식량부족으로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누대에 걸쳐 살면서 당국의 허가를 얻어 산성소주를 빚어오던 이종숙李宗肅이 곤지암읍 중열미리 출신의 강신만姜信滿에게 그 비법을 전수하였고, 이후 강신만의 둘째 아들 강석필姜錫弼의 노력으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을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② 소목장(김의용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소목장小木匠은 장롱을 비롯하여 문방제구 등의 세간과 가마, 수레, 농기구, 창호, 도구 등 목재로 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일컫는다. 소목장이란 명칭은 고려시대부터 나타나며 조각장, 나전장 등과 더불어 중상서中尙書에 예속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서는 일괄하여 목장木匠이라 하였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지형조건과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조건으로 예전부터 다양한 목재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 나무의 재질에 따라 골재骨材, 판재板材, 부재附材로 구분

되었다. 골재는 구조상 힘을 받는 나뭇결이 견실한 목재로 소나무·돌배나무·회화나무·느티나무·단풍나무·호두나무 등이 주로 쓰이고, 판재는 목리木理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기능과 용도에 알맞은 오동나무·소나무·전나무·뽕나무·은행나무·느티나무·살구나무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부재로는 회화나무라든가 수창목·버드나무 등 나뭇결이 치밀하면서도 아름다운 수목이 주로 쓰였다.



백골 부문 기능보유자 소목장 김의용 씨

김의용은 백골 부문의 맥을 이어가는 소목장 기능보유자로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전통가구의 맥을 잇고 있다. ‘백골’은 나무로 된 건축물이나 공예품의 표면에 겹치레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옷칠 등을 하기 전에 잣 만들어놓은 소반을 ‘백골소반’이라 부르며, 궁궐이나 절을 짓고 나서 단청을 입히지 않은 경우 ‘백골집’이라 부른다. 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4호였던 고 민종태 선생에게 목공예를 익혔다.

③ 사기장-분청사기(박상진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1호)

분청사기는 회색이나 회흑색 태토 胎土 위에 백토니白土泥를 분장한 다음 유약을 입혀서 구워낸 자기이다. 상감청자에 그 연원을 두고 있으며, 14세기 후반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세종연간을 전후하여 그릇의 질이나 형태 및 무늬의 종류, 무늬를 넣는 기법 등이 크게 발전하여 절정을 이루었다. 광주에는 도처에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현재 알려진 가마터는 퇴촌면의 도수리와 관음리, 중부면의 번천리와 오전리, 남종면 삼성리, 초월읍 쌍동리와 학동리 등 모두 14곳에 이른다. 그러나



분청사기 기능보유자 사기장 박상진 씨

15세기 후반부터는 백자를 생산하는 관요官窯가 운영되면서 왕실과 관아에서 필요로 하는 자기의 공급을 사옹원 분원에서 맡게 되면서 분청사기는 주로 민간용으로 생산하게 되었다.

분청사기의 특징은 청자나 백자에서는 볼 수 없는 자유분방하고 활력이 넘치는 실용적인 형태와 다양한 분장기법粉粧技法, 그리고 의미와 특성을 살리면서도 때로는 대담하게 생략, 변형시켜 재구성한 무늬라 할 수 있다. 종류는 분장과 무늬를 나타내는 기법에 따라 상감기법, 인화기법, 박지기법剥地技法, 조화기법造花技法, 철화기법, 귀얄기법, 덤병기법 등 7가지로 나눈다.

분청사기장 박상진은 14세 때인 1971년에 ‘고려도요’(현 지순택요) 지순택으로부터 3년간 사사를 받으면서 기본적인 도자기 기술을 배웠다. 그리고 1974년에 광주왕실도자기 초대 명장인 박부원의 ‘도원요’에 입문하여 약 13년 동안 분청사기에 대해서 공부하였다. 1987년에 독립하여 ‘개천요’를 설립한 후 자신만의 분청사기를 계속하여 만들고 있다. 그는 자유로움을 중시하여 옛 모습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과거를 재현하되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더욱 발전된 현재여야 하고, 그것 역시 더욱 발전시켜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도자기의 바탕은 사람의 마음으로, 또 도자기의 모양은 사람의 육체로, 그리고 도자기의 문양은 사람이 입는 옷이라고 여기며 흠을 만지고 있다.

1984년 KBS 도예공모전 금상 수상을 비롯해 각종 대전에서 수상을 했으며 심사위원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1992년에는 경기도 우수공예인으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6월 17일에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④ 석장 조각(박찬봉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2호)

인류는 구석기시대부터 돌을 가공한 각종 기구를 만들었다. 인간의 사유가 깊고 상상력도 풍부해지면서 거석巨石문화가 발전하는 한편 정교하고 아름다운 석조미술품도 탄생됐다. 우리나라 역시 오래 전부터 질 좋은 화강암, 곱돌, 대리석 등을 이용하여 일용잡기는 물론 건축물, 불교미술품, 분묘조성 석물 등을 만들어 왔다.

석조각을 위해서는 석조용 공구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소재가 갖는 중



석조각 부문 기능보유자 석장 박찬봉 씨

량감과 질감 등 석조예술의 요소를 살려야 하고 정과 돌의 물리적인 법칙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한다. 석공예 작업은 초안 → 기본도형 작성 → 모형제작 → 모형본뜨기 → 원석고르기 → 석다듬질 → 털이게작업 → 정다듬 → 도드락작업 → 날망치 → 광내기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석장으로 지정된 박찬봉은 근대 불상조각의 계보를 잇는 권정환의 수제자로 1972년부터 불교미술품 제작에 발을 들였다. 낙산사 해수관음상 제작에 참여한 것을 위시하여 파주시 보광사 대불과 대구 동화사 대불 등 대형의 여래불상 제작에 특기가 있다. 이 외에 강원도 동해시 사문선원 석조좌상, 경기도 포천시 법왕사 석조좌상, 경상북도 양산시 통도사 옥련암·문수보살·보현보살 등 많은 작품이 있다. 1987년에 문화재청 석조각공 기능자 제939호로 등록되었고, 2005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3) 기념물

① 맹사성 선생 묘(경기도 기념물 제21호)

맹사성孟思誠(1360~1438)은 세종대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냈다. 평소 청렴결백하여 공사를 엄히 구별하여 이름이 후세에 전해졌다. 『태종실록』을 감수하고 『팔도지리지』를 찬술하였으며 음률과 향약을 정리하고 악기를 제작하는 등 황희와 함께 세종을 잘 보필하여 조선 초기의 사회안정과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맹사성 선생 묘

맹사성 선생 묘의 봉분은 단분單墳으로 장방형의 호석을 둘렀다. 묘표

는 방부하업의 양식이 뛰어나고 연대가 분명하여 조선 초기 묘비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문인석은 복두공복幞頭公服 양식으로 홀을 맞잡은 손을 소매 안에 넣어 표현하였다. 총높이 127cm 규모로 세종대의 다른 문인석에 비해 규모가 작다. 이외에도 상석·망주석·장명등·동자석·묘표 등을 새로 갖추었다. 묘의 우측 구릉에 부인 철원최씨의 묘가 있어 동원이강합장同原異岡合葬으로 볼 수 있다.

② 최항 선생 묘(경기도 기념물 제33호)

최항崔恒(1409~1474)은 1443년(세종 25)에 집현전 학사가 되어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였고 『용비어천가』를 주해註解하였다. 또 『세종실록』과 『문종실록』을 편찬하였고, 『고려사』를 개찬改撰하였다. 선생은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학자 관료로서 문물제도의 정비에 큰 공을 세웠고, 역사와 어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문장을 잘 지어 명과의 외교문서를 많이 지었다.



최항선생 묘

최항 선생 묘의 봉분은 원형봉토 단분單墳으로서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계에는 봉분과 묘표, 중계에는 문인석과 근래 건립된 상석·향로석·장명등 등을 갖추었고, 하계에는 신도비를 세웠다. 봉분 우측에 있는 방부 하엽 양식의 묘표에 4행으로 최항의 묘소임을 밝혔고, 후면에는 1474년(성종 5)에 세운 연대를 기록하였다. 좌측 묘비는 선생의 17대손이 세운 것이다. 2m가 넘는 문인석은 복두공복 양식으로 홀을 맞잡은 손을 소매 안에 넣어 표현했다.

신도비는 상단을 하엽형으로 만들었는데 연봉이 망실된 상태이다. 신도비 전체가 검게 산화되었고, '문정공묘비文靖公墓碑'라 기록한 전액만 확인될 뿐, 마모가 심하여 비문은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1479년에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동금석문』을 참고하여 같은 형태로 만든 새로운 신도비에는 서거정이 비문을 짓고, 성임이 글씨를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③ 허난설현 묘(경기도 기념물 제90호)

허난설현許蘭雪軒(1563~1589)의 본명은 허초희許楚姬이며,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의 누이로 용모가 아름답고 성품이 뛰어났다. 그녀는 섬세한 필치로 여성 특유의 감상을 노래하여 애상적인 독특한 시세계를 이룩하였다. 작품의 일부는 허균에 의해 중국에 전해져 『난설헌집』으로 간행



허난설현 묘

되어 격찬을 받았다.

허난설현의 묘는 현재의 위치에서 약 500m 우측에 있었으나 1985년 중부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이전되었다. 옛 석물은 문인석만 있는데, 복두공복 양식으로 후면에 야대를 조각하였다. 총높이는 150cm이며, 건립연대는 1600년 전후로 보인다. 묘비·장명등·상석·망주석·둘레석은 근래에 만들어졌다. 묘비의 비문은 이송녕이 지은 것이며, 묘의 우측에는 1985년 ‘전국시가비건립동호회’에서 세운 시비詩碑가 서있다. 시비에는 허난설현의 곡자시哭子詩가 새겨져 있으며 시의 대상인 두 자녀의 무덤이 허난설현 묘 좌측 전면에 나란히 있고 상단에 김성립의 묘가 있다.

④ 신립 장군 묘역(경기도 기념물 제95호)

신립申瑬(1546~1592)은 선조가 즉위한 해인 1567년 무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1583년(선조 16) 여진족 니탕개를 격퇴한 후 계속되는 침입으로부터 6진을 지켜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충청·전라·경상의 3도순변사로 임명되었고, 아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대결하였으나 크게 패하자 남한강에 투신 자결하였다. 후에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신립 장군 묘

봉분은 원형봉토분으로 부인 전주최씨와의 단분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있고, 그 앞에 장명등이 있으며, 좌우로 동자석·망주석·문인석이 각 1쌍씩 두루 갖추어져 있다. 봉분 왼쪽에는 방부개석 양식의 묘갈이 있다. 옥개석 용마루 양쪽 끝에 용구를 설치한 평산신씨 묘역의 특징을 보여준다.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신익상이 글씨를 써서 1703년(숙종 29)에 세운 것이다. 문인석은 금관조복金冠朝服 양식으로 든중한 인상을 주며, 총높이 158cm이다. 봉분 앞의 동자석은 총각을 표현하였는데 총높이는 116cm이며, 망주석은 총높이 159cm이다.

⑤ 김자수 선생 묘(경기도 기념물 제98호)

김자수金自粹(1350~1413)는 고려 말인 1374년(공민왕 23) 문과에 급제하였다. 1392년(공양왕 4)

충청도관찰사·형조판서에 이르렀으나 정세가 어지러워지자 모든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안동에 은거하였다. 조선이 개국된 뒤 태종이 형조판서로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긴 후 자결하여 고려에 대한 충정을 지켰다.

봉분은 원형봉토분으로 상하쌍분이다. 봉분 앞에 혼유석·상석·향로석이 있고, 그 앞에 장명등이 있다. 묘역 좌우로 석양石羊을 배치하였으며, 옛 석물로 망주석 1쌍과 문인석 2쌍이 있다. 상석 좌우에 세워진 문인석은 높이 80cm로 작으며 고졸古拙한 느낌이다. 양식으로 보아 조선 초기의 것으로 보이며, 묘역 앞쪽의 문인석은 금관조복의 형태로 17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묘비는 그의 유언대로 세우지 않았다. 신도비는 땅에 묻혀 있던 것을 1926년에 후손들이 발굴하였으나 비문의 마모가 심하여 새로 건립하였고, 발굴된 옛 신도비는 그 옆에 놓여놓았다. 1926년 건립된 신도비의 추기에 의하면, 옛 신도비는 1654년 채유후蔡裕後가 비문을 짓고, 8대손 김홍옥金弘郁이 글씨를 썼으며, 여이징呂爾徵이 전액을 올렸다.



김자수 옛 신도비

⑥ 김균 선생 묘(경기도 기념물 제105호)

김균金綰(?~1398)은 1360년(공민왕 9) 성균시에 합격하였으며 공양왕 때에 전법판서를 지냈다. 조선이 개국한 뒤 태조를 추대한 공로로 개국공신3등 계림군에 봉해졌다. 벼슬은 보국승록대부로서 좌찬성에 이르렀고, 시호는 제숙齊肅이다.

묘역은 곡장으로 둘러져 있고 봉분은 상하쌍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방형의 호석을 둘러으며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석과 장명등을 중



김균 선생 묘

심으로 좌우에는 문인석 2쌍, 망주석이 1쌍씩 배치되어 있고 묘표가 세워져 있다. 묘표는 방부원수형으로 전면에 ‘조선개국공신계림군김공군지묘朝鮮開國功臣鷄林君金公稹之墓’라 묘주를 밝히고, 후면에는 17세손인 김홍집이 입석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문인석은 2쌍 모두 복두공복 양식으로 16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망주석은 아무런 장식을 가하지 않았으며 19세기 전반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묘의 석물 중 상석·향로석·장명등·석양 등은 근래에 새로이 설치한 것이다.

묘의 전방 약 80m 지점에는 1905년에 건립한 신도비가 있다. 신도비문은 송병선이 짓고, 윤용구가 글씨를 썼으며, 김영한이 전액을 올렸다. 신도비문에 의하면, 그의 묘역은 실전失傳되었다가 후손 김사목이 광주유수로 부임하여 수소문한 끝에 찾아내 정비한 것이다.

⑦ 망월사지(경기도 기념물 제111호)

망월사지望月寺址는 산성의 동문에서 북으로 난 작은 길을 따라 250m 가량 올라가 장경사와 갈라지는 길에서 왼쪽으로 접어들어 200m 정도 산으로 올라간 곳에 위치한다. 좁은 길을 따라 산의 중턱 이상 올라가면 넓은 계곡이 펼쳐지는데 이곳이 망월사지이다. 산지山地에 경사를 이용하여 절을 지었으므로 곳곳에 쌓아 놓은 축대가 남아 있다.



복원된 망월사 대웅전과 13층 적멸보궁탑

『중정남한지』에 의하면, 절터는 예로부터 망월암이 있었던 곳으로 남한산성의 9개 사찰 중 가장 오래된 절이다. 고려 때 세워진 장의사莊義寺가 있었는데 태조가 도성을 세우면서 허물어 그곳의 불상과 『금자 화엄경金字華嚴經』 일부, 금정金鼎 1구를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1682년 승통정첩僧通政帖 150장과 가선첩嘉善帖 50장을 발급하여 문루를 개축한 사실이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망월사는 일제가 1907년 성안의 화약과 무기를 수거할 때 폭파하여 모두 소실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옛 망월사의 유구遺構는 법당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쌓은 축대와 현재의 법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용된 장대석, 그리고 초석礎石 몇 개 뿐이다. 대웅전·극락보전·13층 적멸보궁탑·요사채는 다시 건립되었으며, 입구에 감로수 우물이 있다. 비구니 수도원을 겸한 사찰이다.

⑧ 개원사지(경기도 기념물 제119호)

개원사지開元寺址는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남서쪽으로 300m 거리에 위치한다. 1624년(인조 2)에 남한산성을 보수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승도僧徒들을 총지휘하는 본영사찰本營寺刹로 창건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는 종묘의 위판과 원종의 영정影幀 등을 법당에 봉안하기도 하였다.



복원된 개원사 대각전

1894년(고종 31) 의승방변義僧防番이 폐지될 때까지 270여 년 간 승총僧總이 주재하던 사찰로서 전국 사원의 승풍僧風을 규찰하는 규정소가 설치되는 등 명실상부한 조선 불교의 총본산이었다.

『중정남한지』에 의하면, 1637년(인조 15) 서호西湖에 닿은 배에 사람은 없고 대장경이 든 함만 있는데, 함 위에 ‘중원개원사개간中原開元寺開刊’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인조는 “사람이 배를 이끈 것도 아니면서 배가 갑자기 스스로 왔으니, 이는 영괴靈怪한 일이다. 이 책이 중국 개원사에서 나왔으니 우리 사찰에 같은 이름을 가진 절을 찾아서 길이 간직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당시 유일한 개원사인 이 절에 대장경을 금란보金欄褙 열 벌로 싸서 봉안했다고 한다.

1907년 일제가 산성의 무기를 수거하고 화약을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러 법당·누각 등의 부속 건물과 함께 대장경도 전소되었고, 곧 폐사되고 말았다. 그 후 작은 건물 1동만 남아 있었으나, 1976년 선효화상禪曉和尚과 신도들이 대각전·요사 등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현재 군기고지軍器庫址, 누각지樓閣址, 종각지鐘閣址 등에는 초석·돌계단·박석薄石 등이 남아 있어 옛 개원사의 규모와 건물의 배치를 짐작케 한다. 또한 사찰에는 남한산성 축성과 산성 수호승군들이 사용했던 유분鎗盆 1점과 석장石杖·옹기·합지 등의 유물이 보존되어 있다.

⑨ 신익희 생가(경기도 기념물 제134호)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의 정치지도자로서 제헌국회 부의장과 국회의장을 역임한 해공海公 신익희申翼熙(1894~1956)의 생가는 현 위치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있었으나, 1658년(고종 2) 대홍수로 집이 파손되어 1867년경에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1925년에 건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6·25전쟁 때 폭격에 의해 파손된 바깥채는 근래 개축하였으며, 2002년 12월 24일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 안채가 전소되었으나 복원하였다.

가옥은 목조 기와집으로 안채와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 한옥의 외관을 잘 간직하고 있다. 안채는 전체적으로 ㄱ자형 평면을 기본으로 하면서 안방 뒤로 2칸을 달아내

었다. 중앙의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 안방 좌측에 건넌방을 두고, 안방 앞으로 상부에 다락이 있는 부엌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퇴칸을 이용하여 연결되도록 하였다. 바깥채는 ㄴ자형으로 대문을 중심으로 우측에 방, 좌측에 방과 마루를 두어 사랑채로 이용하였으며, 마루방 뒤로 벽감이 있는 방이 연결되어 있다. 7칸 규모의 부속채가 바깥채 우측에 있다.

전체적으로 19세기 또는 20세기 초 경기지역 중소 지주계층의 전형적인 가옥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기둥 일부를 제외하면 부재가 기늘고 치목 수법도 오랜 것이 아니어서 20세기 초에 크게 개축한 것으로 보인다. 생가에는 목판·서적·화살·인쇄기 등의 유품이 보존되어 있다.



신익희 생가 내부

⑩ 신희 묘역 및 신도비(경기도 기념물 제145호)



신희 묘



신희 신도비

신흠申欽(1566~1628)은 1585년(선조 18) 진사시進士試와 생원시生員試에 차례로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영의정까지 올랐다. 그는 한문학 4대가의 한 사람으로 장중하고 간결한 성품과 뛰어난 문장으로 인하여 선조의 신망을 받으면서 항상 문한직文翰職을 겸임하였다. 또한 대명 외교문서의 제작, 시문의 정리, 각종 의례문서의 제작에 참여하는 등 문운文運의 진흥에 크게 기여하였다.

봉분은 원형봉토분으로 부인 전의이씨와 단분합장묘이다. 묘역은 사성沙城으로 둘러져 있고, 봉분 앞에는 묘비·상석·향로석이 가까이 모여 있다. 상석 전방에는 장명등이 있으며, 상석과 장명등을 중심으로 좌우에 망주석과 문인석이 배열되어 있다. 묘비는 1628년(인조 6)에 건립된 것으로 후면에 그가 손수 작성한 비문이 세워져 있다. 1699년(숙종 25)에 건립된 신도비는 귀부이수 양식으로 묘역의 동남쪽 약 200m 지점 묘역 입구에 세워졌다. 총높이 335cm의 대형 석비로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비례를 갖췄고, 반원형에 가까운 이수는 생동감 있는 조각으로 표현되어 있다.

⑪ 의안대군 방석 묘역(경기도 기념물 제166호)

의안대군宜安大君은 조선 태조의 제8남이며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 소생으로 이름은 방석芳碩이다. 1392년(태조 1) 세자로 책봉되었으나, 1398년 왕위계승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무인정사戊寅靖社(제1차 왕자의 난) 때 시해되었다.

묘역은 '애기능'이라고 부르는 산능선에 정남향으로 위치해 있으며, 상하합장묘의 형태로 각 봉분은 장방형의 호석을 둘렀다. 의안대군 묘



의안대군 묘

앞에 세자빈 심씨의 묘가 있고, 그 앞으로 석물을 배설하였다. 봉분 앞의 묘비 2기는 모두 방부하엽 양식이다. 문인석 2쌍은 복두공복 양식으로 홀을 잡은 손은 보이지 않고, 의습선은 부드럽게 표현되어 15세기 중반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향로석과 상석받침은 후대에 개수한 것으로 상석을 원래보다 높이 받치게 되었지만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⑫ 광주삼리 구석기유적(경기도 기념물 제188호)

광주삼리 구석기유적은 2001년 광주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노곡천과 곤지암천이 합류하는 서쪽 부분에 위치하며, 일대는 해발 80m 정도의 비교적 편평한 언덕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유적 언저리에는 낮은 산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으며, 수원水源이 풍부하여 사철 메마르지 않은 물줄기가 발달하여 있다. 이러한 지형 조건은 구석기인들이 삶의 터전으로



곤지암읍 삼리 출토 흑요석(왼쪽부터 뚜르개, 새기개, 슴베찌르개)

삼기에 적당했을 것이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은 약 4,000여 점에 이르고 있어, 광주지역에서 펼쳐졌던 구석기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삼리 유적은 지금부터 약 1만 년 전에 쌓인 갈색 또는 짙은 갈색의 토양층을 기반으로 한다. 조사 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토양층 밑으로는 강물의 영향을 받아 쌓인 자갈층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고토양층 안에서는 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된 3개의 문화층이 밝혀졌다. 가장 아래에 있는 제3문화층은 중기 구석기시대 늦은 시기에 속하고, 그 위에 있는 제2문화층과 제1문화층은 후기 구석기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3문화층에서 제1문화층에 걸쳐 찌개나 여러면석기와 같이 크고 무거운 석기 종류는 고르게 나타나지만, 제1문화층으로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든다.

3개 문화층에서 발굴된 잔손질된 석기 중에서 비교적 자주 보이는 것이 굽개와 홈날 종류이다. 제2문화층에서는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대형 밀개가 출토되어 관심을 끈다. 3개 문화층에서 석기 제작에 이용된 돌감의 대부분은 석영과 규암 종류이며, 유적 주변의 곤지암천이나 노곡천에서 쉽게 발견된다. 삼리 구석기유적에서 가장 특징적인 돌감은 제1문화층에서 드러난 흑요석이다.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는 제5지역에서만 발견되었다. 이곳에서는 가늘고 길쭉한 흑요석 돌날(좁돌날)이 다량 발굴되었으며, 흑요석으로 만든 뚜르개·스베찌르개·새기개 등도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4) 문화재자료

① 지수당(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호)

지수당池水堂은 1672년(현종 13)에 광주부윤 이세화李世華(1630~1701)가 연못가에 지은 정자이다. 앞면 3칸, 옆면 3칸의 통간 건물로서 홀처마에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외벌대의 기단 위에 방형의 초석을 놓았고 그 위에 방주方柱를 기둥으로 사용하였으며, 각 칸은 모두 개방되어 있다. 하부에 머름을 둔 평난간을 설치하였으며, 바닥은 우물마루로 일종의 누정樓亭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지수당의 가을

건물의 앞뒤로는 세 개의 연못이 있었으나 하나는 매몰되어 지금은 두 개의 연못만 남아 있다. 연못 가운데에는 ‘관어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빈 터만 남아 있다. 지수당 옆의 연못은 ㄷ형태로 연못이 정자를 둘러싼 모습이다. 정자의 동쪽에 이세화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② 장경사(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5호)

장경사長慶寺는 남한산성 동문에서 동북쪽 350m 거리에 있는데, 남한산성 여러 사찰 가운데 경치가 가장 수려하다. 1624년(인조 2) 남한산성 수축 때 승군의 숙식과 훈련을 위해 건립한 사찰 가운데 하나로 망월사 천주사와 함께 남한산성 3대 사찰이었다.

축성 후에도 장경사에 승군을 주둔시키고 수성에 필요한 훈련을 계속하게 하였다. 남한산성의 수비와 관련하여 장경사는 중요한 거점이었



남한산성 수축 때 승군의 숙식을 위해 창건한 장경사

기 때문에 신지웅성의 수어守禦를 담당하였으며, 포루와 암문 등이 주변에 설치되어 있다.

1907년 일제가 남한산성의 무기고와 화약고를 파괴할 때 대부분의 사찰은 파괴되었으나 장경사는 피해가 적었다. 그러나 1975년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중창하였다. 대웅전은 조선 후기 다포계多包系 양식의 팔작지붕으로 된 건물이며 진남루·칠성각·대방·요사채 3동이 있다.

③ 추곡리 백련암 부도(경기도 문화재자료 제53호)

추곡리 백련암 부도浮屠는 태화산 중턱에 위치한 백련암 요사채 옆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석종형石鐘形이다. 가로와 세로 각 1.5m의 방형 지대석地臺石 위에 원형의 좌대를 마련하여 부도를 세웠다. 지대석의 각 면에는 장방형의 액額을 구성한 후 전면에는 초화문草花文을, 측면에는 안상眼象을 열게 새겼다. 그 위의 좌대에는 복엽 단판의 복련覆蓮을 새겼는데, 석종형 부도의 아랫면에는



추곡리 백련암 부도

받침의 연화문蓮花文과 일치되게 복엽 단판의 양련仰蓮을 새겨 대칭을 이루고 있다. 부도의 상단에는 연주문聯珠文을 돌린 대 위에 복발覆鉢과 보주寶珠를 얹었다.

백련암 부도의 주인공이나 조성시기는 사적기록이나 명문이 없어 알 수 없는 상태이며, 대략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④ 곤지암(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3호)

곤지암昆池岩은 화강암으로 된 큰 바위와 작은 바위 두 개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큰 바위는 높이 3.6m에 폭이 5.9m이고, 작은 바위는 높이 2m에 폭 4m이다. 곤지암의 명칭에는 선조 때의 명장 신립 장군에 얽힌 전설이 전해진다.

신립은 왜군을 물리치라는 명을



벼락으로 쪼개진 곤지암과 그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400년 된 향나무

받고 김여물金汝吻과 함께 훈련도 안 된 병사 몇 백 명을 이끌고 충주로 향했다. 그는 조령鳥嶺을 버리고 달천達川에 배수진을 치고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지휘하는 수만 명의 왜군과 싸우다 참패를 당하자 강물에 투신하여 죽었다. 살아남은 몇몇 병사가 물에서 신립 장군을 건졌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 당장이라도 호령할 것 같은 기세를 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장군의 시체를 광주 곤지암으로 옮겨 장사를 지냈다. 그런데, 묘지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고양이처럼 생긴 바위를 말을 타고 지나가려고만 하면 말발굽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으므로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다. 그러던 중 어떤 선비가 이 앞을 지나가다가 신립 장군의 묘를 찾아가, 왜 오가는 행인을 괴롭히느냐고 핀잔을 주었다. 그러자 갑자기 뇌성과 함께 벼락이 쳐 바위를 내리쳐서 바위의 윗부분이 땅에 떨어지고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그 옆에 큰 연못이 생겼다. 그 후로는 말을 타고 다니는 행인의 통행이 자유롭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곤지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⑤ 우리절 5층석탑(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59호)

우리절 5층석탑은 각 부분의 조각 수법이 섬세하며 석탑 길이가 315cm로서 규모가 작은 고려시대 전기 석탑의 전형적인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석탑은 도척면 상림리 178번지에 소재한 우리절 경내에 있으며, 2010년 12월 8일에 석조부도 2기와 함께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우리절은 통도사, 송광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사찰의 하나이자 고려팔만대장경으로 유명한 해인사의 말사로 대한불교조계종에 속한다.



우리절 5층석탑



우리절 석조부도 2기

⑥ 우리절 석조부도 2기(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60호)

우리절 석조부도 2기는 17~18세기에 제작된 일반적인 형태의 원형 부도에서 다소 벗어나 한옥 지붕 모양으로 꾸미는 등 구조와 조각기법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부도는 도척면 상림리 178번지에 소재한 우리절 경내에 있으며, 2010년 12월 8일에 5층석탑과 함께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3)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1) 유형문화유산

① 정충묘(광주시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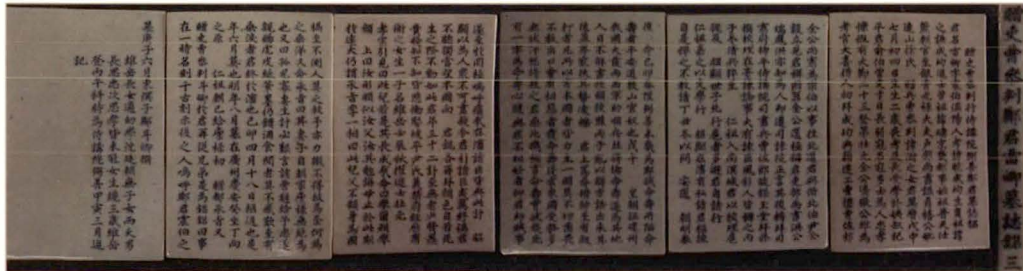
정충묘精忠廟는 1636년 병자호란 때 쌍령전투에서 전사한 경상좌도병마사 허완許完, 경상우도병마절도사 민영閔楳, 허완의 중군이었던 안동영장 선세강宣世綱, 그리고 근왕병을 이끌고 죽주산성까지 올라왔던 공청도병마절도사 이의배李義培 등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정충묘

정충묘는 3번 국도변에 면한 산기슭에 2단으로 축대를 쌓아 대지를 조성한 후 기단을 놓고 건물을 세웠다.

입구에는 홍살문 1기를 세웠으며, 묘까지는 계단을 설치하였다. 건물은 앞면 1칸, 옆면 1칸 반의 통간으로 방형초석에 방형기둥을 세워 기둥머리에 도리와 보를 결구한 납도리집이다. 겹처마에 팔작지붕이며, 막새기와를 사용하였다. 건물 정면은 좌우에 벽을 세우고, 가운데에 4짝 분합문을 달았으며, 나머지 3면은 적벽돌로 화방벽을 쌓았다. 내부바닥은 플로어링 처리를 하였으며, 천장은 평반자를 설치하고 격자로 나뉜 연화문과 격자틀에 단청하였다. 편액은 '精忠廟'라 좌에서 우로 썼고, 1959년에 쓴 정충묘명이 걸려 있다. 정충묘 도유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삭망에 봉심하고, 제 장군의 전망일인 음력 정월 3일에 광주문화원 주관으로 제향을 올리고 있다.



정뇌경 묘지석

② 정뇌경 묘지석 및 함(광주시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제2호)

병자호란 때 청에 볼모로 간 소현세자를 배종陪從한 정뇌경鄭雷卿(1608~1639)의 묘에서 출토된 석함과 그 안에 넣어둔 청화백자 묘지석이다. 2006년 5월 장지동 소재의 정뇌경 묘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석 아래에서 발견하여 온양정씨 종중에서 소장하고 있다. 발견 당시 묘지석은 화강암을 치석하여 제작한 석함 안에 모래를 깔고 2매씩 3단으로 포갠 다음 맨 위에 1매를 안치하였다. 묘지석은 모두 7매로, 청화로 명문을 필사한 뒤 유약을 입혀 구웠다. 청화의 발색은 대체로 검은 빛이 약간 돌면서 푸른색이 선명하다. 전체적으로 휘거나 균열이 간 곳 없이 깨끗하게 번조되었다.

묘지명의 제목은 ‘증이조참판행시강원필선정군묘지명贈吏曹參判行侍講院弼善鄭君墓誌銘’이고, 각 9행 19자 분량으로 종횡을 맞추었다. 각 장의 후면은 아무런 명문이 없으며, 내화토 받침 자국이 남아 있다. 묘지명은 정두경이 1660년 6월에 지었고, 아들 정유악이 1674년 3월에 추기를 썼기 때문에 이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태로 볼 때 광주분원에서 제작된 최고급 백자로 평가된다. 방형의 석함은 뚜껑 상면에 ‘上’자를 음각하여 매설 방향을 알 수 있게 하였고, 뚜껑 안쪽을 약간 돌출시켜 석함과 꼭 맞물리도록 만들었다.

③ 광산김씨 직제학공파 김약시/김채 묘역 내 묘표·문인석(광주시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제3호)

김약시金若時(1335~1406)는 고려 말인 1382년(고려 우왕 8)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대과에서 급제하였으나 조선이 개국된 후에 은거하였다.

김약시 묘표는 1727년(영조 3)에 건립되었다. 비문은 이재가 짓고 글씨는 김약시의 방손 김조택이 썼다. 비석은 원수圓首형에 받침석은 자연석을 대강 다듬은 받침석을 썼는데, 규모는 높이 149cm, 최대폭 64.5cm, 두께 20.5cm이다. 이 비석은 전 왕조인 고려에 충절을 지킨 이들에 대해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16세기 이후에 건립된 몇 가지 예의 하나이다.



김약시 묘표



김약시 묘 문인석

석인은 복두공복 양식이 유행하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얼굴은 과장되어 전체 크기의 1/3을 차지하고 눈·코·입을 우스꽝스럽게 배치하였다. 측면에서 본 모습은 분명 두건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면에는 그것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목을 표현하기 위해 깊은 홈을 내었다. 몸통은 사각기둥처럼 단순하게 표현되었는데, 양손을 가운데 모으고 64×9cm의 긴 홈을 잡고 있다. 양손 모두 손가락 5개씩 표현하느라 사실보다 과장되어 있다. 발은 매몰되어 보이지 않는다.

김취金萃(?~1452)는 김약시의 아들로 15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1444년(세종 26) 세종의 명을 받아 청주 초수리椒水里(수안보)에 가서 목욕하고 안질을 치료한 후 '안질이 조금 나았다'고 복명하여 세종이 초수리에 가서 안질을 치료하는데 공을 세웠다.

김취 묘표는 하엽방부(화관형) 형태로 하엽과 비신을 하나의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건립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15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이극증 묘역 내 석물(광주시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제4호)

이극증李克增(1431~1494)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경위景擣, 호는 삼봉三峰, 부는 우의정을 지낸 인손仁孫이다. 1456년(세조 2)에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갔다. 익재공신 2등으로 광천군廣川君에 봉해졌으며, 한성부판윤으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공장恭長이다.

묘는 초월읍 지월3리 경안천에 인접한 구릉에 동남향하고 있다. 1990년 성남시 야탑동에서

옮겨오면서 호석을 설치하였다. 봉분 중앙에 상석·향로석·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다. 장명등은 사모합각의 옥개석을 갖추었고, 방형의 간주석에는 방형 화창 2개소가 앞뒤로 마련되어 있다.

묘표는 봉분 옆에 있으며 방부원 수형이다. 전·후 2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면에는 “보충보사정난익재순성명량좌리공신송정대부광천군검지경연사동지성균관사□□시공장공이

공지묘輔忠保社定難翊載純誠明亮佐理功臣崇政大夫廣川君兼知經筵事同知成均館事□□諡恭長公李公之墓”라 새겨져 있다.



이극증 묘

(2) 무형문화유산

① 승렬전 제향(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제1호)

승렬전 제향祭享은 백제시조 온조대왕과 남한산성 축성의 총책임자인 이서 장군을 위한 제향이다. 매년 봄과 가을에 제향을 올리고 있으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봄에는 하남시, 가을에는 광주시에서 문화원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유도회에서 진행한다.

행례절차는 유교예법에 의해 진행되며, 제복은 조선시대 금관조복, 제



승렬전 제향

기는 종묘제기 양식으로 마련된다. 제물로는 쌀·좁쌀·피·기장·마른조기·생선·대구포·소고기 포·절인 소고기·돼지고기·양고기 등과 은행·밤·호도·대추·잣 등을 쓴다. 미나리·고사리·도라지·부추 등의 채소는 정갈히 다듬어 아래위를 묶어서 올리며, 무

청이 반쯤 있는 작은 통무를 올린다. 특이하게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숙성시킨 편육을 적솥으로 쓰고 양고기와 토끼고기를 쓴다. 토끼는 가죽을 벗기고 목을 없앤 것을 통째로 쓰는데 유래는 알지 못한다. 과일은 쓰지 않는다.

축문과 홀기, 분정기, 진설도 등이 관리되고 있다. 제의는 신을 영접하고 음식과 술을 올린 다음, 신을 보내드리는 절차를 거치며, 전폐례-초헌례-아헌례-종헌례-사신례-음복례-망료의 순서로 진행된다.

② 현절사 제향(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제2호)

현절사 제향은 병자호란 때 척화를 주장하다 청에 끌려가 참형에 처해진 오달제·윤집·홍익한 등 삼학사와 척화대신이었던 김상헌과 정온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제향이다. 원래는 2월과 8월 중정中丁일에 제향을 올렸으나 지금은 매년 봄에는 하남시에서, 가을에는 광주시에서 음력 9월 10일에 제향을 올린다. 승렬전 제향보다 격을 낮추어 전례를 진행하지만 제복이나 제기, 제물, 제관 등에서 별 차이가 없다.



현절사 오위 찬품

제물은 찹쌀·멥쌀·기장 등의 곡물과 미나리·도라지·부추·죽순·청저 등의 채소, 마른조기·대구포·소고기적·어포 등의 어육류, 밤·호도·잣·은행 등을 올리는데 최근에는 죽순 대신 고사리를 쓴다. 승렬전과 조리방법은 같은데, 토끼와 절인 소고기가 없으며, 과일은 쓰지 않는다. 축문과 홀기, 분정기, 진설도 등은 현절사 도유사가 관리하고 있고, 승렬전 제향과 행례절차는 같다.

③ 광주 광지원 농악(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제3호)

광지원 농악은 1890년대부터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에서 전승돼온 농악으로, 광주시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의 하나이다. 굿머리, 인사굿, 돌림벅구, 당산별림1, 여장놀이, 벅구놀이, 오방진, 가새백이, 사통백이, 원 좌우치기, 네줄백이, 쟁치기, 짹짹이, 밀벅구놀이, 당산별림2, 벅구놀이, 쇠놀이, 무동놀이, 오무동놀이, 열두발상모, 땃음굿 등 20여 가지의 다양한 농악무를 펼치는 전통 농악의 진수로 손꼽힌다.

광지원 농악은 1997년에 광주중앙고등학교(당시 광주종합고등학교) 이원대 교장선생과 민성기 선생을 중심으로 농악반이 창단되면서 그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당시 광주의 몇몇 지역에서 농악이 계승되고 있었는데, 그중 광지원 농악이 가장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전 세대에서 신세대 학생들에게 이어진 광지원 농악은 광주중앙고 농악반이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

2000년 제26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에서 장원을 차지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미 남한산성문화제, 너른고을 대보름 행사 등 광주시의 각종 행사 등에서 공연을 했었지만 전국대회 장원 수상을 계기로 일본, 중국, 프랑스 등 해외공연까지 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이들의 실력과 명성은 이어져 2005, 2008, 2009, 2011년에도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장원을 차지한 것은 물론 2006년 제13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중앙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광지원농악보존회가 만들어졌고, 2004년에는 광주중앙고 교내에 10억여 원을 들여 농악전수관을 건립하는 등 광지원 농악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노력은 이어졌다. 또한 광지원 농악의 계승 및 발전을 통해 시민이 전통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0년 7월 15일에는 광주시립 광지원 농악단이 창단되었다. 그리고 2011년 7월 26일에는 공연예술로서의 우수성과 지역적 특색이 양호하게 보존된 점 등이 인정을 받아 광지원농악보존회를 관리 주체로 하여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제3호로 지정되었다.

(3) 기념물

① 산이리 지석묘(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1호)

산이리 지석묘는 3번 국도변 벽산아파트 입구에 위치하며, 보호철망과 안내판이 있다. 벽산아파트 건설로 인해 원래의



산이리 지석묘

장소에서 약 10m 이전하여 완만한 구릉지에 조성되어 있다.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에 의해 처음 조사되었는데 이전하면서 원형을 추정하여 복원하였다. 상석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길이 620cm, 단축길이 390cm, 두께 70cm이다. 암질은 화강편마암으로 규모가 큰 편에 속하며, 한쪽 모서리에 성혈性穴이 관찰된다. 판석재 받침이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측면의 장벽은 2매로 구성되어 있다. 전형적인 탁자식 지석묘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② 백인대(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2호)

백인대白刃臺는 하천을 낀 절벽에 있어 배를 타고 건너가서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 송시열이 이 지역 출신의 제자로 알려진 구문찬과 강론하며 시문에 대한 화답을 나누던 곳으로 알려진 장소이다. 1937년 구문찬의 후손이 육각정을 지었으나 훼손된 것을 1996년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고 한다.



백인대

현재의 백인대는 콘크리트 건물로 6각형 단층이며, 초익공 겹처마에 모임지붕으로 꾸몄다. 막새기와를 사용하였으며, 내림마루 끝단에는 망와를 세웠다. 모임지붕 한 가운데는 절병통을 세웠으나 지금은 탈락되어 떨어져 있다. 정자 외곽에 계자난간을 설치하였다.

③ 사옹원 분원리 석비군(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3호)



사옹원 분원리 석비군

사옹원 분원리 석비군은 사옹원 분원이 설치되었던 분원리에 모여있는 19기의 비석군이다. 선정비 16기, 송덕비 2기, 시혜기념비 1기가 세워져 있다. 선정비는 사옹원 도제조, 제조, 번조관, 군수 등의 선정을 기념하기 위한 비석이다. 송덕비는 1941년 면장과 학교장을 지낸 인물을 기리기 위한 것이고, 시혜기념비는 흉년에 재산을 출연하여 동민을 살린 것을 기념하는 비석이다. 각 비석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번호	비제	건립연대	관련인물	비고
1	司讞院都提調李公時秀惠民遺愛碑	1823	이시수	隨事斗護 罰每從寬
2	司讞院都提調蔡公濟恭□□□	1825	채제공	
3	司讞院都提調趙公寅永善政碑	1847	조인영	
4	司讞院都提調金公興根善政碑	1865	김흥근	
5	司讞院都提調朴公珪壽善政碑	1877	박규수	
6	司讞院提調綾昌君清德善政碑	1755	이숙李櫛	愛恤匠民 永世不忘
7	司讞院提調徐公左輔善政碑	1844	서좌보	
8	司讞院提調朴公岐壽善政碑	1847	박기수	
9	司讞院提調興寅君善政碑	1867	이최응李最應	
10	司讞院提調閔公泳達善政碑	1890	민영달	
11	燔造官趙公行鎮善政碑	1847	조행진	
12	燔造官丁公學淵善政碑	1859	정학연	
13	燔造官沈公英慶善政碑	1867	심영경	
14	燔造官洪公大重善政碑	1872	홍대중	
15	燔造官金公啓永善政碑	1880	김계영	公正□□
16	行郡守金公老淳善政碑	1847	김노순	
17	丹陽禹公施惠紀念碑	1934	단양우씨	이름 미상
18	面長丹山斌氏頌德碑	1941	단산빈씨	이름 미상
19	全公洛奎頌德碑	1941	전낙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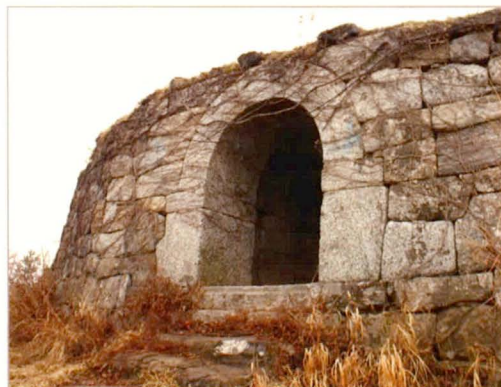
참고문헌 :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지정 조사보고서』(2007)

④ 신남성 동·서돈대(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4호)

신남성新南城은 남한산성의 7암문에서 약 1.5km 떨어진 검단산 정상부에 쌓은 성으로 남격대라고도 한다. 병자호란 때 청군이 이곳을 점령하여 호준포와 홍이포 7~8문을 포진시켜 성을



신남성 동돈대



신남성 서돈대

공격하였다. 1710년(숙종 36) 남격대에 돈대를 쌓았으며 1719년 수어사 민진후가 개축하였다.

1753년(영조 29)에 신남성 주변에 2개의 돈대를 쌓게 하였는데 동돈대는 검단성의 두 번째 봉우리에 세워졌다. 동돈대는 둘레 134m, 성벽의 두께 4.3m로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내부면적은 1,381㎡이다. 평균 높이는 4m 내외이고 안쪽에 1m 정도의 단이 조성되어 있다. 내부에 한국통신의 송신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1996년 증축공사로 인해 돈대의 상당부분이 훼손되었고 서쪽의 출입구에 놓은 홍예석도 차량진입을 위해 확장하여 신축하였다.

서돈대는 동돈대에서 서쪽으로 235m 거리에 있다. 남한산성 동쪽의 한봉과 함께 산성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점이다. 서돈대의 둘레는 121m이고, 성내의 면적은 998㎡로 동돈대보다 약간 작은 규모이지만 동돈대 보다 조망이 좋다. 현재 서쪽 부분 성벽이 5m 정도 결실된 상태이며, 원상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내부가 훼손되었으나 출입시설과 외곽 성벽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출입구는 정교한 무사석 위에 5매의 홍예돌을 올렸는데 폭은 152cm, 높이가 152cm이다.

⑤ 남옹성 무인각석(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5호)

남옹성 무인각석戊寅刻石은 1638년 남한산성 남옹성 수축을 담당한 감독관, 목수, 장인의 이름을 각자한 돌로 총 105자가 기록되어 있다. 무인각석이라는 명칭은 비에 새겨진 '무인칠월戊寅七月'이라는 수축 시기에서 딴 것이다. 책임자는 도청都廳 광주부윤 홍전洪瑑(1606~1665)이고, 별장別將 최만득崔晩得, 영장領將 송효상宋孝詳, 감역관 3명, 목수 양남梁男 등 74명, 석수 강복姜福 등 13명, 야장이기탄李己嘆 등 2명, 니장泥匠 김돌시金玆屎 등 7명이 성역에 참가한 것으로 되어있다.



남옹성 무인각석

남옹성은 돈대 아래 다시 돌출한 웅성을 두른 이중성 형태인데, 성문이 아닌 돈대를 감싸 안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웅성이라 하기 어렵다. 웅성 끝에 홍예문을 내어 사각의 성을 구축하고 3면에 포좌를 설치하였다. 무인비는 홍예문의 한쪽 벽에 세웠던 것이나 성벽이 무너지면서 함께 허물어져 방치되어 있었으며, 비문의 글자는 상당히 마모된 상태이다.

⑥ 서혼남 묘비(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6호)

서혼남 묘비는 남한산성 역사관 주차장 옆 지수당 연못가에 있다. 서혼남徐欣南(?~1667)은 광주에 살던 사노私奴로,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온 후 청군에 포위되자 외부와의 연락을 위해 자원하여 승려 두청斗淸과 함께 성 밖의 도원수 김자점金自點, 황해병사 이석달李碩達, 전라감사 이시방李時昉의 장계를 성 안으로 가지고 돌아왔다. 서혼남은 적진도 정확하게 정탐하였는데, 택당 이식도 그를 통해 가족들이 피난했던 지역이 청군에게 함락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서혼남은 훗날 공로를 인정받아 면천되고 종2품계를 받았다.

비석은 2기가 있는데 하나는 1667년 3월 13일에 건립한 것으로 전면에 '가의대부동지중추부사서공지묘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徐公之墓'라 하였고 후면에는 '강희육년 정미삼월십삼일립康熙六年丁未三月十三日立'이라 하였다. 다른 하나는 절단되어 상단이 없는 상태로, 전면에 '…… 대부동지중추부사大夫同知中樞府事…… 서혼남지묘徐欣男之墓…… 한씨부좌韓氏附左'의 비문이 확인되고, 후면에는 '…… 오년팔월십오일五年八月十五日'의 기록이 있으나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서혼남 묘비

⑦ 탁지부측량 소삼각점(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7호)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인해 호조에서 관장하던 호구·공부·전량·식화·조세·재정 등의 사무 가운데 조세와 재정관련 사무는 탁지아문이 승계하고, 경제관련 사무는 공무아문과 농상아문이 승계하였다. 탁지아문은 1895년 을미개혁 때 탁지부로 변경되었으며, 정부의 회계·출납·조세·국채·화폐·은행 등의 사무 일체를 통괄하며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였다. 탁지부는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전국에 11개 지역을 선정하여 최초로 삼각측량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 설치한 삼각원점 가운데 1점이 1908년 수어장대 기반부 서쪽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탁지부측량 소삼각점

탁지부측량 소삼각점은 지상으로 노출된 부분은 높이 22cm, 폭 12×12cm의 정방형이며, 정상부에 +(십자)표시가 있고 전면에는 '탁지부度支部'라 음각되어 있다. 이 삼각점은 조본원점 鳥本原點을 기초로 하여 설치된 구 소삼각점 34번 장대將台로서 위도 37° 20' 37.445", 경도 127° 10' 32.180"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대의 측량과 비교할 때 오차가 30cm에 불과할 정도로 대단히 양호하다.

⑧ 여성제 묘역 및 신도비(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8호)

여성제呂聖齊(1625~1691)의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희천希天, 호는 운포雲浦, 부는 이량爾亮이나 중부仲父 이징爾徵에게 입양되었다. 1654년(효종 5)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영의정에 이르렀다. 저서로 『운포집雲浦集』이 전하며, 시호는 정혜靖惠이다.

묘는 남종면 수청1리 마을 내 세워져 있는 신도비에서 좌측 구릉에 동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配 금천강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상석·향로석·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망주석·문인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상석은 전면에 횡1열로 “영의정여공상석領議政呂公床石”이라 새겼다. 장명등(156cm)은 사모합각지붕의 개석을 갖추었고 화사석 4면에 사각의 화장을 내었다. 중대석에는 4면에 화문이 조각되어 있다. 동자석(90cm)은 얼굴부분 19cm로 쌍계가 파손되어 있다. 망주석(170cm)은 연꽃 봉오리 모양의 원수圓首 아래에 연주문蓮株紋과 운문雲紋 및 주림의 조각이 화려하다. 문인석(182cm)은 양관조복형이며, 얼굴부분이 60cm로 3등신의 신체비례이다. 양관의 후면뿐만 아니라 폐슬과 후수도 유운문으로 장식하였으며, 초화문을 새긴 대대에는 패옥을 길게 늘어뜨렸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덮고



여성제 묘



여성제 신도비

엄지를 치켜들어 흠을 마주 잡고 있다.

묘표는 봉분 좌측인 북쪽에 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석형이며 4면에 비문이 있다. 비신 전면에 종4열로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에문관춘추관관상 감사증시여공휘성제지묘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贈諡呂公諱聖齊之墓 배증정경부인금천강씨부配贈貞敬夫人衿川姜氏柁”라 새겼다. 비문은 외손 황해도관찰사 오명준吳命峻이 기記하고 손남孫男 사간원정언 광주光周가 서했다. 총높이 194cm로 비좌 28×104×71cm, 비신 128×61×27cm, 개석 38×97×64cm이다.

신도비는 묘소 하단부에 위치하여 남향하고 있는데 전체가 흑색을 띤다. 비의 형태는 방부 이수형이며 비좌 상부의 복련문이 수려하다. 오석의 비신에는 4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액은 비신 앞면에 “영의정여공신도비명領議政呂公神道碑銘”이라 새겼다. 비문은 남구만南九萬이 찬하고 유상운柳尙運이 서하였으며, 전은 생전에 여성제가 남긴 글씨를 모아 집자하였다. 이수는 발톱이 4개인 쌍룡이 구름 속에서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괴수와 마주 본 채 여의주를 잡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입석연대는 1704년(숙종 30)으로 공의 사후 13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392cm로 비좌 104×152×121cm, 비신 206×83×51cm, 이수 82×93×61cm이다.

⑨ 이손 묘역 및 신도비(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9호)

이손李蓀(1439~1520)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자방子芳. 부는 한원군漢原君 수철守哲이다. 1470년(성종 1)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갔으며, 1506년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정국공신3등에 봉해졌고, 1513년(중종 8) 한산군漢山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호간胡簡이다.

묘는 초월읍 신월리 두월마을 광주이씨 세장지 내 최하단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정경부인 이



이손 묘

씨의 묘가 옆에 별도로 조성되어 있는 쌍분으로 높이 125cm가량의 호석을 7각 2단으로 둘렀다. 3단의 계체석 구조로 다수의 석물을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각 봉분 중앙에 묘표·혼유석·상석·향로석과 쌍분 중앙에 장명등 및 좌우에 망주석·문인석과 묘소 하단에 신도비를 갖추고 있다. 문인석(186cm)은 복두공복형으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준수하다. 얼굴 부분이 60cm로 3등

신의 신체비례이며 턱 밑의 갓끈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엄지를 치켜든 양손은 깍지 낀 채 홀(44cm)을 마주잡고 있다. 허리에 찬 관대는 후면의 한쪽 끝이 길게 늘어진 야대이다.

묘표는 방부하엽형이다. 비신은 백색을 띠며 비문이 전면에만 종3열로 “병충분의정국공신 승록대부의정부좌찬성검판의금부사한산군 秉忠奮義靖國功臣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漢山君 증익호간공이군지묘 贈諡胡簡公李君之墓”라 새겨져 있다. 총높이 167cm로 비좌 42×78×50cm, 비신 86×44×16cm, 하엽 39×54×20cm이다.

신도비는 귀부이수형으로 묘소 아래에 있으며 주위 석재 난간을 둘러놓았다. 귀부는 입을 다문 채 몸통에서 41cm가량 얼굴을 내밀고 있으며 등에는 ‘○’ 형태의 귀갑문을 장식하였다. 비신은 백색대리석제로 비문은 전·후 2면에 있다. 전액은 비신 상부의 전면에 횡으로 “호간공신도비 胡簡公神道碑”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이행李荇이 찬하고, 김희수金希壽가 서하였다. 입석연대는 1520년(중종 15)이다. 이수는 앞면에 구름 속에서 여의주를 다투는 쌍룡이 생동감 있게 조각되어 있는데, 굽고 날카로운 4개의 발톱을 한 쌍룡 중 왼쪽의 것은 입을 다물었으며 오른쪽의 것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뒷면에는 단룡농주 單龍弄珠의 모습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총높이 263cm로 귀부 46×96×116cm, 비신 164×70×21cm, 이수 53×76×28cm이다.

제2절 남한산성

1. 삼국 · 고려시대의 남한산성

백제의 도성은 시기에 따라 한성과 웅진성, 사비성으로 옮겨 갔다. 그중 한성은 온조왕이 위례성에 도읍한 기원전 18년부터 문주왕이 웅진(공주)으로 천도하는 475년(백제 문주왕 1)까지 약 500여 년 동안 백제의 도성이었다. 도성의 위치로는 임진강 유역, 삼각산 동록, 장안평 일대, 하남시 춘궁동, 그리고 풍납토성, 몽촌토성, 남한산성 등 다양한 지역이 제시되었다. 특히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한산의 위치를 남한산성으로 비정하였다. 이러한 견해의 배경에는 남한산이라는 명칭의 의미와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의 배후에 있는 산성이므로 유사시 피란성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상황적인 논리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산성에서 발굴

된 백제건물지를 보면, 행궁 터를 중심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백제 주거지 2개소와 저장용 구덩이 8개소가 확인되었으며, 호와 시루·발·직구단경호·완 등 다양한 백제 토기가 출토되었다. 하지만 남한산성에서 출토된 백제 유구와 유물들은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유물과 비교할 때 질적으로 매우 소박하고, 양적으로 소량으로 백제의 도성 관련 유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남한산성은 언제 처음 쌓았을까? 『삼국사기』에는 1,300여 년 전인 672년(신라 문무왕 12) 신라가 처음으로 성을 쌓았으며, 이름은 주장성(塲長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의 둘레는 3,460보였는데, 즉 8km에 달하게 되므로 당시 신라가 쌓은 전국 최대 규모의 석축산성이었다. 그렇다면 신라는 맨몸으로 올라가기도 힘든 해발 500m의 높은 산 위에다 왜 대규모 성곽을 쌓았을까? 당시에 이미 주장성에서 북쪽으로 5km 지점에 한산주의 치소성이며, 한성·남한성으로 불리던 이성산성이 있었다. 한산주는 경기도 전역과 충청북도의 일부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지역이었다. 고대국가에서 산성은 관할지역의 군사와 행정중심지 기능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한산주의 치소성이었던 이성산성에서 가까운 곳에 행정중심지의 기능을 하는 성곽을 별도로 쌓는 것은 불필요하였을 것이다. 또한 주장성의 축성 시점인 672년은 신라가 이미 당의 힘을 빌려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고,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해당된다.

둘레 8km의 석축산성인 주장성을 쌓는 데는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주장성을 쌓는 일은 그야말로 신라의 국운을 건 대 토목공사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라가 이렇게 무리하게 주장성을 쌓은 이유는 당과의 전쟁에 대비하고자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걸고 주장성을 쌓았다고 볼 수 있다. 이곳은 수십만이 에워싸고 공격하더라도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하늘이 내린 전략적 요충지였다. 성 내에는 대규모 창고를



남한산성 북벽 내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 성벽

만들어 수만 석의 군량미를 비축해 두었다. 난공불락의 산성을 만들고 적이 우세할 때는 산성으로 피하였다가 적이 지치면 공격하고, 적이 우회하여 지나가면 적의 보급로를 차단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군사력이 우수한 당이라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2004년 4월 남한산성 행궁지에 대한 6차 발굴 조사에서 행궁 하궐지 앞마당에서 크기 50cm가 넘는 대형 기와들이 무더기로 출토되기 시작했다. 통일신라시대의 대형 건물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건물지는 길이가 53.5m, 너비가 18m에 달하는 규모로 지금까지 산성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 중 최대 규모임이 확인되었다. 건물지 주변에 많은 양의 기와들이 켜켜이 쌓여 있고 솥과 불에 탄 흙이 덮여 있었다. 뒤쪽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사방으로 회랑칸을 두어 비를 피할 수 있게 만든 구조였으며, 벽체의 두께가 무려 2m나 되는 건물이었다. 용도는 군수물자를 저장하였던 대형 창고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고려시대의 남한산성은 광주부사를 지낸 이세화李世華의 묘지명에 1232년(고종 19) 2차 침입 때에 살레탐이 이끄는 몽골군의 주력부대가 광주성을 공격해 왔으나 이세화가 물리쳤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에는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 10만이 침입하여 개경을 함락시켜 공민왕이 안동으로 파천하는 상황 속에서 광주에 수레가 머물렀을 때 이곳 아전들과 백성들이 모두 산성으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광주성이 남한산성이라는 분명한 언급은 없지만, 광주성은 광주 읍치에서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로 주민들이 들어가 방어하기 유리한 산성이었으므로 광주성을 남한산성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을 듯하다.

2. 조선시대의 남한산성

전략 거점으로 남한산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태종대부터이다. 서남해안에 왜구가 창궐하고 여진족의 변경 침략으로 국경 및 진보 방어를 위해 읍성과 산성 방어체계의 수립과 대책이 필요했다.⁷⁾ 하지만 본격적으로 남한산성의 수축 문제가 제기된 것은 1401년(태종 1) 요동을 다녀온 이자영李子英의 정세보고가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처음으로 일장성, 즉 남한산성 수축의 가부를 살펴보도록 지시함으로써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르게 되었다.

7) 조병로, 『남한산성이 우리역사에서 갖는 의미와 가치』,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 재조명 공개세미나 자료집』, 경기개발연구원, 2008, 17쪽.

하지만 당장 본격적인 수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태종대부터 세종대까지 남한산성이 수축되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당시 수축이나 수리는 안 했어도 군사기지로 중요하게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⁸⁾ 이렇듯 조선 초기에는 주변 정세, 즉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수축 문제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적극적인 수축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격적으로 남한산성 수축 문제가 다시 주목 받기 시작 한 것은 임진왜란 직후였다. 전란으로 도성이 쉽게 함락되자 전략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성 수축과 방어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593년(선조 26) 파죽지세로 쳐들어 온 왜구로 인하여 도성을 포기하고 의주로 피난가지 않을 수 없었던 선조는 명 군대의 도움으로 환도하여 도성 방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유성룡(柳成龍)은 광주·이천 등의 군사를 모아서 남한산성을 먼저 방어할 것을 주장했다.⁹⁾ 이때에도 수축보다는 방어책에 무게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유는 수축공사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여 많은 공역이 소요되는데 전란 중에 있어 쉽게 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남한산성 수축 문제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603년 2월이다. 남한산성은 자연적 조건으로 보면 천험의 요새이며, 지리적 위치가 한양에 인접해 있고 한양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을 지킨다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왕도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단순히 여러 주요 산성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유사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왕과 수도를 지켜주는 ‘보장지처(保障之處)’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조는 비변사로 하여금 남한산성 수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였다. 남한산성을 재차 살펴보고 돌아온 행 부호군 이기빈(李箕賓)이 보고하기를,

신이 남한산성에 가서 형세를 살펴보니 진세(陣勢)가 곧아 천험의 요새였습니다. 서북쪽에 봉우리가 있고 동남쪽은 확 트였는데 시내와 우물이 있고 또 논도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산기슭이 서로 가로막혀 있었으며 성 바깥은 한두 봉우리가 서로 마주하고 있었으나 굽어보거나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북문에서 동쪽으로 수구(水口)에 이르기까지와 서쪽으로 남문에 이르기까지 지세가 성 가운데서 가장 험하였는데, 그 사이에는 포루(砲樓)를 설치할 만한 곳도 있었습니다.¹⁰⁾

라고 하였다. 그러나 남한산성의 형세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평가를 내렸지만, 성의 둘레가 매우 길고 산세가 험한 관계로 수축에 많은 공역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신증론이 우세

8) 광주시, 『남한산성』, 2002, 23~24쪽.

9) 조병로, 「후금의 침략에 대비하여 새로 쌓은 남한산성」, 『금과 역사가 살아있는 남한산성』, 경기농림진흥재단, 2008, 41~43쪽.

10) 『선조실록』 권159, 선조 36년 2월 27일 갑인.

하여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그 후 광해군이 즉위한 이래로도 수축 문제는 그대로 방치된 채 10년이나 지나갔다. 그러던 중에 1621년(광해군 13)에 작은 규모의 수축 공사가 이루어졌다.¹¹⁾ 본격적인 수축은 인조대부터 이루어졌다. 1623년(인조 1) 서인을 앞세워 광해군 및 집권당인 대북파를 몰아내고 능양군綾陽君 종ㄹ을 왕으로 옹위한 이른바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집권한 인조가 초기에 남한산성을 적극 수축하고자 한 것에는 안으로 국왕과 도성을 방어하고, 밖으로는 유사시 왕실의 피난처로 삼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1624년 수축 논의가 한참 진행되던 중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서 수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임희가 경안역에서 피살되면서 수축 문제가 물거품이 되었고, 인조는 공주로 파천播遷하는 수모를 겪었다. 인조는 치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수도에서 가까운 남한산성의 수축을 더욱 촉구하게 되었다. 이괄의 난을 계기로 산성 수축이 국가 안보상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여러 찬반 논쟁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축성군 동원 문제와 군량미 확보 문제 등 많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1626년 11월 만 2년 4개월 만에 드디어 완성되었다.¹²⁾

3. 남한산성 성곽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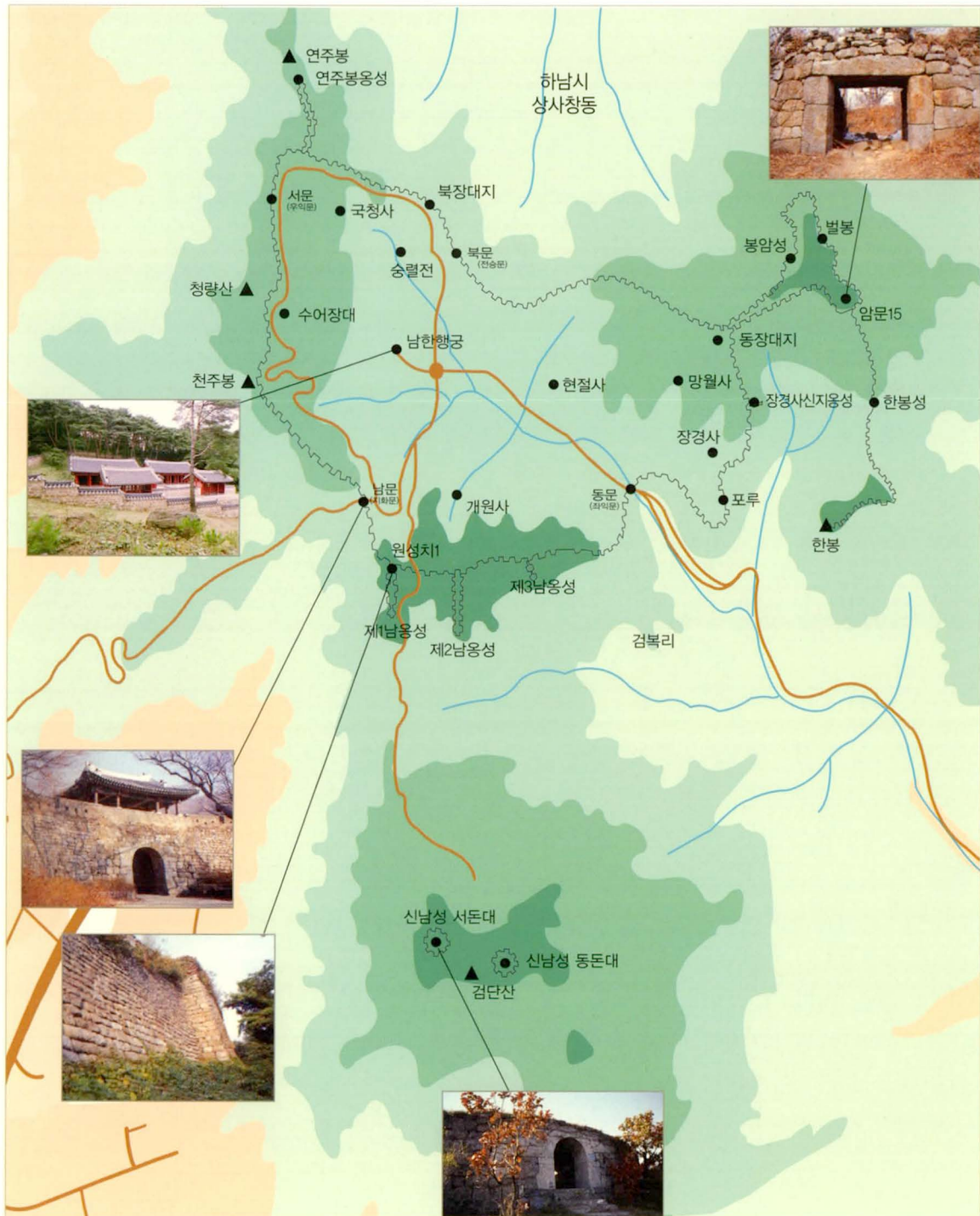
남한산성의 원성은 신라 주장성의 성돌을 활용하여 구축되었고, 외성은 원성과 시차를 두고 구축됨으로써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 시기의 축성 기법을 특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여지도서』에는 ‘천작지성天作之城’이라 하여, “가운데는 평평하고 바깥은 험고하며 형세가 웅장하여 마치 산꼭대기에 관을 쓴 것 같은 형상”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또한 『택리지』에서도 “안쪽은 낮고 얇으나 바깥쪽은 높고 험하여서 청이 처음 왔을 때 병기라고는 날도 대지 못하였고, 병자호란 때도 성을 끝내 함락하지 못 하였다. 그런데 인조가 성에서 내려온 것은 다만 양식이 적고 강화가 함락된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해발 500m가 넘는 험준한 자연 지형을 따라 둘레 8km가 넘는 성벽을 구축하여 많은 병력으로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지리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남한산성의 내부는 넓고 평탄하며, 80여 군데가 넘는 우물과 45개의 연못이 있을 정도로 수원이 풍부하여 비축된 군량미만 충분하다면 수만 명의 병력도 수용이 가능할 정도였다.

구조적으로도 남한산성은 조선시대의 성곽이 갖추어야 할 구비시설을 대부분 갖추고 있

11) 이현희, 『남한산성의 축성』, 『동국사학』 제33집, 동국사학회, 1999, 72~73쪽.

12) 이현희, 『남한산성의 축성』, 『동국사학』 제33집, 동국사학회, 1999, 75~76쪽.



남한산성 주요 시설 분포도

다. 원성 외에 봉암성과 한봉성 등 2개의 외성을 갖추고 있으며, 남쪽에는 2개의 돈대가 있다. 원성에는 5개의 옹성이 있으며, 20여 개의 포루를 설치하여 화포 공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벽에는 4대문 외에 16개의 암문이 있으며, 성벽 위에는 원총안과 근총안이 설치된 1,940여 개의 타로 구성된 여장이 있다. 성벽 안쪽에는 125개에 달하는 군포가 구축되어 있었으며, 군포와 군포 사이에는 90여 군데의 소금을 묻어 둔 매염처와 숯을 묻어 둔 매탄처가 있었고, 성 내에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충분한 식량과 군수물자가 보관되어 있었다.

1894년에 산성승변제도가 폐지되고, 일본군에 의하여 화약과 무기가 많다는 이유로 1907년 8월 초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그 이후 주인을 잃은 민족의 문화유산들은 돌보는 사람 없이 방치되다가 하나 둘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고 말았다. 그렇지만 남한산성 주변에는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아직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그 중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것에서부터 터만 남아있거나 문헌상으로 확인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문화유산의 보물 창고라 할 수 있다.

성곽의 규모를 보면, 『남한지』에서는 원성 성벽의 안 둘레는 6,290보로 17리 반이고, 바깥 둘레는 7,295보로 20리 95보이며, 성가퀴는 1,940타, 5옹성과 16개의 암문, 125군데의 군포, 4군데의 장대가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둘레를 환산하면, 한 자의 길이가 20cm인 주척으로 안 둘레는 8,114m이고, 바깥 둘레는 9,411m 정도이다.

성벽의 둘레를 측량하는 방법에는 성벽 외곽 기단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여장 안쪽 기저부를 중심으로 하는 것, 그리고 여장의 옥개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 등 세 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보편적이고 무난한 기준이 여장의 옥개중심선을 따라 측정하는 방법이다. 여장 옥개중심

남한산성 규모

단위 : m · m²

명칭	길이	면적	비고
원성	7,545	2,126,637	1624년 수축, 1638 · 1779년 증개축.
제1남옹성	426	2,381	1638년 추정.
제2남옹성	318	3,583	
제3남옹성	125	839	
장경사신지옹성	159	1,447	
연주봉옹성	315	865	1624년 원성 수축 때 축성.
봉암성	2,120	7,137	1686년 신축, 1705년 포루 증축.
한봉성	1,093		1693년 신축.
신남성 1돈대	134	1,381	1719년 신남성 신축, 1753년 신남성에 2개의 돈대 구축.
신남성 2돈대	121	998	
합계	12,356	2,145,268	

선을 따라 측량을 실시한 결과 외성과 웅성을 제외한 원성의 규모는 둘레가 7,545m이고 성 내부의 면적은 212만 6,637㎡이다. 부속 시설을 포함한 성벽의 전체 규모는 1만 2,356m에 달한다.

4. 한말 남한산성과 연합 의병부대

개항 이후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남한산성을 끼고 있는 산성리 마을은 민족 투쟁 거점이 되었다. 1895년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고, 그 후 개화정부가 단발령을 실시하자 전국적으로 의병항쟁이 일어났다.

1896년 봉기한 경기의병의 투쟁 거점은 남한산성이었다. 남한산성 의병은 경기도 이천에서 결성된 의병부대가 모태가 되었다. 이천 의병의 핵심이었던 김하락은 1896년 2월 25일 이천에서 광주·양근 등지의 의병부대를 결집하여 2,000여 명에 달하는 남한산성 의병부대를 편성하였다. 남한산성 의병부대는 남한산성 수비대를 물리치고 2월 28일 남한산성을 완전히 점거하였다. 산성리 마을은 다시 한 번 우리 역사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

남한산성을 점거한 의병진은 광주·이천·양근 의병부대로 구성된 연합의병부대로 1,600여 명에 달하였다. 산성리 마을에는 곡식·식염 등 식량이 충분하였으며, 각종 대포·조총·탄환·철환도 충분히 비축되어 있었다. 연합의병부대는 천혜의 요새지 남한산성을 장악한데다가, 풍부한 군수품을 확보하였기에 사기가 매우 높았다.¹³⁾ 한편 일본군은 이 같은 사실에 큰 위협을 느꼈다. 일본은 고종을 위협하여 남한산성에 있는 의병을 공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에 굴복하여 관군이 남한산성에 출동, 사방을 포위하였고, 3월 5일 첫 전투가 벌어졌으나, 의병부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후 남한산성 연합의병부대는 서울 진공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진공계획은 1단계로 수원 근방의 의병진들이 연합하여 수원을 점령하고, 2단계로 남한산성 연합의병부대와 춘천·분원·공주·청주·수원 의병부대 등이 남한산성 주변에 주둔한 관군과 일본군을 협공하여 격파하고, 3단계로 삼남지방의 의병과 합세하여 서울로 진격한 후, 일본군을 제압하고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궁시키는 것이었다. 마침 춘천의병 1,200명이 양근에 도착하였는데, 그중 200여 명이 한강 상류를 건너 광주에 합류하였다. 이처럼 남한산성 연합의병부대는 우세한 형세 속에 서울진공작전을 착착 진행해 나갔다.

13) 김하락, 「김하락진중일기」, 『독립운동사 자료집』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591쪽.

그러던 중 3월 22일 남한산성 연합의병부대는 급격히 붕괴하고 말았다. 시일이 경과하면서 산성 내에 쌓여 있던 식량이 점차 바닥을 드러내면서 의병들이 동요를 일으켰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군의 남한산성 식량보급로 봉쇄는 의병부대에 큰 타격이 되었던 것이다. 의병부대 지휘부는 분열되었다. 계속적인 항전을 주장하는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의견이 나누어지는 분열상이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관군은 체포하여 회유된 김귀성을 통해 남한산성 서쪽 성벽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군이 이곳을 통해 남한산성 내로 진격하여 치열한 교전 끝에 의병부대는 붕괴되었다. 남한산성의 함락으로 인해 서울진공작전은 무산되었고, 의병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일본은 남한산성이 연합의병부대의 서울 공격 거점이 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산성리 마을과 남한산성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한 산성리 마을에 보관되어 있는 무기와 탄약이 의병부대 손에 들어가기 전에 회수하거나 폭파시키고자 하였다.

5. 새로 태어나는 남한산성 산성리 마을

6·25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 5월 10일 남한산성은 한국에서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한궁 터에는 남한산성과 관련된 문화유산과 물산을 전시하는 경기도 물산 진열관이 지어졌다.¹⁴⁾ 산성리 주민들은 이 진열관이 장차 남한산성 공원박물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에 박물관이라 불렀다. 1954년에는 늘어나는 관광객을 위해 서울에서 출발하는 관광버스가 증편 운행되었다. 남한산성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산성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성남 북정에서 남한산성 남문에 이르는 비포장도로가 폭 4m 내외에 총연장이 5.5km인 도로로 확장 개통되었고 이승만의 호를 따서 우남로로 명명되었다. 도로의 확장으로 남한산성에서 성남으로 이어지는 교통이 편리해졌다.

4·19혁명 후 국립공원 지정이 취소되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지 40일 만인 6월 26일 5·16군사혁명기념탑이 남한산성 중턱에 건립되었고, 남한산성 밖에 있는 육군형무소가 건립되었다. 1971년 3월 17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도로 체계가 개선되고 문화재 보수 및 복원작업이 이루어졌다. 남한산성을 외부와 연결시켜 주는 2개의 도로인 산성 동문-광지원 간, 산성 남문-성남 간 도로가 포장되었다. 1976년 문화재를 보호하고 공원의 시

14) 광주문화사업회 설립준비위원회, 『백제수도 남한비사』, 1956, 101쪽.



남한행궁 복원 정비사업 조감도

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남한산성관리사무소가 개소되었다.

1980년대 초에는 정부에서 산성리 마을 내 주민의 주택과 무허가 음식점들이 남한산성 경관을 해친다며, 주민들을 모두 산성 밖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추진하였지만 주민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1980년대 들어 국민들의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자가용이 보급되면서 남한산성 방문객이 크게 늘어났다. 이 시기 방문객들은 이전 방문객들과 달리 남한산성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1980년 산성 내에 산성호텔이 들어섰고, 음식점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전부터 산성 내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음식점이 있었고, 포장마차도 여럿 있었지만 1984년까지 허가받은 음식점은 10개소 미만이었다. 1985년부터 광주군청이 음식점을 허가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음식점이 늘어나 2008년 기준으로 78개소가 되었다. 이처럼 남한산성에 관광객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주민의 생활이 점차 개선되자, 산성 안에도 여러 공공기관이 들어섰다. 새마을금고가 1987년에, 산성보건진료소는 1995년에, 중부농업협동조합 산성리분소가 1997년에 각각 개소되었다. 1999년 1월에는 산성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남한산성하수처리장이 가동되었다.

경기도는 남한산성을 역사주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경원대학교 차세대디자인 정보센터에서 '남한산성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였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민간자본 197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16억 원을 투입하여 성곽을 보수 복원하고, 산성 내부를 행궁권역·연무관

권역 등 여러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유적을 복원하며, 병자호란 출정식 등 교육·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과 옛길을 복원해서 마을 경관을 조선시대 역사 마을로 조성하고 이미지를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이 계획에 따라 2002년에 남한행궁 상궐을, 2004년에 좌전을 복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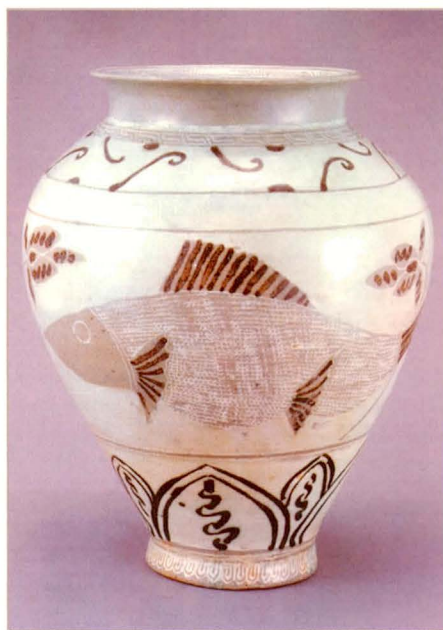
2000년부터 2007년까지 2,024m의 성곽을 보수 복원하였다. 행궁 하궐도 복원하고, 행궁 입구부터 산성로터리까지 행궁권역의 공원화 계획도 추진하였으며, 행궁권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식당은 남한산성 내 한옥단지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한편 2007년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은 경기농림진흥재단이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제3절 왕실도자기

1. 분청의 시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는 백자와 분청이다. 처음에는 고려청자를 계승한 분청이 중심을 차지하고, 한편에서 새로운 백자가 특별히 제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15세기 후반 국가에서 직영하는 중앙 관요官窯를 광주에 설치하고 백자 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부터 백자는 조선 최고의 품질과 생산량을 갖는 도자기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 결과 분청은 백자 확대에 반비례하여 빠른 속도로 쇠퇴하게 된 것이다.

전 지역에서 볼 때 분청과 백자는 조선 전기 약 150년간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었으나, 광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백자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분청 생산은 빠르게 감소하였다. 물론 분청이라고 부르는 특징적인 도자기가 조



분청사기철화어문호(15~16세기, 호암미술관 소장)

선의 시작과 함께 갑자기 탄생한 것은 아니다. 분청은 고려 후기 상감청자의 기술적 조형적 진통을 계승하고 조선의 감각에 맞게 재구성된 것으로, 고려 상감청자의 조선적 변형인 것이다.

여말·선초까지 청자는 전반적으로 조질화粗質化되고 유태의 색은 짙은 암갈색으로 변하며 문양은 간략해지거나 밀도가 낮아지는 등 질적 수준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청자의 조형은 경향을 보면, 하나는 유태의 질이 퇴보하면서 오히려 복잡하고 다양한 장식을 새겨 넣어 내면의 질적 결함을 외면 장식으로 보충하려는 경향이다. 주변 문양대가 넓어지고 다시 이것을 세분하여 전체를 복잡하고 꼭 차게 상감문양을 넣음으로써 외관을 복잡하게 장식하는 경향이다. 다른 하나는 문양 요소들을 한 개의 단위로 만든 작은 도장을 마치 연속문양처럼 반복적으로 찍어서 규격화한 것인데, 상감청자의 질이 떨어지고 창조적 역량이 쇠진하자 그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탐색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조선의 개혁적 정책에 따라 사회제도가 안정되고 문물이 정비되면서 도자기의 품질도 상승기류를 타서 짧은 기간 안에 빠른 발전을 할 수 있었다. 14세기 말에 최악의 상태로 떨어졌던 상감청자는 1420년대에는 기존의 장식기법을 응용하고 재질과 조형을 새롭게 변모시켜 획기적인 발전을 하는데, 바로 이것을 고려 상감청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별도로 분청粉靑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다.

상감청자에서 분청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한 후, 다시 분청이 소멸할 때까지 150년간은 분청의 시대이다. 백자를 전문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사옹원 분원 관요의 설치시기를 기준으로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전기는 박지·조화분청의 성행기, 후기는 철화분청으로 바뀌면서 문양이 없어지고 백토분장만 남아 소멸하는 단계이다. 분원 백자가마 설치 이전까지 중앙관청에서 필요한 도자기는 전국 각지에 분포하는 분청가마로부터 엄격한 생산관리를 통해 제작한 인화분청을 공물貢物로 받아 사용해 왔다. 이때의 분청은 질이 뛰어나고 꼼꼼한 솜씨로 정교하게 만들어 높은 품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제작되고 있던 상감분청이나 박지剥地·조화彫花분청도 어느 정도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공납용 인화분청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속적인 관리 아래 품질 향상과 규격 통일을 이루었으며, 고급 인화분청에는 관청 명칭을 새기거나 제작자의 이름을 새긴 것이 많이 남아 있다.

후기는 분청의 소멸기이다. 꼼꼼하고 정교하게 만든 고급 분청의 소비자가 새로운 분원백자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고급 소비자가 없어지면 당연히 고급품 생산은 중단된다. 인화분청은 도장을 성글고 적당히 찍게 되고 유태의 질이 떨어지면서 조잡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앙 관청의 감독도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중앙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던 제작체제에서 각 지방의 수요와 취향에 맞추어 제작하는 자유로운 체제로 전환되었다.

2. 백자의 시대

일반적으로 고려는 ‘청자’, 조선은 ‘백자’라고 말한다. 백자도 9~10세기부터 청자의 주변에서 일부 제작되었다. 즉 고려시대에도 청자와 함께 백자, 흑자를 같이 만들고 썼던 것이다. 세계 자기문화를 이끌던 중국이 청자에서 백자로 전환된 시점은 14세기였다. 당시 청자의 대표 격인 용천요龍泉窯가 조금씩 위축되면서 경덕진요慶德鎮窯에서 새로 개발한 경질백자의 점유율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 자기문화의 중심이 청자에서 백자로 전환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조선 초기인 15세기에 들어서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백자는 청자보다 고온에서 구워낸 강도와 탄성이 높은 완전한 자기질磁器質 경질백자로서 유약과 태토를 포함한 재질이 경덕진요의 경질백자와 같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사실 청자에서 백자로의 전환은 더 순수한 재료, 더 높은 기술, 더 견고하고 청결하며 실용적인 도자를 만들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다. 분청은 청자의 기술과 조형적 전통을 계승한 보편적인 자기이며, 백자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차원의 특화된 자기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분청이 중앙관청과 사회지도층의 자기면, 백자는 왕실의 중심에 있는 자기라고 할 수 있다.

백자가 중심으로 등장하는 15세기는 고려 멸망 이후 새로운 조선이 강력한 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때였다. 고려의 전통을 계승한 상감청자와 신흥 조선의 분청, 그리고 재질과 형태를 완전히 쇄신한 새로운 백자가 서로 어울려 왕성하게 제작되었다. 그리고 결국 15세기를 지나면서 조선사회는 백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15세기 후반부터 분청이 빠르게 쇠퇴하는 한편, 백자는 최고의 품질과 최고 생산량을 갖는 조선의 절대적인 자기로 독보적인 위치를 갖게 된다. 즉 완전한 백자시대로 접어들었다. 조선의 백자문화는 왕실의 중심인 높은 곳에서 시작하여 점차 아래로 확산되어 갔다. 고려시대부터 청자 주변에서 명맥을 이어 온 연질백자 계통은 14세기와 15세기 초까지도 일부 지방에서 제작되고 있었으나, 중국식 경질백



광주 관요에서 제작한 청화백자운룡문병(15세기, 호암미술관 소장)

자 기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고급백자가 15세기 초기부터 광주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1425년(세종 7)에 조선에 온 명의 사신 윤봉尹鳳이 황제에게 보낼 많은 양의 백자를 요구하자 광주에서 정성으로 만들어 보낸 것에서 조선의 기술이 중국 황실용 백자에 뒤지지 않을 만큼 높은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고급백자 기술은 광주에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광주·고령·남원 등지에서 공납한 고급백자는 궁궐 및 궁중의 행사, 하사품 및 외국사신의 영접 등에 폭 넓게 쓰이면서 점차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각 지방에서 백자를 생산하고 공납 받는 방식에 조선 정부는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 결국 1460년대 후반 정부는 백자의 생산과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고급백자 생산지로 알려진 광주지역에 직접 투자를 하고 생산 관리를 담당하는 사옹원 분원 백자변조소를 설치하였다.

3. 사옹원 분원

우리나라는 화성암 지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좋은 고령토가 풍부하며 또한 인구가 일정하게 분포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도자기 생산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고려 후기 14세기경 전국 20여 개 지역에 청자가마가 확산되어 있었으며, 조선 전기에 이르면 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가마수는 200여 개소에 이르게 되었다.

조선 초기 도자기 가마 현황을 기록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자기소磁器所 139곳과 도기·옹기를 만드는 도기소陶器所 185곳의 지명과 품질 등급이 기록되어 있다. 자기소 대부분은 분청을 만들어 일정량을 중앙과 지방관청에 바치고, 광주·고령·남원 등지에서만 특별히 백자를 만들어 우수한 상품백자를 왕실에 진상하였다. 그런데 백자의 정신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면서 세종이 백자를 어기御器로 택하고, 왕실 및 국가의 공식적 의례와 행사에도 백자를 쓰도록 정하게 되었다. 즉 우수한 품질과 정해진 규범에 맞는 일정한 수준의 고급백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전문제작소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왕실과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관요인 사옹원 분원이 광주 일대에 설치된 때는 1467~1468년경으로 추정된다. 관요 설치 이후 전국의 가마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다. 국내 최대 최고급 소비자인 왕실과 중앙관청이 분원에서 제작한 백자로 자급자족하게 되자, 그때까지 관청에 바칠 고급 분청을 만들던 전국 각지의 가마에서 더 이상 고급품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전국의 유능한 사기장들과 우수한 원료는 광주로 집결되어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경기도 광주목 토산조의 사용원에 관한 기록

체제로 바뀌었다. 고급 소비자는 분원백자, 전국 각 지방의 가마의 분청은 지방 소비로 이원화된 것이다. 이때부터 분원 중앙가마와 전국 각지의 지방가마가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최대 소비처인 왕실과 중앙정부는 분원 관요백자의 제작과 소비의 주체가 되어 분원은 말 그대로 조선 최대 규모의 유일한 관요로 1883년까지 운영되었다.

4. 시기별 분원백자의 특징

1) 조선 초기

관요 설치 이전을 보면, 우산리 2호 가마터에서는 총 1,1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백자 발 684점, 접시 280점, 잔 103점 등을 중심으로 호·병·제기도 소수 발견되었다. 양질인 설백자雪白磁는 5점뿐이고, 조질의 회청색灰青色이 대부분이다. 이 중 궁중용을 의미하는 '內

用' 명문이 새겨진 발과 접시 파편이 소수 있으며, 1440년대 운영되었다.

건업리 2호에서는 1,030점 중에 백자가 1,019점(순백자 1,016점, 상감백자 3점)으로 압도적이며, 청자도 11점 발견되었다. 발·접시·잔·마상배·대발·병·호·뚜껑을 만들었으며, 이 중 발·접시·잔 등 반상용기가 대부분이다. 백자는 잡티가 섞인 태토에 밝은 회청색(47%), 회록색(29%), 황록색(24%) 유약을 얇게 씌워 만들었다. 굽바닥에 태토빚음을 받친 후 그릇을 포개어 구웠고, 원주형과 원반형 받침도 사용했지만 폐자기(廢磁器) 파편을 요도구로 쓰기도 했다.¹⁵⁾ 건업리 2호는 1440~1450년대 생활자기를 일정 공납한 민요이다.

우산리 17호에서는 1,592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상감백자 100점을 제외하고 1,492점이 순백자이며 발·접시·잔·잔받침·마상배·병·항아리·대반 등 다양하다. 요도구로 원주형과 원반형 받침을 비롯해 폐자기도 재활용했다. 백자는 조질로 회청색(49%)이 주류이며 회록색(39%)과 황록색(12%)도 보인다. 1450~1460년대에 운영되었다.

관요 설치 이후를 보면, 도마리 1호에서는 순백자·청화백자·상감백자·순청자·상감청자·중국자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종류는 발·접시·잔·잔받침·뚜껑·합·마상배·병·호·반·장군·향로·제기 등 이전의 민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발과 접시 굽바닥에 '天地玄黃' 명문이 새긴 파편이 161점 출토되었다. 잔·화형잔·육각잔·합·연적·호·세반·뚜껑·편병·장군 등 새로운 종류를 비롯해 양이잔·잔받침과 같이 금속기를 모본으로 제작되었다.¹⁶⁾ 1505년에 운영되었다.

우산리 9호는 순백자와 소수의 청화백자·청자·중국자기편 등이 출토되었는데 발·접시·잔·잔받침·뚜껑·합·마상배·병·편병·호·반·장군·향로·제기 등 다양하다. 1542년 전으로 운영되었다.

번천리 5호에서는 1만여 점의 유물이 발굴되었으며, 발·접시·잔·잔받침·호·병·합·장군·제기·묘지석 등 종류도 다양하다. 대접과 접시 2,000여 점 중에 800점은 죽절굽에 태토빚음을 사용했고, 다른 1,200점은 역삼각형굽에 모래를 받침재료로 제작했다.¹⁷⁾ 질이 좋은 역삼각형굽 백자가 만들어졌지만 특이하게 갑발 파편은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 1554년 전후로 운영되었다.

번천리 9호에서는 순백자와 소수의 청화백자·상감백자·청자·갑발 및 갑발 뚜껑 등 각종 요도구가 출토되었다.¹⁸⁾ 발·접시·잔·병·편병·호·합·뚜껑·향로·마상배·벼루·반·

15) 해강도자미술관, 『광주 건업리 조선백자요지: 건업리 2호 가마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000, 58쪽.

16) 전승창, 『조선전기의 백자 접접시 고찰』, 『호암미술관연구논문집』 2호, 삼성문화재단, 1997, 100~132쪽.

17)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서』, 1986, 53쪽.

18)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도요지 발굴성과 20년』, 2001, 16쪽.

연적·제기 등이며, 출토품 중에 외반접시·잔받침·제기·저부가 둥근합·벼루 등은 새로운 기형이다. 1552~1554년 전후로 운영되었다.

광주 가마터에서는 상감 장식이 있는 백자 파편도 발견되는데 유물은 모두 조질백자로 연회색 또는 진회색을 띠거나 담청색을 보이는 것도 많다. 파편이 발견된 가마터는 거의 모두 죽절굽에 태토빚음받침의 백자를 제작했던 것으로 양질의 왕실용 백자와는 질, 유색, 세부 형태,



백자철화매죽문발(16세기,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크기 등에 차이가 있다. 상감백자는 민요에서부터 만들어졌으며, 관요에서는 조질백자를 제작하던 상변요常燔窯에서 주로 제작되었다. 특히, 상감백자의 형태와 소재, 장식기법 등에는 분청사기의 영향이 일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¹⁹⁾ 상감 장식에는 분청사기의 영향도 보이지만 청화백자의 특징도 일부 있다고 볼 수 있다.²⁰⁾

청화 장식의 영향이 상감백자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15~16세기 철화 장식이 있는 백자에도 그 특징이 나타난다. 철화백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식이 <백자철화매죽문발>과 같이 매화와 대나무인데, 소재와 구성 모두 청화 장식과 거의 동일하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마터가 몇 곳에 지나지 않고 유물도 소수에 불과한 점, 유물의 형태와 질·굽·받침, 그리고 장식소재나 구성이 관요에서 제작된 순백자 혹은 청화백자와 동일한 점, 당시 청화백자가 활발히 제작되었고 수요자 역시 청화백자를 선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철화백자는 청화 안료의 부족 등으로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5~16세기 백자의 장식은 두 개의 커다란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가 상감장식으로, 상감백자는 관요설치 이전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전통적인 특징을 보이는 상감장식을 위주로 청화장식의 요소도 새롭게 차용하면서 16세기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축이다. 다른 하나는 청화장식이다. 관요설치 이후 본격적으로 화원의 그림이 장식되기 시작하여 16세기 말까지 계속되었으며, 소재와 구성·표현방법 등이 화풍에 따라 변화되거나 새로워졌다.

19) 강경숙, 「분원성립에 따른 분청사기 편년 및 청화백자 개시문제 시론」, 『한국사학논총』 하, 일조각, 1993, 1489쪽.

20)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광주조선백자요지발굴조사보고서-광주 변천리9호 조선백자요지』, 2007, 228쪽.

2) 조선 중기

17세기 전반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분원백자 제작에도 곤란을 겪었다. 일반적으로 왕실의 태지나 묘지는 사후에 특별히 주문제작했던 관례에 미루어 생각해보면 이미 만들어진 그릇을 다시 묘지로 활용하고 있는 17세기 전반에는 분원의 백자생산이 그리 원활치 못했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접시들은 굽 안바닥에 유면을 음각하여 ‘左·右’ 또는 숫자 등과 함께 ‘간지’를 새겨 넣었는데, 분원의 백자 공급이 곤란했던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탄벌리·학동리·상림리·선동리·송정동·유사리·신대리 등지의 분원 가마터에서 발견된 이 간지들은 모두 17세기의 것으로 밝혀졌으며, 순서에 따라서 분원가마를 편년하고 이동경로를 밝히는데 큰 도움을 준다.²¹⁾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전반에 운영된 궁평리·오향리·금사리 가마터에서는 ‘𪛗’, ‘𪛖’, ‘𪛗’, ‘𪛖’ 등의 유면음각명이 발견되어 간지를 비롯한 이러한 기호와 숫자는 중기 분원백자의 큰 특징을 이루고 있다.



백자철화운룡문항아리(17세기 전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중기 분원 가마터에서는 전기 분원과 크고 작은 차이를 지닌 백자가 출토되는데, 특히 조질백자에서 내저원각이 없는 발·접시 등 그릇의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접지면에 굽은 모래를 받쳐 여러 점을 포개굽는 새로운 방법이 나타난다.

17세기 초 탄벌리·학동리 가마터에서는 예리한 역삼각형굽에 고운모래를 바르고 구운 양질백자와 거칠게 깎은 역삼각형 또는 오목굽의 조질백자가 공존하는데, 조질백자는 대부분 거친 모래와 잡토를 섞어 빚은 모래빚음을 몇개씩 받쳐 포개구웠다. 또한 전기에 널리 사용된 태토빚음이 남아 있으며, 특히 탄벌리에서는 태토빚음의 접지면에 다시 모래를 묻힌 독특한 받침이 있는데, 이러한 받침법은 모래빚음과 함께 전기 태토빚음받침에서 선동리의 모래받침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추정된다.²²⁾

21) 정양모, 「경기도 광주분원 요지에 대한 편년적 고찰」, 『한국백자도요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9~37쪽; 윤용이, 「조선 시대 분원의 성립과 변천연구」, 『고고미술』 149·151호, 1981, 22~45·46~59쪽.

22) 정양모, 「경기도 광주분원 요지에 대한 편년적 고찰」, 『한국백자도요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13쪽.

조선 중기 분원가마터와 출토 백자의 명문

가마터	편년	출토 명문
탄벌동	1606~1611	左右, 干支(丙午, 丁未, (戊)申, 乙酉, 庚戌, 辛亥)
학동리	1613~1617	左右, 干支(庚戌, 癸丑, (乙)酉, 丁巳)
상림리	1631~1636	左右, 干支(辛未, 癸酉, 甲戌, 乙亥, 丙(子)), 숫자, '別'
선동리	1640~1649	左右, 干支(庚辰, 辛巳, 壬午, 癸未, 甲申, 己酉, 丙戌, 丁亥, 己丑), 숫자
송정동	1649~1659	左右, 干支(己丑, 庚寅, 辛卯, 壬辰, 癸巳), 숫자
유사리	1660~1664	左右, 干支(庚(子), 辛丑, (壬)寅, 甲(辰), 乙巳, (丙)午), 숫자
신대리	1665~1676	左右, 干支(己(酉), 癸丑, 甲寅, (乙)酉, 丙(辰)), 숫자, '天'
지월리	1677~?	문헌에 의한 추정,
궁평리/관음리	추정	'甲(철화)', '別', '口', '二'
오항리	1717~1720	문헌에 의한 추정,
금사리	1721~1751	문헌에 의한 추정, '甲(철화)', '別', '十', '口', '二'

중기 분원가마의 조질백자에서 사용된 모래받침법은 포개구운 그릇의 안바닥에 거친 모래 자국이 남게 되므로 전기의 태토빚음받침법에 비해 질적으로 향상된 기술은 아니다. 결국 이러한 받침법의 변화는 다소 백자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백자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고자 했던 당시 분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³⁾

중기 분원의 생산효율은 굽받침법뿐만 아니라 가마의 구조를 비롯하여 원료의 선택, 형태를 빚고 유약을 바르는 등의 제작기술 전반의 변화에 의해 향상될 수 있었다. 특히 선동리 3호 가마에서 보이는 구조의 변화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개의 번조실이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은 전체가 길게 1개의 방으로 구성된 16세기 중반의 변천리 5호 가마와 구조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질백자에서 제작기법의 변화는 굽의 형태와 같은 기형에도 영향을 주지만 무엇보다도 분원백자에서 기형과 문양의 뚜렷한 형식변화는 주로 양질백자에서 발견된다. 기형은 중기에 세 가지의 변화가 나타난다. 첫째, 전기 형식의 전형화는 전기양식에서 후기양식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반상용기, 특히 발과 잔의 몸통이 높아지면서 배가 불러 곡선이 과장되고 내저원각의 지름이 굽지름보다 현저히 작아지는 점, 굽의 외측면이 살짝 안으로 경사지는 점 등이다. 둘째, 17세기 신형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달항아리와 같이 반구형의 사발 2개를 마주보고 접합시키는 성형기법의 등장이다. 이와 같은 성형기법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선동리 가마터에서부터 발견되었다. 성형한 항아리는 구연 부분을 칼

23) 장기훈, 「조선 17세기 전반 분원의 백자양식 변화」, 『미술사학연구』 224호, 1999, 89~121쪽.

로 깎아 만들기 때문에 직선적인 조형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중기 백자에 있어서 중국도자의 영향을 받은 형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한편 전란을 겪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해지고 명청교체의 혼란기를 맞아 중국으로부터 청화안료를 수입하기 어려웠던 17세기에는 분원 관요에서도 적극적으로 철화백자를 제작하게 되었다. 실제로 분원 가마터인 상림리·선동리·송정동·유사리·신대리 가마터에서는 다량의 철화백자가 발견되었다.

철화백자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게 된 이유는 청화백자의 대용품으로서 철화백자가 궁중의례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분원의 철화백자는 아직까지 그 사용자가 왕족이나 중앙의 관료였던 만큼 운룡·사군자·포도·학 등의 문양이 주로 표현되어 있다. 상림리·선동리·송정동의 이른 시기 가마터에서는 전기양식이 정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궁중의 화원이 그린 듯한 단정하고 세련된 화풍의 철화문양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17세기 후반의 유사리·신대리 가마터에서는 회백색의 바탕에 문양의 필치가 거칠어지고 표현이 간략하면서 자유분방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회백색 철화백자는 18세기 전반의 금사리 가마터에서도 청화백자와 함께 발견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17세기 후반부터 서서히 청화백자가 다시 제작되면서 철화백자의 지위가 다시 떨어지고, 상업경제의 성장과 함께 사번된 분원의 그릇을 부유한 양반·사대부들에게 유통시킨 거상들이 출현하면서 점차 철화백자의 수요층이 바뀌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분원에서 청화백자가 다시 본격화되는 시기는 영조연간으로서 금사리 가마터²⁴⁾에서는 설백색을 띠는 유면 위에 여백을 살려 청초한 풀꽃무늬를 시문한 청화백자가 다량 발견된다. 국력이 회복되고 청화원료의 수급이 원활해지는 18세기 전반, 분원의 청화백자는 원래의 자리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철화백자에 의해 확대된 분원백자의 수요자를 따라 일반에게까지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3)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분원이 안정됨에 따라서 백자 생산이 증가한다. 청화로 장식하고 갑발을 사용하여 번조한 고급백자가 널리 유행하였다. 분원리 가마에서 제작된 반상기들은 굵이 낮고 단정하며 몸체는 크고 완만한 곡선을 이룬 것이 많다. 또한 기벽이 두

24) 윤용이, 「조선 18세기 관요의 변천과 청화백자」, 『단호문화연구』 2호,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997, 9-20쪽.

꺼우면서 구연 부분이 수직으로 곧거나 안으로 내만한 것이 주류이다. 그 중 굽과 몸체의 외면을 7~10각으로 면취面取하여 만든 것들이 있는데, 이는 18세기 금사리부터 나타나는 기형의 특징으로 반상기는 물론 제기·병·항아리 등에서 다양하게 발견된다. 특히 분원리에서는 전기·중기와 달리 그릇의 품질이나 굽깎음, 시유법이 양질이나 조질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부분 양질품의 특징을 보이는 가운데 굽 받침에 있어서도 다소 굽고 검은 입자가 섞인 모래와 모래빔음을 받쳐 포개굽거나 갑발을 사용하여 굽는 경향을 보여준다.



백자청화운룡문항아리(18세기 후반, 경기도자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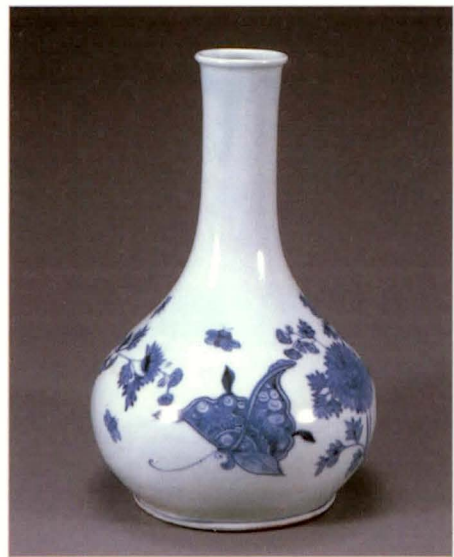
또한 후기에는 중기부터 널리 사용된 생산성이 높은 칸가마의 형태가 더욱 발달하고 모래받침법이 일반화되면서 백자의 단위생산량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출토된 백자는 낮은 수직굽에 굽 안바닥을 깊게 깎은 다음 가는 모래와 모래빔음을 받쳐 갑발에 넣어 구운 것과 내화토물에 굽을 담갔다가 굽은 모래를 발라 포개구운 것으로 구분되는데 유색은 설백색雪白色, 담청백색淡靑白色을 띤다. 기종으로는 발·완·잔·접시는 물론 타호唾壺·지통·연적·벼루·제기 등 다양한 종류가 확인되었다. 제기는 발과 접시·향로 등으로 굽이 높고 팔각으로 면취한 것이 많다. 소문백자素文白磁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壽'·'福' 문자를 비롯하여 국화·모란·연화·용·물고기·사군자·당초문 같은 문양이 시문된 청화백자도 다수 수집되었다. 또한 '汾院'·'汾'·'靑'·'大'·'雲峴' 같은 청화명문과 '上'·'元'·'一'·'二'·'十'·'夫' 같은 음각명문이 씌여진 파편도 발견되었다. 요도구窯道具로는 중형·사발형·원통형의 갑발과 경사진 원반형·원통형 도침 등이 발견되어 당시 다양한 갑발사용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후기 청화백자의 문양으로는 분원리에서 출토된 각종 문자와 국화·매화·대나무·난초·모란·연화·운룡·산수·장생문·박쥐·나비·물고기·당초문 등을 들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운룡이나 매화·대나무 같이 조선 전기부터 왕실의 의례용으로 꾸준히 묘사되던 문양과 함께 산수·사군자와 같이 사대부들의 취향을 반영한 문양, 그리고 '壽福康寧'의 문자나 장생·모란·물고기 등의 길상적 성격을 띤 문양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기 분원백자에 대한 수요층이 왕실 및 관청뿐만 아니라 부유한 양반사대부와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왕실 고유의 문양인 운룡문은 후기에 이르러 더욱 크고 대담하게 묘사되었다. 문인화의 소재였던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와 같은 산수문이 청화백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종래의 지배층 문화가 신혼 양반층이나 서민층에게까지 수용되었던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는 동시에 도자기의 장식으로 산수문이 더욱 폭넓게 애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원 청화백자의 다양한 문양소재들은 당시 풍요로운 경제력을 바탕으로 백자에 화려하게 장식되었으며 양반사대부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문양이 있는 분원의 고급 청화백자를 즐겨 사용하였다.²⁵⁾ 이에 지나친 사치풍조를 염려한 정조는 갑기匣器(갑변백자)와 화기畵器(청화백자)의 제작을 금지하는 칙령을 반포하기도 하였으나²⁶⁾ 화려하게 장식된 분원백자에 대한 수요는 점점 확대되어 갔다.²⁷⁾

5. 분원백자의 성격

자기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세계 최초로 중국 경덕진에서 완성한 경질백자 기술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어 조선의 감성에 맞게 재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조선은 중앙집권적 관료사회이자 엄격한 계급사회였다. 따라서 자기를 쓰는 데에도 엄격한 구분이 있었다. 최고의 재료와 기술로 만들고 내화갑발 耐火匣鉢 안에 넣어 정성을 다해 구워 낸 상품 갑변백자는 왕실 전용의 최고급 백자로서 처음에는 후계자인 세자도 쓸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된 특별한 것이었다. 왕실과 중앙정부가 국가의 물품인 백자 제작을 전적으로 주도하였던 시기였다.



백자청화화접문병(19세기, 경기도자박물관 소장)

25) 『홍제전서』권177, 일득록 59.

26) 『정조실록』권38, 정조 17년 11월 병진.

27) 『일성록』제504책, 정조 19년 8월 6일 갑신.

하지만 16세기 들어 사림의 성장과 사대부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국가와 왕실의 관여가 줄어든 반면 사대부의 정서가 조선백자 전반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사대부는 사치를 배격하고 절제와 지조를 바탕으로 청빈낙도 하는 정신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지적엘리트였다. 이러한 정신은 백자를 만들 때에도 복잡하고 사치스러운 장식을 멀리하고 간결함과 여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으로 이끌었다. 왕실과 국가의 의례용으로 제작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형이 극히 단순하며 문양을 넣을 때에도 청결을 의미하는 청화를 써서 사군자나 야생의 꽃꽃을 간결한 필치로 그려 넣는 수준을 절대 넘어서지 않았다. 그들은 호화로운 장식보다 정신적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것이다.

백자가 고유의 양식을 형성하면서 독자적이며 일관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형 주체인 사회지도층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물론 기능적인 일은 중앙정부에 소속된 사기장의 몫이었지만, 품질과 형태 등 조형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까지 맡겨졌던 것은 아니다. 조형의 결정자는 백자 제작의 주체이며 소비의 주체인 왕실과 중앙정부를 포함한 사회지도층이었다.

조선의 엘리트층이 백자의 독자성을 일관성 있게 지지했던 데에는 그들 나름의 대의명분이 있었다. 조선 초기에 수립된 새로운 통치이념과 정연한 질서의식을 이상으로 여기고 이것을 엄격하게 계승하는 것이 지식인으로 격조와 품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사치를 배격하고 절제와 지조를 근본으로 정신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수기치인修己治人の 학문을 닦는 지식인들이 지켜야 할 당연한 입장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대의명분이 백자 조형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근검절약의 명분을 높이면서 다른 한쪽으로 실리를 취하기 위해 호화롭게 장식한 백자를 만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장식을 하는 것보다 본질을 더 중요시하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지식인으로서 지켜야만 할 규범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4절 광주실학

1. 근기지방과 근기남인

17~18세기 우리나라 실학은 경세치용經世致用·이용후생利用厚生·실사구시實事求是 등의 표현으로 개념이나 내용 등을 말한다. 경세치용을 내세운 실학자들에게서는 토지제도의 개선 등 각종 제도개혁을 통하여 어려운 농촌경제를 해결해 보려는 주장이 주종을 이루었고, 이용후생을 주장하는 실학자들에게서는 주로 도시적 분위기에서 상공업이나 기술발전을 통하여 부국안민을 주장하였으며, 실사구시를 중시하는 실학자들은 학문연구의 실증과 객관적 태도를 중시하면서 민족 주체의식을 강조하는 학문방법을 내세웠다고 한다.

경세치용은 주로 성호星湖 이익李瀾으로 대표되는 성호학파星湖學派에서, 이용후생은 주로 박지원朴趾源이나 홍대용洪大容 등으로 대표되는 북학파北學派에서, 실사구시는 김정희金正喜로 대표되는 고증학파考證學派에서 크게 나타났다.²⁸⁾ 이 중 성호학파가 근기남인近畿南人의 대표적인 실학파로 알려져 있다. 근기는 수도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 흔히 경기 일원과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근기남인은 근기지방에 생활 터전을 두고 있으면서 당색이 남인에 속한 사람들을 말한다. 근기남인을 주목하는 것은 조선 후기, 특히 17~18세기 전후 실학자들이 다수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신분적으로 대부분 양반사대부에 속하였다. 당시 양반들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유학 공부를 하고 과거를 통하여 관직에 오르는 길을 가장 선호하였다. 그러나 양반사대부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였지만 그들을 수용할만한 관직은 거의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직을 두고 권력투쟁을 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당파싸움도 역사적·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양반사대부 세계는 점차 정권경쟁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세습적으로 유지하는 소수의 권문세족 계층과 정권경쟁에서 패배하여 실세한 계층으로 양분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조선 후기 17~18세기가 이러한 모습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실세한 양반사대부이다. 정권경쟁에서 실세하면 대체로 정치적·경제적 기반을 상실하여 양반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게 되는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 더욱 심화되어 이들의 신분은 양반

28) 이우성, 「실학연구서설」, 『실학연구입문』, 일조각, 1978.

이면서도 경제적·사회적으로 사실상 서민과 다름없고 소외된 생활을 해야만 하였다. 붕당 이후 남인은 1674년(현종 15) 효종 비 인선왕후仁宣王后的 상을 당하였을 때, 모후 조대비(의복제 문제로 기년설基年說을 주장하여 채택됨으로써 모처럼 서인 정권을 물리치고 7년 동안 정권을 잡았으나 1680년(숙종 6) 축출 당하였다.²⁹⁾ 1689년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로 서인과의 갈등에서 이에 반대하는 서인정권을 물리치고 다시 5년 동안 정권을 잡았으나,³⁰⁾ 1694년(숙종 20) 축출된 이후에는 대부분 서인의 장기 집권이 이어졌다.

서인의 장기 집권은 곧 남인의 쇠퇴를 의미하는데, 관직에서 물러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낙향을 하고 그나마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대부는 몰락 양반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남인 가운데에서도 영·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던 남인보다는 서울 근교에 터전을 두고 있던 남인의 타격이 더욱 컸다. 바로 근기남인이다.

실세한 근기남인들은 정치적·경제적 기반을 상실하고 재기를 엿보면서 조정의 정치에 많은 불만을 품은 채 재야에 묻혀 살아야 했다. 한편으로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구하기 쉬웠고 비판의식 또한 강하였다. 비판과 개혁을 주장하는 양심적인 지식인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위로는 집권계층의 부정부패를 성토했고 아래로는 민생의 안정을 위하여 각종 개선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이 지향한 학풍이 곧 조선 후기 17~18세기의 실학이다.

경기지역에 유독 실세한 남인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관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정치적 경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삼남지역 사람은 일단 생활 터전이 있는 고향으로 낙향하여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거나 정치적 재기를 노리게 된다. 이들 대부분은 고향에서 적어도 중소지주로서 경제적 기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출세가 여의치 못하더라도 독서를 하며 여생을 보낼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근기지방 사대부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근기지방은 산이 많고 경작지 역시 척박하여 흉년이 잦은데다 사대부가 소유할 수 있는 토지가 근본적으로 부족하였다. 더욱이 서울에 거주하는 권문세족이 부재지주로서 차지한 토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입지적 조건 때문에 곡물을 비롯하여 원예작물이나 채소 등 도시 근교 농업 생산물의 대다수가 소비지인 서울로 흘러 들어가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사대부들도 도성 안의 사치한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생활을 했다. 따라서 정권에서 소외되어 근기지방에 사는 사대부는 한양 도성이나 삼남 사대부들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29) 이 사건을 경산대출척이라고 한다.

30) 이 정권교체 사건을 기사환국(己巳換局)이라 한다.

조선 후기에 들어 근기지방은 서울을 소비대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와 유통경제의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근기지방 지식인들의 안목을 바꿔놓게 되었다. 서울 근교에는 원예작물이나 특용작물 재배 등 부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농업이 점차 성행하고, 광작을 통한 대규모 경작방법이 이루어지면서 부농富農이 늘고 있었다. 반면 양란 이후 도탄에 빠진 농민의 회생은 요원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회의적이던 주자학 사회에 대한 비판을 가속하게 하였다. 또한 근기지방은 서울과 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선진사상이나 학문적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서 이들은 시야를 쉽게 넓힐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그동안 이단시 해오던 양명학이나 고증학, 나아가 서구 문물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학문을 중시한 학풍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 그 선두에 근기지방에 거주하던 남인출신 지식인들 다수가 있었고, 지리적으로 그 중심이 광주지역이었다.

2. 성호학과와 광주실학

1) 성호실학

성호 이익은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평안도 운산으로 유배된 부친 이하진 李夏鎭³¹⁾의 다섯째 아들로 운산에서 태어났다. 1682년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사망하자 홀어머니를 따라 선영이 있는 광주 침성리(현 안산시 상록구 일동)로 이사하였다.

어릴 때부터 병약했던 이익은 성품이 검소하고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학문적 재질이 뛰어났는데, 어려서는 둘째 형 섬계공剡溪公 이잠李潛으로부터 글을 배웠고, 뒤에는 셋째 형 옥동玉洞 이서李澈, 그리고 사촌형 이진李灋으로부터 학문을 연마하였다. 학문 방법의 요체는 스스로 터득하는 법, 즉 자득自得이었다.³²⁾ 지봉 이수광李睟光의 외증손 이만부李萬敷가 이익의 편지를 받고 답장에 독서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에서 큰 힘을 얻어 평생토록 학문방법으로 지켰다고 한다.³³⁾ 자득은 자신은 물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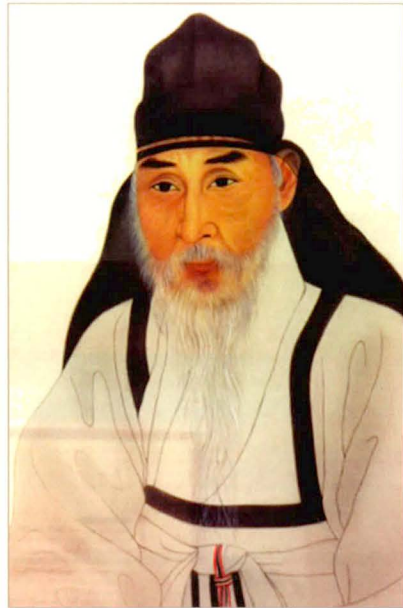
31) 이하진은 진주목사에 재임하던 중 남인세력이 대대적으로 숙청당하던 사건인 1680년 경신대출척 때 평안도 운산으로 유배되었다.

32) 이병휴, 「계부성호선생행장」, 『정산잡저』 권10.

33) 원재린, 「성호학과와 형성과 전개」, 『광주와 실학』, 광주문화원, 2005, 107쪽.

고 문하생들에게도 철저하게 주입되어 실천된 방법이었다. 자득하는 공부 방법의 하나는 우선 선현의 글을 읽으면서 의문을 품은 다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 풀리지 않는 내용을 여러 사람들과 토론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자득의 방법에서는 경전은 물론이고 주자학도 비판 대상이 되었으니 조선 후기처럼 주자존숭의 시대에는 용납되기 어려워 자칫하면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리기 쉬웠다. 그의 학문은 매우 개방적인 성격을 보였다. 당시로는 이단학으로 치부되던 양명학과 고증학은 물론이고 서학도 학문 연구의 대상이었다. 무조건 배격하지 않고 철저하게 분석하여 비판과 수용을 분명히 하였다. 고증학이 이익의 실학사상에 영향을 주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서학에 대한 분석과 연구도 이익을 비롯하여 그의 문인들



성호 이익

에게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국 천주교의 수용과 전파가 성호학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따지고 보면 성호학파의 개방적인 학문성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연원은 곧 성호학파의 종사인 이익의 학문성에 귀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익은 문인 신후담(愼後聃)의 혹독한 서학 비판을 질타하면서 분석의 가치가 있음을 말하고, 문인들의 천주교 연구를 경청하면서 막지 않았다. 물론 이익의 이러한 태도가 천주교의 수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익이 1763년 사망할 때까지 천주교 수용 문제로 성호학파의 내부 갈등은 없었다.

이익의 자득을 통한 학문 방법과 개방적인 학문성은 성호문인들의 학문성 또한 개성 있고 창조적 기풍으로 만들었다. 그의 직제자들은 각기 다른 학문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익은 이들의 개성 있는 기풍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윤동규(尹東奎)는 이익의 수제자로서 이익이 가장 아꼈던 문인인데 스승의 학문을 그대로 전승하려 하면서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였고, 신후담은 천주교 사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독자적인 성리학을 추구하여 기존 성리학자들로부터 비판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병휴(李秉休)는 이단학이라 하더라도 학문적인 연구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여 문인들이 적극적으로 양명학이나 서학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안정복은 스승 이익의 학문을 전승하면서 윤동규나 이병휴의 학문을 중도적 입장에서 수용하고, 특히 역사학을 통한 실학사상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권철신은 어느 성호학파의 선배 문인보다도 혁신적 성격이 강하여 천주교 수용의 선봉 역할을 하였다.

1880년대 성호학파가 분열 위기에 이른 것도 사실 성호학파의 이러한 자득을 통한 학문방법이나 개방적 학풍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익은 경서에 대한 연구가 학문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궁경실학窮經實學을 표방하면서 사단칠정四端七情과 같은 성리론은 긴요한 것이 아니라 하였고, 더불어 시부와 같은 문예도 실학으로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 하여 시부로 과거시험을 치루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가 강조하는 경서를 철저히 연구하는 궁경실학은 공자나 맹자의 수사학洙泗學, 곧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문을 말한다. 주자와 주자학을 존중하였지만 주자를 넘어 본원적인 공맹의 가르침을 철저히 익히고³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실학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학下學이었던 것이다.

하학은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익히고 실천하는 공맹의 가르침을 말한다. 하학을 익히고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상달의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이익이나 안정복은 제자들에게 공허한 성리학에 빠지지 말고 일생동안 하학에 매진하도록 권하였다. 요컨대 이익의 실학은 하학에 바탕을 둔 실천 실학이었던 것이다.

이익의 실학은 저서 『성호사설星湖僞說』·『곽우록藁憂錄』·『잡저雜著』 등에 잘 나타나 있다. 무엇보다도 민생의 안정을 추구하였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집의 주춧돌과 같으며 생산의 주체로 보았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탐관오리의 엄벌, 어진 인재의 등용, 세금의 경감, 흉년에 대한 사전 대비, 환곡제도의 폐지, 사치의 근절 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기강이 흐트러진 관직사회를 바로잡을 것을 강조하였다. 한전론限田論을 주장하였는데, 당시 양반 지주들이 일정한 토지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경작지를 일반 농민들에게 분배하여 경작토록 하는 균전제의 일종이었다. 과거를 통한 인재 선발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천거제薦舉制를 권고하되 지역 차별을 하지 않으며, 관리의 수를 줄여 작은 정부를 만들고, 무능 관리를 축출하며, 관직사회의 무사안일을 경계하였다. 노비천적奴婢賤籍을 개선하고 노비종모법을 폐지하자고 하였으며, 원칙적으로 능력에 따른 신분 철폐의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봉당의 폐단을 강력하게 비판하였고, 오래된 법은 시기적절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주의식이 강하여 맹목적인 존명사대사상을 비판하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과 화이론華夷論을 부정하였다. 반면 자주 국방력을 전제로 주변국에 대한 현실적인 이소사대以小事大의 외교정책을 주장하였다. 안정복이 『동사강목東史綱目』을 쓸 때에는 우리 역사의 체계를 수립하는데 주도적으로 자문하였고 자국 중심의 역사를 강조하였으며, 잃어버린 강역인 요동지방에 대하여 강한 실지회복失地回復 의식을 나타냈다.

34) 한우근, 『성호이익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35~36쪽.

2) 성호학과

이익은 당색이 남인으로 일찍이 퇴계 이황을 학문적 종사로 삼고, 미수 허목許穆의 학문을 사숙함으로써 흔히 퇴계학통이자 미수학통으로 불린다. 또한 가학으로 전해진 화담 서경덕徐敬德의 학통과도 무관치 않다. 증조부 이상의李尙毅와 조부 이지안李志安이 화담학통의 사람들과 학문적 교류가 있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 이하진도 친교가 있었다.

1674년 남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하진은 허목, 윤휴尹鑰 등과 함께 같은 청남계淸南系에 속하였다. 윤휴의 아버지 윤효전尹孝全이 서경덕의 문인 민순閔純으로부터 수학하였고 이익은 윤휴의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³⁵⁾ 이렇게 볼 때 이익은, 가학으로는 퇴계학통이면서 화담학통의 영향을 받은 학자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익이 퇴계학을 공부하고 화담학의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학은 오히려 율곡 이이李珥와 반계 유형원柳馨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익은 이이의 개혁사상에 대하여, “근세 율곡 이문성공 같은 분이 개혁에 대해 많은 의견을 말하였으나 당시 사람들은 옳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명쾌하고 절실하여 십중팔구는 지금 모두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이 개국한 이후 지금까지 당대의 급선무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아는 분이였다”³⁶⁾라고 호평하였다. 유형원의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비록 당대에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뒷날 반드시 본받을 것이며 무궁한 스승이 될 것이라고 치하하였다.³⁷⁾

성호 이익은 남인계의 학통을 견지하면서도 당색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게 학문을 수용하였다. 많은 장서를 지니고 폭넓은 학문을 섭렵하면서 일찌감치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만 매진함으로써 이익의 학문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친족을 포함하여 원근의 많은 사람이 문하생이 되기 위하여 찾았다. 서울 용산의 소남 윤동규尹東奎, 충청도 예산의 조카 이병휴, 경기도 교하의 신후담, 광주 안정복이 문하생이 되었다. 윤동규·신후담·이병휴·안정복 등 4명은 수많은 문인 가운데 직접 교육을 받은 대표적인 제자이다. 이 중 안정복을 제외한 3명은 이익의 서재를 찾아와 직접 강의를 들었으나, 안정복은 수백 통의 서간을 통하여 학문을 전수받았다. 이들은 각각 학문의 독자성을 지니면서 철저하게 성호 이익의 학문과 학문 방법을 전수하여 실천하였다.

윤동규는 이익이 가장 아끼던 수제자로 모든 것을 그와 상의하여 처리할 정도였고, 이병휴는 이익의 친조카이기 때문에 안산에서 기거하며 숙부의 학문을 가장 철저하게 교육받았다. 신후담은 성리학과 서학에 대해 이익과 자주 토론하면서 논쟁을 벌인 인재였다. 안정복은 가

35) 원재린, 『조선후기 성호학파의 학풍 연구』, 해안, 2003, 25~28쪽.

36) 『성호선생문집』 권30, 잡저, 논경장.

37) 『성호선생문집』 권30, 잡저, 논경장.

장 뒤늦게 문하생이 되었지만 학문성을 인정받아 이익의 도움으로 『동사강목』을 저술하였고, 이익의 권고로 『이자수어李子粹語』를 집필하였으며, 역시 이익의 부탁으로 『성호사설』을 『성호사설유선』으로 재편하였다.

이들 문인들은 이익의 생전에 상호 자주 접촉을 하면서 학문을 토론하였고, 성호학과 내의 중요한 일은 스승을 정점으로 협력하여 이끌어 나아갔다. 그리고 이익은 모든 문제를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반드시 제자들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였다. 이를 테면 성현의 칠정七情이 이理인가 기氣인가를 내용으로 하는 이익의 『사칠신편四七新編』 중발重拔 문제로 수년을 두고 논쟁을 벌였을 때 이익이 여러 문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자신의 견해를 조절하였으며,³⁸⁾ 이익이 살아 있을 때에는 이익을 중심으로 이 4명이 주축이 되어 성호학파를 이끌어 갔다.

1763년 이익의 사망 당시 성호문인들은 각기 고향에서 후학을 양성하거나 관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성호학파도 점차 균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스승 유고遺稿 정리 때문에 윤동규와 이병휴의 의견이 충돌했고, 성호학과 내의 소장 학자들이 이병휴를 추종하여 주로 충청도 예산을 출입하는 동안 서울 용산의 윤동규는 소외되었으며, 이병휴는 중요한 문제는 주로 광주에 살고 있는 안정복과 상의하여 처리하려 하였다. 안정복은 윤동규와 이병휴의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조정자 역할을 하며 광주 덕곡(덕골)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칩거하고 있었다. 그래도 윤동규·이병휴·안정복이 함께 생존할 때는 이병휴가 거주하던 예산 장천이 사실상 성호학파의 본부가 되어 큰 문제없이 유지되었다.

한편 성호학과 내에는 젊은이들이 서학, 즉 천주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1780년대를 전후하여 은밀히 천주교 강학을 하며 종래의 유학을 멀리하였고, 좌장격인 권철신權哲身과 이기양李基讓 등은 안정복을 멀리하기 시작하였다.

3. 광주의 대표적 실학자

1) 순암 안정복

성호문인들 간에는 사단칠정론 등 성리학설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때마다 안정복은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하학下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학풍은 후학들

38) 강세구, 「성호학파의 이기논쟁과 그 영향-공회노논쟁을 중심으로-」, 『실학사상연구』 제17·18합집, 무악실학회, 2000.

에게 그대로 계승·발전되었다.³⁹⁾

안정복은 현실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형이상학形而上學을 추구하는 학문경향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공리공담空理空談만을 일삼는 학풍을 비판하면서 ‘성리학설과 관련된 논의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재實在에 기반을 둔 그의 학문 인식과 지향은 현실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학술 활동을 추동시켰다.

하학을 대표하는 주요 저술로 『동사강목』이 있다. 『동사강목』을 하학과 관련지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학을 실현한 구체적인 성과물이었다’는 발언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행사됨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동사東史의 필삭筆削’을 들었다.⁴⁰⁾ 제자들에게 『동사강목』은 하학의 관점에서 동국의 정사政事를 정리한 역사책으로 인식되었다.

안정복이 주목한 것은 토지제도였다. 농업 중심의 전근대사회에서 국운을 좌우할 주요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이었다. 맹자의 정전제井田制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착한 마음을 잘 보존하여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일정한 규모의 토지를 분배해 주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정전제가 단순히 공상空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거행된 사례였음을 평양의 기자정전箕子井田을 통해 증명하였다. 이렇듯 실제로 거행된 적이 있는 정전제 사례는 빈부격차가 극심했던 조선 후기 현실에서 백성들에게 토지를 고르게 나누어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정법구중情法求中’의 원리에 입각하여 향촌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해 나아갈 ‘때에 적합한 조치’로써 향사법鄕社法을 만들어 제시하였고, 백성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경안이리동약’을 제시하였다. 이익으로부터 전수 받은 경세치용의 학풍을 계승·발전시킨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순암 안정복

39) 황덕일, 『공백당선생문집』 권4, 잡저, 덕곡기문.

40) 황덕길, 『하려선생집』 권12, 제문, 제순암선생문.

2) 성재 허전

어려서 외할아버지로부터 『소학』과 『대학』 등을 배우면서 유학의 기본적인 식견을 갖추어 나아갔다. 기본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방도는 ‘토지를 고르게 나눠주고’, 그런 뒤에 ‘학교를 세워 교화시키고’, ‘효제충신을 닦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선진시대 맹자가 주장했던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동일하였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근본인 백성이 편안해져야 임금도 편안하며, 백성이 부유해져야 임금도 부유해지는 것이었다.

그가 제시한 ‘세상을 구하는 방법’은 1862년 농민항쟁을 수습하기 위해 제시한 『삼정책』에 잘 반영되었다. 그는 이익의 균전이념을 계승한 토지개혁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당시 지방에서는 땅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소작료를 요구하면서 양반 지주와 백성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특정 지역에서는 탐관오리들이 본래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농민들로부터 강제로 거두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허전은 당시 백성들이 못사는 이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국가 운영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격화되고 있던 농민항쟁을 단순히 삼정(전정·군정·환정)의 개선과 같은 세제稅制 개선만으로 수습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백성들의 경제기반을 점차 고르게 해 준다’는 차원에서 백성들에게 토지를 고르게 나누어 주는 토지개혁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부록인 ‘치도9조’에서 ‘민목民牧·용인用人·교민敎民·반록頒錄·장전藏錢·금도禁盜·신사愼赦·내간來諫·전학典學’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왕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경세 관련 저술을 남기고 있었으니, 군정의 연혁과 개선책을 제시한 『하관지夏官志』가 있었으며, 왕도를 달성함에 있어 군전·양민養民·교민敎民·현관賢官의 중요성을 거론한 『수전록受塵錄』이 있다. 이 책은 허전의 경세사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저술이다. 여기에는 토지제도와 교육제도를 비롯하여 인재등용 및 예악禮樂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방안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수기치인을 이루기 위해 천민경덕天民敬德을 골자로 한



성재 허전

『중요록宗堯錄』과 왕세자 교육용으로 쓰인 『철명편哲命篇』 등이 있다. 『중요록』에서 허전은 『서경』과 『대학』에 주목하고, 두 경전으로부터 천天·민民·교敎·덕德 관련 구절을 선별하여 이에 대한 도설圖說을 부기하였다. 여기서 허전은 천보다 민을 우선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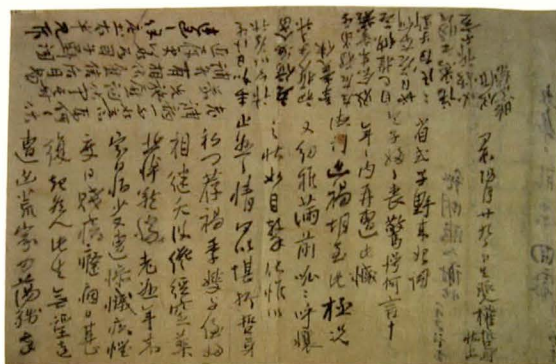
3) 녹암 권철신

이익은 권철신의 뛰어난 학문 재질을 높이 평가하면서 학자로서 평생 견지해야 할 자세로서 자득의 중요성을 하교하였다. 이익은 권철신에게 ‘스스로 깨달은 내용이라면 굳이 스승의 언설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을 내려주었다.⁴¹⁾

권철신이 자득한 내용 가운데에는 당대 수많은 유학자들이 존송했던 주자학과 핵심 학설을 부정하는 것

이 들어 있다. 격물치지는 주자학의 핵심이론으로서,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하늘로부터 천理天理를 품수 받았다’는 설에 근거하여 ‘모든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만 앞에 이른다’고 하는 유학의 기본 원리를 제공하는 핵심 학설이었다. 그런데 그는 이 같은 의미를 지닌 『대학』 ‘보망’ 장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다. 주자의 핵심 학설을 부정했다는 사실은 권철신이 자득을 중시하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유념하며 경전을 공부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이다. 결국 그는 주자의 학설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사문난적으로 지목되어 사사賜死당하고 말았다.

당대 주류主流 학문과 다른 면모는 그의 학문 실천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이익과 안정복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학을 주요한 학문 방법으로 상정하였다. 그의 하학은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과 같이 고차원의 형이상학을 공부하여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도덕실천을 수행하면서 이치를 깨닫는 것이었다. 그는 언담言談에만 빠



녹암 권철신의 글씨

41) 정약용, 『여유당전서』 1, 녹암권철신묘지명 「시문집」 권15 ; 이익, 『성호전집』 권30, 서, 답권기명경진.

저서 이기理氣와 성정性情을 논할 뿐 실천을 소홀히 하는 당시 학문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일상에서 효·제·충·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는 평소 부모에게 순종하여 그 뜻을 받들었으며, 친구와 형제를 한 몸처럼 위하고 아끼는 데에 힘썼다.⁴²⁾

이처럼 자득을 중시하고,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덕목을 실천하는데 애썼던 권철신이 주목했던 학문대상이 있었으니, 그것은 서학, 즉 천주교였다. 『천주실의』·『칠극七克』 등 천주교 관련 서적을 입수하여 읽고 자발적으로 공부함으로써⁴³⁾ 교리를 자득하였다.

4) 다산 정약용

이익의 학문을 사숙私淑하였으며, 성호문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학문체계를 완성하였다. 그의 면모는 주자학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정약용은 주자를 뛰어난 유학자이자 경전 해석가로 인식하였다. 주자의 해석 역시 성현의 본지本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견해로 간주하였다. 즉 주자의 경전 해석은 성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할 대상일 뿐 경전에 본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배우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였다.⁴⁴⁾ 그는 당대 많은 학자들이 주자를 성인으로 간주하여 그의 학문을 무조건 숭상하려는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그는 명의 멸망 원인을 주자 존숭 문제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명의 상황에 빚대어 당대 조선 학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다산 정약용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정약용이 주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파악한 것이 아니라 다산학 성립에 많은 영향을 준 이익도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이다. 자신만의 학문체계를

42) 정약용, 『여유당전서』 1, 녹암권철신묘지명 「시문집」 권15.

43) 『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11월 8일 기묘; 안정복, 『순암선생문집』 권6, 서, 답권기명서갑진.

44) 정약용, 『여유당전서』 1, 오학론 2 「시문집」 권11.

수립한 정약용은 스스로 깨달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사회현실에 적용하려 노력하였다. 사회적 실천을 도외시한 채 자기 한 몸의 도덕 수양에만 몰두하는 성리학자들의 학문태도를 비판하였던 것이다.

옛날 학자는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도 아울러 천승(千乘)의 나라에서 재화와 공부(貢賦)를 다스리고, 법관(法官)이 되어서 옥사(獄事)를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에 비해 오늘날 학자들은 스스로를 속세를 떠나 초야(草野)에 묻혀서 가만히 앉아 수기(修己)공부만 전념할 뿐 출사에도 응하지 않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⁴⁵⁾

그리고 현실문제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치민(治民)·변속(變俗)·이재(理財)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⁶⁾ 진짜 유학자라면 ‘나라를 다스려 백성을 편안히 만들고[治國安民]’, ‘오랑캐를 물리치고[攘夷狄]’, ‘재용을 넉넉히 만들고[裕財用]’, ‘문무(文武)에 능통한 능력’을 갖추어야 했다.⁴⁷⁾

실제로 정약용은 정치 일선에 나아가 전문 관료로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 신봉문제로 강진으로 유배를 떠난 뒤에도 현실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활발한 저술활동을 펼쳤다. 『경세유표』는 국가운영 전반에 대한 변혁을 통해 보민·안민을 이룰 수 있는 제도개혁 방안이 망라된 저술이다.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오래된 국가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기록된 정론서政論書였다.⁴⁸⁾ 그는 『주관(周官)』의 법도에 근본하면서도 당대의 형편과 인정(人情)을 고려하는 가운데 국가경영 전반에 관련된 정치·경제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개혁방략으로 당시 전횡을 일삼던 비변사의 혁파가 있다. 이를 통해 세도가문들에 의해 사권화(私權化)된 국가 권력을 원상복구 시키려고 했다. 조선 전기 이래 국왕 직속기구를 포함한 모든 관료기구를 육조 산하에 모아 각 조 판서의 지휘아래 두도록 하였다. 이때 육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모든 관료에게 언관(言官)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언론 기능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한편 주목되는 내용은 토지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정전론(井田論)이다. 정전제 이념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하여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구획한 뒤, 1/9에 해당하는 가운데 토지를 공전으로 규정하였다. 공전은 농민들이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산출물은 세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민에게 고르게 나누어준다는 구상을 하였다.

다음으로 『목민심서』는 전면적인 개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체제 개선을 위해 실천할 수 있

45) 정약용, 『여유당전서』 2, 「맹자요의」.

46) 정약용, 『여유당전서』 1, 답이우필연 「시문집」 권19.

47) 정약용, 『여유당전서』 1, 속유론 「시문집」 권12.

48) 정약용, 『여유당전서』 1, 자찬묘지명 「시문집」 권15.

는 구체적인 지방행정 관련 업무가 집대성된 저술이었다. 안정복의 『임관정요』의 일정한 영향 아래⁴⁹⁾ 작성되었고, 12편 72조의 편제를 통해서 지방 수령에 부임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안들이 소개되어 있다. 보민을 위해 지방관에게 요구되는 일반 행정업무를 면밀히 규정한 저술들이었다. 이때 유념해야할 점은 그 내용들이 체제개혁보다는 현 상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제도개혁의 차원에서 국가 운영 전반에 걸친 변혁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사회발전에 따른 민의 성장을 고려하는 가운데 목민관으로서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흙흙신서』는 형법 연구서이며 살인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실무 지침서였다. 공정한 형정刑政 집행을 통해 백성들의 억울함을 최소화 하려는 애민정신이 담긴 책이었다. 형벌 규정의 기본 원리와 지도 이념, 살인사건의 유형과 그에 적용되는 법규 및 형량을 규정해 놓았다. 실제 발생하였던 살인사건 중 142건을 골라 그 원인과 동기 등에 따라 22종으로 분류하였다. 자신이 곡산부사와 형조참의로 재직 중 다루었던 사건과 직간접으로 관여하였던 사건 등을 소개해 두었다. 관리로서 백성들의 억울한 죽음을 명확히 규명하여 그 원인을 풀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조해야 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 정약용은 정조 사후 천주교 문제에 연루되어 17년이라는 긴 유배기간을 보냈지만, '일표이서'를 통해 유형원 이래 성호학파를 거치면서 현실화의 계기를 모색해 나아가고 있었던 실학의 개혁 전통을 집대성함으로써 조선시대 최고 실학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제5절 천진암 성지

천진암天眞菴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거론되지만, 200여 년 전 광암曠菴 이벽李穡(1754~1785)을 중심으로 젊은 선비들이 학문을 닦고 연구하던 강학 활동의 본거지였다. 그들의 학문 연구는 사회 개혁과 민족 개화의 차원에서 근대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특히 사암侯菴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청소년 시절의 문학적 자질을 드러내는 문헌들과 이벽의 서사시 『성교요지聖敎要旨』, 「천주공경가天主恭敬歌」 및 만천蔓川 이승훈李承薰(1756~1801) 진사의 『만천유

49) 강세구, 『순암 안정복의 학문과 사상 연구』, 해안, 1996, 90쪽.

『高蔓川遺稿』 등은 천진암의 의의와 가치, 위상을 심도 있게 드러낸다. 천진암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하자면 너무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사료들을 제시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한다.

1. 세계 유일의 자생적 천주교 발상지

천진암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 없이 자발적으로 신앙의 움이 튼 한국천주교의 발상지이다. 지난 2,000여 년간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천주교는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로마제국은 이스라엘인 베드로와 바오로가, 영국과 아일랜드는 이탈리아인 파드리시오가, 일본은 에스파냐인 프란시스코 사비에르가, 중국은 이탈리아인 마테오 리치가 선교하였다. 그러나 한국천주교회는 한국의 젊은 선비들이 학문적 대상이었던 천주교 교리를 자발적으로 실행에까지 옮김으로써 종교적인 신앙의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발전시켰다. 특히 천진암은 유불천儒佛天의 환경 여건을 합류시켜 상호보완적인 노력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한 거룩한 곳이다. 즉, 유교의 젊은 선비들이 불교의 암자에서 천주교 교리를 연구하고 실천하여 천주교회를 세운, 실로 전 세계 천주교회 역사상 유일한 성지이다. 국가 간의



천진암과 앵자봉



한국천주교회 창립 초기 집회 모습

전쟁이나 무역을 통한 권력이나 재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순수 학문적인 연구를 계기로 실천에까지 나아가는 강학講學과 신앙 수련의 도량道場이 바로 천진암이었다.

사실 1593년(선조 26) 임진왜란을 계기로 일본 침략군의 군종軍宗 신부였던 에스파냐인 선교사 세스페데스가 남해안 진해에 상륙하여 머물기도 하였고, 1637년(인조 15) 병자호란을 계기로 중국에 볼모로 8년간이나 머물다 온 소현세자와 묵암默菴 이경상李慶相(1603~1647) 일행과 함께 중국인 천주교 신자 다섯 명이 입국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모두 헛일이었다. 전쟁을 계기로 조선천주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던 것이다.⁵⁰⁾ 또 숙종과 영조 때, 황해도 해주지역과 함경도 두만강 유역의 회령지역에서 천주교 신자인 중국인 상인들과의 무역은 있었으나 역시 종교적 결실은 없었다. 해주나 회령지역의 일부 백성들이 천주교를 신봉하며 부모 제사를 소홀히 한다는, 수령 방백의 보고에 대하여 당시 조선정부는 천주교 금지령을 내렸고 모든 시도는 중단되고 말았다.⁵¹⁾

오직 천진암에서 창립이 성사된 조선천주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양반 가문 출신의 순수하고 진솔한 천재적인 선비들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특히 실제의 생활 개혁을 전제로 한 천학天學운동과 광암 이벽이 추진의 중심이었다.

50) 『壬辰亂史國外資料: Breve notizia della Corea e del suo cristianesimo nel secolo XVI e XVII』,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동아문화연구소, 1971.

51) 이능화, 「조선기독교교급의교사」, 『한국학자료총서』 제3집, 조선기독교창문사, 1928.

천주교 서적이 조선에 들어온 것은 북경을 왕래하던 사신단 일행에 의해 서구 문화에 관한 서적들이 유입되면서였다. 이에 이벽에 앞선 여러 학자가 이미 천학이라고 부르던 천주교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이수광李睟光(1563~1628)·이경상·허균許筠(1569~1618)·정두원鄭斗源(1581~?)·이이명李頤命(1658~1722)·홍대용洪大容(1731~1783)·이익李翼(1681~1763)·신후담愼後聃(1702~1761)·안정복安鼎福(1712~1791)·홍유한洪儒漢(1726~1785) 등은 천주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처음 200여 년간 천주교 서적은 그저 학문적 연구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다가 이벽을 중심으로 보다 깊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나아가 그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젊은 학자들에 의해 실행으로 옮겨지면서 종교단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바로 그 출발의 현장이 천진암이다.

1984년 한국천주교회의의 103위 순교자들을 시성諡聖하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한국천주교회가 선교사도 성직자도 없이 평신도에 의해 세워졌음을 격찬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다. 즉, 우리 겨레는 선교사나 성직자나 누가 ‘찾아와서 시키거나 가르쳐 주기’ 전에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고 전파하며 수호하고 증거하는 진리의 민족임을 전 세계 인류 역사 안에서 드러내 보인 것이다.

2. 개혁의 열과 힘이 육성된 성지

천진암은 200여 년 전, 이벽·이승훈·정약전丁若銓(1758~1816)·정약종丁若鍾(1760~1801)·정약용·이충억李寵億 등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젊은 선비들이 순수하고 진솔한 자세로 학문 연구, 특히 진리 탐구를 위한 자발적인 강학의 모범을 보여준 곳이다. 또한 음력 주일을 제정하여 실천하며, 양반과 상민의 사회계급 타파 운동을 실천하고, 일부일처제 등을 실천할 정도로 당시 조선의 사회 개혁을 시도한 젊은이들의 본거지였다.

조국 근대화의 불꽃이 천진암을 본거지로 삼던 젊은 선비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실천되고 있었음은, 한말 문호 개방과 더불어 일부 선교사들이 설립, 운영하던 학원들보다도 1세기가 앞서는 교육 내용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학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기여한 정약용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이벽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이미 거론한 학자들이 적지 않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⁵²⁾

52) 홍이섭, 『한국 근대사상사에 있어 이벽 선생의 위치』, 『연세춘추』, 연세대학교, 1953.

정약용과 정약전 등은 소년 시절부터 천진암을 드나들며 당시 그곳에서 독서하며 수덕에 전념하고 있던 여덟 살 위의 사돈 이벽한테서 여러 새로운 학문을 듣고 배웠다. 이때 배운 신학문 지식으로, 훗날 정약용은 조정에 들어가 정조를 보필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크게 활약하였으며,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어서도 『자산어보(玆山魚譜)』와 『문씨표해록(文氏漂海錄)』⁵³⁾ 등을 저술할 수 있었다. 당시 이승훈·정약전·정약용·권상학(權相學, 1760~1819)·김원성(金源星)·이충억 등은 천진암에서 이벽으로부터 태양력 계산법과 기하원본·천문·지리·양명학(陽明學)·천학·수학·요일(曜日) 등을 배웠는데, 이러한 지식은 당시 일반 서당에서는 물론 왕실의 동궁관(東宮館)에도 없던 학과목들이었다. 특히 그들은 새로운 교(敎)에 대해서도 듣고 배우며 몹시 기뻐하였다.

정학술(丁學術)이 기록한 『니벽전(李璧傳)』⁵⁴⁾의 내용을 보면, 천진암에 모이던 젊은 선비들이 천주교 교리는 물론 당시로는 새롭고 신기한 여러 가지 학문을 듣고 배웠음을 알 수 있다.

무술년(戊戌年, 1778) 이벽 선생은 25세 되던 해에 성호(星湖) 이익(李翼) 선생 제자들과 어진 벗들과 선비들, 정씨(丁氏)와 이씨(李氏)내 자제들과 함께 학문에 힘썼다. 북경에 사절로 갔던 무관(武官) 홍군사(洪軍士)에게 천학(天學) 서적들을 한 상자 받아, 밤낮으로 읽은 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의심나는 점을 터득하고는, 산수가 좋은 곳을 찾아 노닐며 주유(周遊)하였다. 그러다가 광주에 이르러 원양산사(鴈山寺)(일명 앵자산, 천진암)에 은거하며 도를 닦는 벗들(道友)이 무리를 지어 모여들었고(衆徒, 이벽 선생은 『성교요지』를 지어 마치 교과서처럼 이들에게 받아쓰게 하(下筆)하였다.⁵⁵⁾

기해년(己亥年, 1779) 이벽 선생이 26세 되던 해에는 어진 벗들과 학문에 힘쓰는 제자들이 선생을 웃어른으로 모시며(爲上, 제자들이 무리를 지어 산사에 모여들었다. 이때 광암 이벽 선생은 기묘한 학문에 아주 박식하여 천문학과 지리학, 의학과 복술, 철학과 인간의 품성과 운명에 관한 학문에도 달통(達通)하였으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대답하는 것이 흐르는 물처럼 막히는 데가 없었다. 그의 문하에는 젊은 선비들이 마치 총림(叢林)과 같이 학문적이며 신앙적 단체를 이루었고, 그 명성이 세간에 자자하여 널리 전해지고 있었다.⁵⁶⁾

53) 1801년 정약전이 유배된 흑산도 가까이에 있는 우이도(牛耳島)에서, 그 섬의 문씨(文氏)가 풍랑으로 인하여 대마도, 필리핀, 대만, 북건설을 거쳐 북경으로, 또 한양을 거쳐 마침내 10여 년 만에 고향 우이도에 돌아온 내력을 12권으로 기록한 책. 우이도 문씨 집안의 가보로 전해지고 있다.

54) 표제에는 '니벽전'이라고 쓰여 있고, 속 표제에는 '여니벽선 몽유록'이라 적혀 있다. 그 내용은 정학술이 이벽이 죽은 지 60년 되는 1846년 6월 14일에 자기가 꿈 꾸을 적은 것이다. 정학술이라는 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인물로, 혹자는 가공의 인물이라고 하고 혹자는 정약중 또는 정약용이라고도 하나 전후의 시기를 고려해보면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한문 원본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한글 필사본으로 1897년에 필사되었으리라 추정될 뿐 누가 필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55) 한국천주교회창립연구원 편, 『한국천주교회창립사 자료집 3: 니벽전·류한당언행실록』, 1996, 20쪽.

56) 한국천주교회창립연구원 편, 『한국천주교회창립사 자료집 3: 니벽전·류한당언행실록』, 1996, 21쪽.

『니벽전』에 언급된 위의 대목은, 다블뤼 안주교의 기록과 거의 일치하며, 일부는 정약용의 「녹암묘지명鹿菴墓誌銘」과 「선중씨묘지명先仲氏墓誌銘」 및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에서 밝히는 것보다 대동소이하다.⁵⁷⁾

또한 정약용의 「자찬묘지명」과 정약전의 『자산어보』 등을 읽어보면,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 방법과 목차가 매우 과학적이며 육하원칙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이것은 당시 일반 선비들의 글과는 매우 차별되는 현대적인 서술상의 특징이다. 이벽 자신이 당시 대학자 이가환李家煥(1742~1801), 이기양李基讓(1744~1802) 등과의 공개 토론회에서 대승을 거둘 만큼 논리적이었으므로 소년 시절부터 그에게 듣고 배운 정약용과 정약전 같은 수재秀才들의 글에서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한편 당시 우리나라에는 아직 양력과 요일이 없던 사회였다. 양력과 요일이 사회 일각에서 거론되고 쓰인 시기는 한말, 즉 1800년대 말이 되어서였다. 하지만 천진암에 자주 모이던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젊은 선비들은 그보다 1세기 앞서 이미 음력으로 매월 7일, 14일, 21일, 28일을 일요일로 삼았다. 그들은 이날을 상제上帝 천주의 날로 정하여 온종일 노동과 음식을 금하며 집 안에 들어앉아 기도에만 열중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최초로 매주 종교적인 주일을 정하여 지켰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선진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노동자들의 정기적인 휴식운동을 시작하였고, 양반과 상인들의 계급 차별을 타파하며, 일부일처제를 실천하였다.

당시로서는 생소한 생활개혁운동은 엄격한 부모 형제의 통제를 받던 일반 양반집 가정에서나, 훈장과 학동들이 함께 면학하는 서당에서나, 또는 신도들이 적지 않게 왕래하는 정상적인 기존의 타종교 기관과 시설에서는 실천하기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마디로 심산궁곡의 퇴락해가는 암자나 한적한 산골 오두막처럼 남들의 간섭이나 방해가 없는 아주 적막한 곳에서 독자적으로 종종 모이는 젊은이들에 의해서만 초보적으로나마 시도될 수 있었던 생활 혁신이었다.



광암 이벽

57) 한국천주교회창립연구원 편, 『한국천주교회창립사 자료집 3: 니벽전·류한당언행실록』, 1996, 20쪽.

제6절 관적성씨와 주요 세거성씨

1. 광주 관적성씨

1985년 11월 기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여 성씨와 본관을 조사한 결과, 광주廣州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이李·안安·김金·박朴·최崔·석石·노盧의 7개 성씨이다. 여기서는 『사마방목』에 나오는 광주의 관적성씨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광주이씨

광주이씨 시조 이당李唐은 고려 말 국자감 생원시에 합격했고, 조선조에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에 증직되었다. 분파는 둔촌 이집李集을 1세조로 하는 둔촌공파를 비롯하여 석탄공파, 암탄공파 등이 있다. 이와 별도로 신라 17대 내물왕 때 내사령을 지낸 이자성李自成을 시조라고 하는 설도 있다. 고려가 건국됐을 때 이자성이 이에 불복하고 절의를 지켰기에 고려 태조가 회안호장淮安戶長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광주이씨 재실 고덕재

이당은 부인 인화이씨와의 사이에 인령·원령·희령·자령·천령 등 아들 5형제를 두었는데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다고 한다. 특히 둘째인 원령은 둔촌 이집인데 가문의 명성을 떨쳤다. 1371년(공민왕 20) 신돈이 축출되자, 원령은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뜻으로 이름과 자를 각각 집集과 호연浩然으로 바꾸었다.

이집은 지직·지강·지유 등 3남 1녀를 두었다. 그중 지직之直은 문과에 급제하여 교리를 거쳐 안찰사를 역임하였고, 보문각 직제학을 거쳐 광주 탄천炭川에 은거하였다. 슬하에 3남 4

녀를 두었는데, 우의정을 역임한 이인손李仁孫이 가장 뛰어났다. 이인손은 극배·극감·극증·극돈·극균 5남을 두었는데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다. 특히 극배와 극감은 공신으로 봉해져 가문을 빛냈다. 한편 이지강은 문과에 급제하여 문숙공에 올랐고, 이지유는 생원으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에도 광주이씨는 많은 급제자와 관료들을 배출하여 문과 급제자가 188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재상을 지낸 자가 5명, 대제학을 지낸 자가 2명, 청백리가 5명, 공신이 11명이었다. 특히 조선 초기인 세조와 성종대에 광주이씨는 전성기를 누렸다.

광주이씨는 갑자사화 때 인동仁同으로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은 이극균의 경우를 비롯하여 연산군대에 주춍하였다가 명종과 선조대에 이르러 이준경과 이덕형이 영의정, 이윤경이 병조판서에 이르러 명문 가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인물로는 만주에서 독립군 활동을 한 수택과 병택, 의병장으로 활약한 이용래 및 3·1운동 당시 33인의 한 사람이었던 이종훈이 있다.

족보는 1613년(광해군 5)에 간행된 『경술보庚戌譜』와 1724년(경종 4)에 간행된 『갑진보甲辰譜』가 있고, 정조와 고종대에도 간행되었다.

광주시에에는 둔촌공파의 후손들이 정착하여 오랫동안 세거한 곳으로 초월읍 무갑리가 있으며, 2009년 현재도 약 3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 초월읍 신월리 두월마을에는 석탄공파의 묘역과 재실 고덕재高德齋가 있으며, 2011년 7월에 한산군 이손의 묘와 신도비가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되었다.

2) 광주안씨

광주안씨의 시조는 광주의 향리로 고려 초기 광주에서 일어난 반란을 평정하여 태조로부터 광릉군廣陵君에 봉해진 안방걸安邦傑이다. 그의 후손 기거가 충선왕과 공양왕대에 걸쳐 이부상서를 지냈고, 아들 국주國柱가 중랑장에 이르렀다고 한다. 광주안씨가 본격적으로 관인을 배출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였다.



광주안씨 묘역

조선 개국 후 청백리로 뽑힌 사간공 안성安省이 광주에 세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그의 묘를 조성하면서 광주 뒷골에 자리 잡았고, 안성의 6세손으로 선조의 매부인 황滉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안황의 6대손 안정복安鼎福은 영·정조대의 대표적인 실학자였다. 성호 이익李翼의 문인으로 첨지중추부사를 거쳐 광성군에 봉해졌다. 그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을 강조하는 실학연구에 힘을 기울여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아 『동사강목』을 저술하였다.

근대의 인물로는 안중화安鍾和가 있는데, 그는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민영환과 함께 조약의 폐기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낙향하였으며, 『국조인물지』를 편찬하였다.

1739년(영조 15) 『기미보己未譜』를 비롯하여 1790년(정조 14) 『경술보庚戌譜』, 1866년(고종 3) 『병인보丙寅譜』 등의 족보를 간행하였다. 1982년 시조 안방걸 이하 12세의 선조에 대해 제단을 만들어 매년 양력 4월 1일 제사를 지낸다.

3) 광주김씨

경순왕의 후손이라 전해지는 김녹광金祿光이 1236년(고종 23) 몽골의 침입 때 상장군으로 공을 세워 광주군廣州君으로 봉해지면서 광주김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김녹광의 아들 굉闕이 감찰어사를 지냈고, 굉의 아들 환하이 문하시랑평장사라는 벼슬에 올라 가문을 빛냈다. 김 환은 청백리로 명망이 있었고 학문과 문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글씨도 잘 써 당대의 명필로 꼽혔다 한다. 그의 아들 남물南物과 개물開物이 각각 안동부사와 사헌부지평을 지냈다.

조선시대 인물로는 임진왜란 당시 적을 물리친 의용장 김태허金太虛가 있다. 또 김려의 손자이고 태허의 사촌인 태을太乙은 학문과 덕행이 뛰어났으며, 그의 아들 수인守認이 아버지를 이어 학문으로 대성하였다.

한말과 일제강점기 인물로 만주에서 독립군의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체포되었던 김진성金振聲과 평안북도 선천파출소를 폭파하려다 검거, 투옥되었던 김석창金錫昌이 있다. 그리고 김상윤金相潤은 김원봉金元鳳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하여 밀양경찰서 폭파사건에 가담하였다가 상해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다. 김승문金勝文은 대한독립지원단을 결성하여 군자금 모집에 참여하였다.

시조 및 중시조의 단壇이 초월읍 용수리에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15일 제사를 지낸다. 족보로는 1982년에 간행된 『임술보』가 있다.

4) 광주박씨

광주박씨는 고려시대 전서典書를 지낸 박명훈朴明勳을 시조로 한다. 그의 후손들이 광주에 정착하여 대대로 살면서 광주를 본관으로 하였다. 광주박씨는 이곳에서 호장戶長직을 세습해 오다가 원元(중국)을 배경으로 성장한 박수도朴守道에 이르러 가문이 흥성하였다. 그의 아들 견堅은 향리로 시작해 중랑장을 거쳐 대호군이 되었다. 그의 가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원에 들어가 내시직을 한 전의 아들 쇠노울대磨魯兀大가 이곡에게 광주 신복사의 중건을 부탁하는 기문에 자세히 나온다.

광주안씨와 광주박씨의 경우는 고려 말부터 광주의 이족吏族에서 사족士族으로 성장하였다고 하나 전형적인 신흥사대부의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다. 『사마방목』에 광주박씨의 사마시 합격 사례는 1건이 있는데, 1531년(중종 26) 사마시에 합격한 박세충朴世忠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박인수朴仁壽의 관직이 참봉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미 가문의 세력을 잃은 듯하다.

5) 광주최씨

광주최씨는 조선시대 장사랑·훈도를 지낸 최득보崔得寶를 시조로 한다. 후손들이 최득보가 전에 살던 광주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잇고 있다. 광주최씨는 경주최씨에서 분적한 성씨로 전해지기도 한다. 안주쌍계파·안주파·영원파·재송파·서산파·평양파가 있다. 『사마방목』에 광주최씨의 과거 합격자는 1명만 나오는데, 1874년(고종 11) 사마시에 합격한 최환규崔煥圭이다. 그는 선산善山에 거주하였으며, 학생 최종국崔宗國의 아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6) 광주석씨

『세종실록』 지리지에 광주석씨는 망성亡姓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의 망성은 이전에 있었으나, 1454년(단종 2) 『세종실록』 지리지를 편찬할 당시에는 없어진 성을 말한다.

시조 석함石涵은 조선조에 현감을 지냈다고 전해오나 정확한 문헌이 없어 본관의 유래와 세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사마방목』에 따르면, 1507년(중종 2) 사마시에 합격한 석맹희石孟熙가 광주석씨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망성은 아닌 듯하다. 선조대에도 두 명의 합격자가 나오는데, 1579년(선조 12) 식년시 병과에 급제한 석함石涵과 1570년(선조 3) 사마시

에 급제한 석수복石壽福이 그들이다. 석함의 아버지는 석수도石守道로 통훈대부 전의감과 봉사를 지냈다.

7) 광주노씨

광주노씨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가속성으로 나오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나오는 성씨이다. 『사마방목』에는 1717년(숙종 43) 노진중盧振宗의 아들 세태世泰와 1777년(정조 1) 유학 희범熙範의 아들 태열泰說, 그리고 1894년(고종 31) 응주應疇의 아들 수번秀蕃이 사마시에 합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펴낸 『성씨의 고향』에 따르면, 강화에서 분파한 사족의 후예 필상彌商이 통정대부를 지낸 뒤 광주에 대대로 거주하였고, 그의 후손들이 광주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삼았다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8) 광주장씨

『세종실록』 지리지에 가속성으로 나오는 광주장씨의 세계는 알 수 없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마방목』에 의하면, 1705년(숙종 31) 장익제張翼齊의 아들 태갑台甲이 사마시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광주변씨 · 광주현씨 · 광주임씨 · 광주정씨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나, 『사마방목』에 나오는 성씨로 광주변邊씨 · 광주현玄씨 · 광주임林씨 · 광주정鄭씨가 있다. 이들의 선조나 세계에 대해 알 수는 없으나, 『사마방목』을 통해 그 성씨의 맥락을 간략히 살펴보자.

우선 광주변씨는 1792년(정조 16) 사마시에 합격한 변상찬邊相璨이 있다. 광주현씨의 경우, 1627년(인조 5)에 합격한 현적玄績과 1639년(인조 17)에 합격한 현득초玄得初가 있다. 광주임씨의 경우 두 명의 사마시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1894년(고종 31)에 합격한 임태하林泰河와 같은 해에 합격한 임태일林泰一이다. 마지막으로 광주정씨의 경우 다섯 명의 합격자가 있다. 1627년(인조 5)에 합격한 정희鄭懷, 1650년(효종 1)에 합격한 정원경鄭原慶, 1660년(현종 1)에 합격한 정하경鄭夏慶, 1885년(고종 22)에 합격한 정면조鄭冕朝와 1894년에 합격한 정창조鄭昌朝 등이다.

2. 주요 세거성씨

1) 진주강씨

진주강씨晉州姜氏의 시조는 고구려의 병마도원수를 지낸 이식以式으로 전한다. 세거가 확인되는 마을은 삼동(광남동), 중부면 광지원리, 도척면 유정리, 곤지암읍 하열미리, 목현동(송정동) 조현 등이다.

삼동의 내곡(안가지울)에는 조선 중기 이후 분화된 통계공파의 진천군 후손들이 입향하여 집성촌을 형성했다. 입향조는 15대조 강윤동姜潤東이라고 전한다. 현재 삼동에는 진천군 후손들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으나 집성촌의 성격은 거의 없어졌다. 후손이 조선 후기의 교지와 호구, 일제강점기 당시의 토지문서류 등을 소장하며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중부면 광지원리에는 숙종대부터 입향하여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했다는 기록이 있다. 박사공파의 후손인 강빈姜濱(1644~1707)이 경기도 이천에서 중부면 광지원리로 입향, 집성촌을 이루어 한때 50여 호에 이르렀지만 2000년대를 전후하여 그 수가 줄어들었다.

도척면 유정리 운정동에는 박사공파 후손들이 1750년대에 입향하여 세거하고 있으며, 인근 상림1리 시어골에도 큰 규모의 집성촌을 형성했다는 기록이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도척면 일대에 약 30여 호가 세거했으나 이후 세거성씨로서의 위세는 약화되었다.



진주강씨 진천군파 세언공계 재실 내곡재(삼동)

2) 능성구씨

능성구씨綾城具氏의 시조는 고려 시대 교정상장군을 지낸 구존유具存裕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마을은 곤지암읍 하열미리와 삼리, 탄벌동(송정동), 그리고 목동(광남동) 등이다.

역사적인 유래나 지명도 등을 감안할 때 대표적인 세거마을은 하열미리이다. 이곳의 입향조는 조선 전기의 문신인 구치관具致寬이다. 마을 앞 곤지암천 절벽에 백인대라는 정자가 있는데, 하열미 출신으로 조선



능성구씨 구치관 신도비(곤지암읍 하열미리)

중기 인물인 구문찬具文燦이 우암 송시열宋時烈과 강론을 나누던 곳으로 유명하다. 구한말 문인으로 이름을 날린 구학서具學書는 「열미의 십육경가」에서 마을의 빼어난 풍광을 노래했다. 하열미리 마을을 중심으로 인근에 70호 이상이 세거하고 있다.

한편, 목동에는 구치관의 조부로 고려 말에 도원수를 역임한 구성노具成老의 묘를 비롯한 묘역과 사당, 재실이 있다.

3) 경주김씨

경주김씨慶州金氏의 시조는 김알지金閼智에서 시작한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오폐읍 능평리, 중부면 불당리, 곤지암읍 하오향리, 도척면 방도리 등이다.

오폐읍 능평리는 김알지의 43세손 계림군 김균金龜을 파조로 모시는 대표적인 집성촌이었다. 또한 인근인 오폐읍 고산리 고잠동 마을에는 근대의 유명한 한글학자인 김윤경金允經이 태어난 곳이며 집성촌으로 알려져 있다.

중부면 불당리에는 계림군 16세손 응집이 1700년대 초에 입향한 뒤 오랫동안 집성촌을 형성하여 세거해 왔음이 확인된다.

도척면 일대에도 경주김씨의 세거가 곳곳에서 확인된다. 문헌과 현지 조사로 확인되는 대표적인 마을로 방도리 방등곡, 상림1리 시어골, 도웅1리 독고개 마을, 도웅2리 웅골, 진우2리

새터말, 진우3리 부채골 등이다. 그밖에 역동(경안동), 목현동(송정동) 용생골마을에 김씨가 세거한 흔적이 확인되나 개발과 산업화의 영향으로 그 세가 크게 약화되었다.

4) 광산김씨

광산김씨光山金氏의 시조는 신라의 왕자인 김흥광金興光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퇴촌면 무수리, 곤지암읍 신대리 등이다.

퇴촌면 무수리 전체는 광산김씨의 세거지로 알려져 있다. 세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로 김익훈金益勳과 김상악金相岳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이름을 날렸으며 무수리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특히 윗무술마을은 광산김씨가 묘를 쓰면서 대대로 집성촌을 형성하여 세거해 온 곳이다.

5) 안동김씨

안동김씨安東金氏의 시조는 신라 말 인물로 삼한벽상공신인 김선평金宣平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초월읍 도평리와 쌍령동(경안동) 등이다.

초월읍 도평리 상도평마을은 안동김씨의 세거지로 알려져 있으며, “숙승의 5대손 수를 중시조로 하는 서운관정공파로서 수신이 세거를 시작했다”고 한다.



안동김씨 서운관정공파 광모선재(초월읍 지월리)

그리고 쌍령동(경안동) 김촌말은 안동김씨 시중공파 후손들이 대대로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한 곳이다. 시조의 6세손 김학금鶴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 김만영金萬英이 조선 인조 때 마을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지금도 쌍령동과 경안동을 중심으로 많은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 또 도척면 상림1리 시어골에도 대성을 이루고 세거하였다.

6) 의령남씨

의령남씨宜寧南氏의 시조는 신라 경덕왕대에 경북 영양에 정착한 남민南敏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직동·삼동(광남동) 등이다.

직동(광남동) 곧은골은 남씨의 선대 묘역과 함께 오랜 세거지로 알려진 곳이다. 입향 시점은 임진왜란 이전으로 보이며 조선의 개국공신 충경공 남재南在의 후손들이 정착한 세거지로 현달한 조상들의 묘와 함께



의령남씨 재실(직동)

사당이 있다. 그중에는 조선 명종대 문신으로 예조참판을 역임한 남세건南世健, 선조대 문신인 남호南琥, 선조대 문신으로 병조참판을 역임한 남이신南以信 등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직동에는 사당과 재실이 소재하며 인근에 주택 단지와 빌라 등이 속속 건립되어 외지인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나, 20여 호 내외 규모의 집성촌을 유지하고 있다.

삼동(광남동) 내곡에는 남재의 후손 중 창명공파 후손이 입향하여 세거하고 있다. 그밖에 장지동(광남동) 전지(앞가지) 마을도 남씨가 세거했던 마을로 알려져 있다.

7) 남평문씨

남평문씨南平文氏의 시조는 신라 자비왕대 인물인 문다성文多省으로 알려져 있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곤지암읍 봉현리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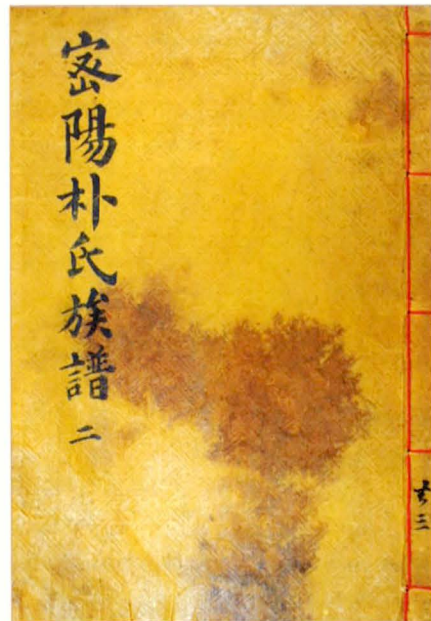
곤지암읍 봉현1리에 조선 후기 무렵부터 집성촌을 형성하여 세거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약 40호 정도가 조현鳥峴과 하조현동下鳥峴洞에 모여 살고 있다.

8) 밀양박씨

밀양박씨密陽朴氏의 시조는 신라의 첫 임금 박혁거세朴赫居世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곤지암읍 건업리, 탄벌동·회덕동(송정동), 초월읍 신월리, 오폐읍 고산리·문형리 등이다.

곤지암읍 건업리의 입향조는 박안국(朴安國)으로, 일대에 박씨가 세거한 시점은 임진왜란 이후로 추정되는데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은 인조반정이다. 박씨 족보에 “1623년 인조반정 당시 화를 피하여 실촌읍 건업리로 낙향하니 이것이 밀양박씨가 건업리에 세거하게 된 동기이다”라는 기록에서 그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현재도 건업리 일대를 중심으로 70여 호 규모의 큰 집성촌을 유지하고 있다.

초월읍 신월리에는 박안국의 4세손이 입향하여 세거를 시작하였다. 신월2리 신단마을(사기마골)에 밀양박씨가 세거한 기록이 있다. 마을의 입향과 관련된 인물은 박선원과 박종근 등이다. 이들은 효종대 수어청 기부금을 납부하여 교지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을 비롯한 박씨 묘역이 신월리에 조성되었으나 당대 석물은 없고 6·25전쟁 이후 재실을 비롯하여 석물을 차례로 조성하는 등 후손들이 현양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밀양박씨 족보』

탄벌동(송정동)의 탄동(숫가마골)에는 조선 중종대 어모장군인 박설령(朴洙齡)의 후손들이 조선 중기부터 입향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하며, 현재도 20호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초대 대한상공회의회 회장을 역임한 두산그룹의 창시자인 박두병(朴斗秉)의 묘와 그 후손들 일부가 살고 있다.

이웃한 회덕동(송정동)의 제청말도 조선 중기 무렵 입향하여 대성을 이루며 세거한 마을로 알려져 있다. 또 목현동(송정동) 목감(모개미) 마을과 장지동(광남동) 앞가지 마을에도 박씨가 몇 호를 형성하고 있다.

오포읍 고산리와 문형리 일대에도 박씨의 세거가 확인된다. 참의공파가 고산리 구미동(구미말)에 17세기경에 입향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그리고 문형리 봉골에도 박씨가 마을을 형성하여 세거했으며, 진해촌에도 그 사실이 확인된다. 최근 각 종중에서 세운 비석과 재실 등이 국도변에 속속 건립되고 있다. 그밖에도 곤지암읍 상오향리 박촌말에는 약 400년 전부터 세거해 왔다는 기록이 있으며, 중부면 불당리와 역동(경안동)에도 집성촌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9) 경주손씨



경주손씨 손식 사당 충사각(오포읍 능평리)

경주손씨(慶州孫氏)의 시조는 신라 흥덕왕대에 월성군에 봉해진 손순(孫順)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중부면 상변천리와 하변천리 일대이다.

상변천과 하변천에 손씨가 입향한 시점은 조선 후기로 추정되며, 이 일대에 정착한 후손은 사호공파이다. 특히 상변천리 관청수 마을에 집중적으로 세거했다는 기록이 있다. 종중 인사에 의하면 “상하변천리 일대에 사호공파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지금도 100여 호에 이른다”고 한다. 해마다 가을 시제 때면 상변천리와 하변천리 일대 경주손씨 사호공파 종손들이 대형 버스 두 대를 동원하여 시제에 참가하고 있다. 그밖에 오포읍 능평리도 손씨의 세거지로 알려져 있으며, 선조인 양무공 손식(孫湜)의 사당인 충사각(忠祠閣)이 건립되어 있다.

10) 여산송씨

여산송씨(礪山宋氏)의 시조는 고려 진사로 여산군에 봉해지고 추밀원부사에 추증된 송유익(宋惟翊)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곤지암읍 상오향리 등이다.

상오향리에는 송씨가 대성을 이루어 살았다는 분명한 근거로 송촌(宋村)이란 마을 명칭이 있을 정도이다. 처음 입향한 시기는 17세기 중엽 정도로 추정되는데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이

름을 날린 송일宋驥의 후손들이 마을을 형성하였다. 특히 상오향리 북쪽의 능골에는 송씨 종중의 묘역이 크게 형성되어 있으나, 개발의 여파로 외지로 많이 나간 까닭에 몇 가구 남아 있지 않다.

11) 평산신씨

평산신씨平山申氏의 시조는 고려개국원훈대장군인 신숭겸申崇謙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도척면 진우3리 부채골 등이다.

12) 청송심씨

청송심씨靑松沈氏의 시조는 고려조 인물인 심홍부沈洪孚로 알려져 있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퇴촌면 도수2리 수동리(참샘이), 남종면 검천리 등이다.

심씨가 퇴촌면에 입향한 시기는 17세기 초이며, 임진왜란 당시 공을 세운 심우승沈友勝의 후손들이 정착, 집성촌을 형성하였다. 퇴촌면 도수2리 수동리 곳곳에서 심씨의 세거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도수리 산70번지에 심우승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그밖에 남종면 검천리 일대에 수백 년 전에 입향하여 세거했다고 하며, 현재는 10호 내외 정도가 남아있다.

13) 순흥안씨

순흥안씨順興安氏의 시조는 고려조 인물로 상장군에 추봉된 안자미安子美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퇴촌면 도수리·오리·정지리, 도척면 방도리·궁평리 등이다.

순흥안씨 족보 『경신보庚申譜』에 의하면, 10세 안구安玖대 이후로 광주에 터를 잡았고,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광주 일원에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순흥안씨 세장지(퇴촌면 도수리)

1980년대 조사 당시에도 세거성씨로 조사된 바 있다.

안씨는 퇴촌면 일대와 도척면 일원에서 대성을 이루고 살았다. 퇴촌면 오리에는 조선 중기부터 입향하여 세거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도수1리의 도지동과 정지리 등도 오랜 세거지이며 수십 호가 집성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도척면에는 궁평리·도옹리·방도리에서 세거가 확인된다. 궁평리는 임진왜란 당시 경상북도에서 난을 피해 이곳으로 와서 정착한 이후 현재까지 대성을 이루며 세계를 이어가고 있다. 방도1리의 공말, 도옹2리 웅골에도 대성을 유지하며 세거했다.

14) 함양여씨

함양여씨咸陽呂氏의 시조는 당(중국)의 한림학사로 있다가 고려로 들어와 전서典書를 지낸 여어매呂御梅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남종면 도수리·수청리, 퇴촌면 광동리 등이다.

함양여씨 족보에 의하면, 14세 여운수呂允秀 이래로 광주와 양평을 중심으로 하여 경기도 지역에 후손들이 살기 시작했고,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와 1980년대 조사에서도 광주에서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남종면 수청리 일대가 대표적인 세거지이나 현재는 몇 가구 남아있지 않다. 입향 시점은 조선 중기로 추정되며, 여유길呂裕吉, 여이징呂爾徵, 여성제呂聖齊 등 문신으로 3대에 걸쳐 명성을 날렸던 인물과 관련이 깊다. 수청리와 함께 퇴촌면 광동2리의 광복동(광백이) 마을에도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하였다.

15) 곡산연씨

곡산연씨谷山延氏의 시조는 고려시대에 문하시랑을 지낸 연계령延繼寧이고, 중시조는 고려 충렬왕대에 좌복시를 역임한 연수창延壽昌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도척면 상림리·노곡리 등이다.

상림리와 노곡리는 대표적인 세거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상림리 석덕산에는 곡산연씨의 중시조인 애남공의 묘소가 있다. 1549년(명종 4) 기유사화 때 연씨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당시 7세 된 애남공을 유모가 등에 업고 야음을 틈타 도착한 곳이 상림리였다고 한다. 그 곳에서 승방을 차린 후 승려 행세로 화를 피하였고, 계속 살면서 그 자손이 번창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도척면 상림리와 노곡리 일대를 중심으로 수십 호가 세거하고 있다.

도척면에 세거하는 연씨는 15세 선공감역 연철조延徹祖의 후손들이며, 감역공파로 분파하고 감역공파대종회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16) 파평윤씨

파평윤씨坡平尹氏의 시조는 고려 태조를 도와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공을 세우고 삼중대광 태사에 이른 윤신달尹莘達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곤지암읍 하오향리 등이다.

파평윤씨 족보 『갑자보甲子譜』에는 전서공 윤시尹恃의 자손들로 17세 복흥復興대부터 21세 효정孝貞대에 걸쳐 광주를 비롯하여 여주, 양주, 양평 등지에 산거했다는 기록이 있다. 곤지암읍 하오향리 윤촌尹村에는 조선 중기 무렵인 약 400년 전부터 집성촌을 형성했다고 하며, 현재도 약 40여 호가 집성촌을 유지하고 있다. 그밖에 경안동 서남쪽 해태아파트가 있는 안골은 파평윤씨의 오래된 세거지인데 개발 여파로 몇 가구만 남고 대부분 외지로 이주해 갔다.

17) 전주이씨

전주이씨全州李氏의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오폐읍 고산리, 곤지암읍 부항리, 도척면 진우리 등이다. 오폐읍 고산리 고잠동에 세거한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곤지암읍 부항리 새낭골에는 조선 후기부터 입향하여 세거해 오고 있다. 또 도척면 진우2리 새터말에는 약 150여 년 전부터 대성을 이루어 세거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퇴촌면 도수3리 삼백골과, 장지동(광남동) 옷말에도 이씨가 세거했음이 확인되는 곳이다.

18) 한산이씨

한산이씨韓山李氏는 이윤경李允卿을 시조로 하는 호장공계와 이윤우李允祐를 시조로 하는 권지공계로 나누어진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중부면 상변천리와 퇴촌면 오리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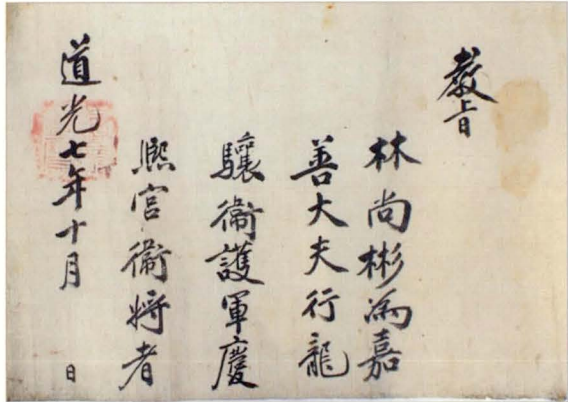
중부면 상변천리 안골에는 호장공계의 후손들이 정착하여 집성촌을 이루었고, 한산이씨 세장지가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정기李廷夔가 있으며, 묘역과 함께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

퇴촌면 오리에는 조선 후기에 양근군수를 지낸 이석근李石根이 마을에 들어와 그 후손들이 세거를 이어오고 있으며, 장지동(광남동) 옷말도 한산이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한 곳이다.

19) 평택임씨

평택임씨平澤林氏의 시조는 고려 말에 전객령을 지낸 임세춘林世春을 중시조로 하여 임정과 임경업을 중심으로 하여 임수겸林守謙으로 이어지는 전객령파와 임팔급林八及의 후손으로 고려 말에 평성부원군에 봉해진 임언수林彦脩를 1세로 한 충정공파로 나누어진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삼동(광남동) 등이다.

특히 삼동 내곡(안가지울) 마을은 갈곡공파로 가선대부 임대현林大玄의 후손들이 입향하여 세거해 오고 있다. 많은 호수는 아니지만 안가지울을 중심으로 세거성씨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평택임씨 임상빈 교지

20) 인동장씨

인동장씨仁洞張氏의 시조는 고려조에 예문관직제학에 이르고 옥천군에 봉해진 장계張桂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초월읍 선동리 등이다.

인동장씨 족보에는 광주와 관련된 세거 현황이 곳곳에 보인다. 먼저 7세 장선손張善孫이 서울의 창동에서 경기도 광주로 옮겨갔고, 8세 맹익孟翼은 광주에서 다시 충북 단양으로 옮겨 집성촌을 형성했다고 한다. 8세 맹귀孟貴는 광주에 살았으며, 후손들이 광주를 떠나 개풍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한편 한양에 거주하던 7세 순손順孫의 아들 명원明遠이 광주로 옮겨와 살았다는 기록도 전한다.

관내에는 초월읍 선동리에 집중적으로 모여 산다. 마을의 역사적인 인물로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한 장차주張次周가 있다.

종손의 구술에 따르면 선동2리 입향조는 장시현張始顯이다. 현재 선동2리 선장동(선장골)을 중심으로 20여 호 정도가 여전히 집성촌을 형성하면서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며 거주하고 있다. 최근 사당과 함께 종중 시설의 개보수 등 각종 현양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밖에 신월3리 탄동마을에도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했다고 한다.

21) 동래정씨

동래정씨東萊鄭氏는 보훈공 정지원鄭之遠을 기세조起世祖로, 안일호장을 지낸 정회문鄭繪文을 시조로 삼고 있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장지동(광남동) 후지와 담안, 오폭읍 능평리 용산골, 곤지암읍 상열미리 등이다.

정씨 파보에 의하면 장지동 후지後枝, 즉 뒷가지 마을은 동래정씨의 오랜 세거지이다. 그중 장내(담안) 마을은 전체가 조정에서 내린 사패지에 해당할 정도로 정씨와 관련이 깊다. 이 일대에 세거한 시점은 조선 전기 문신인 15세 정광세鄭光世가 뒷가지 마을 뒷산에 묻힌 시점 전후라고 한다. 사후 인조로부터 불천지위不遷之位를 하사 받은 충정공 정홍익鄭弘翼의 묘도 이곳 장지동에 있다. 묘역과 함께 국도변 차량등록사업소 건너편에 동래정씨 세거지를 알리는 비석이 있으며, 마을 안쪽에 사당과 재실이 있다.

목동(광남동)도 동래정씨가 고려 후기부터 입향하여 세거해 온 마을로 알려져 있다. 현재도 선현 묘역과 사당, 재실이 있다. 그밖에 곤지암읍 상열미리 상열미마을에도 동래정씨가 세거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동래정씨 재실 영모재(장지동)

22) 삭녕최씨

삭녕최씨朔寧崔氏의 시조는 고려조에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낸 최천로崔天老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퇴촌면 도마리와 도수리 등이며, 일제강점기인 1930년 당시에도 퇴촌면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종중에서 가문을 가장 빛낸 인물



태허정 최항 추모 제향

중에 첫 손에 꼽히는 이는 조선 세종조의 명신 최항崔恒이다. 그는 조선 초기의 대학자로 요직을 두루 거쳤고 성종대에는 영의정까지 올랐다. 특히 세종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집현전 8학사 중에 증견학자로 창제과정에 크게 공을 세웠다.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이 깊은 까닭에 해마다 10월 9일이면 최씨 종중과 광주문화원을 중심으로 '태허정 최항 제향' 의식을 거행하여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퇴촌면 도마리 일대에는 문정공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오랫동안 세거해 왔다. 현재도 대종손을 비롯하여 30여 호 정도가 모여살고 있다.

23) 청주한씨

청주한씨淸州韓氏의 시조는 고려 태조 때 개국벽상공신에 오른 한란韓蘭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남종면 귀여리, 퇴촌면 정지리, 역동(경안동) 등이다.

남종면 귀여리의 세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은 조선 중종대의 문신인 한승정韓承貞이다. 그는 청빈으로 후세의 귀감이 되었는데, 그 단적인 예로 죽었을 때 장례 치를 비용조차 없었고 집안에 몇 권의 책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귀여리는 한씨와 깊은 역사적 관련성을 가졌으며, 오랜 기간 대성을 이루며 살았고, 현재도 50여 호 내외의 집성촌을 유지하고 있다. 그밖에 퇴촌면 정지리와 역동(경안동) 일대도 한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금은 그 세가 많이 약해졌다.

24) 양천허씨

양천허씨陽川許氏의 시조는 고려 태조가 후백제를 격파하는데 일조한 대광공 허선문許宣文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초월읍 쌍동리·학동리, 도척면 추곡리 등이다.

대성을 이루어 살았던 지역은 초월읍 쌍동리와 학동리 일대였다. 쌍동리의 중심마을인 도곡에 조선 중기 무렵 입향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고 한다. 전하는 말로는, “쌍동리에 입향하여 마을을 형성한 허씨는 침의 현손 황의 후예들로서 최대 60여 세대까지 번창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개발 여파로 40여 세대로 줄었고 초월읍 학동리의 허씨들도 그 같은 집안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른 마을로는 도척면 추곡리 일대가 있다. 마을의 입향조는 대제학공파의 후손으로서 1600년경에 정착하였다고 전한다.

제7절 광주를 빛낸 인물

1. 고려시대

● 김균金稷 ?~1398(태조 7)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오포읍 능평1리 89-1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실전되었던 것을 후손이 광주유수로 있을 때에 찾아 개축하였다. 본관은 경주慶州. 1360년(공민왕 9) 성균시에 합격한 뒤 우왕대에 친분이 두터운 조준이 실권을 장악하자 전법판서가 되었다. 조선 개국과정에서 태조를 추대하는데 참여, 개국공신 3등에 책록되어 중추원부사에 가자되고 계림군에 봉해졌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의정부좌찬성에 이르렀다. 시호는 제숙齊肅이다.

● 김약시金若時 1335(충숙왕 복위 4)~1406(태종 6)

고려 말기의 문신. 곤지암읍 삼합리 산50-1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광산光山. 1382년(우왕 8)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대과에 급제하여 여러 요직을 거친 후 진현관직제학에 이르렀다. 1392년 고려가 멸망하자 두문동에 들어갔다가 광주 금광동金光洞(현 성남시 금광동)에 은거, 고려왕조에 충절을 지켰다. 1819년(순조19)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 김자수金自粹 1350(충정왕 2)~1413(태종 13)

고려 말기의 문신. 오포읍 신현2리 산120-1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순중純仲, 초명은 자수子粹, 호는 상촌桑村.

1374년(공민왕 23) 문과에 을과 제1인으로 급제, 덕령부주부가 되었다. 우왕 초 정언으로 있을 때 교서 작성을 거부한 죄로 돌산에 유배된 후 전교부령과 판사제시사를 거쳐 1390년(공양왕 2) 성균관제주로 세자시학이 되었다. 그 후 성균관대사성 세자좌보덕이 되고, 1392년 판전교시사 좌우상시에 오른 후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고려 말 정세가 어지러워지자 일체의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안동에 은거하였다. 조선이 개국된 뒤 태종이 형조판서로 불렸으나 나가지

않고, 자손에게 비석을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결하였다. 문장에 뛰어나 그의 시문이 『동문선』에 실려 있으며, 묘는 경기도 기념물 제98호로 지정되어 있다.

● 안성安省 1344(충혜왕 5)~1421(세종 3)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직동 광주안씨 세거지에 묘소가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광주안씨 입향시조, 자는 일삼日三, 초명은 소목少目, 호는 설천雪泉·천곡泉谷. 우왕 초에 진사가 되고, 1380년(우왕 6) 문과에 급제, 보문각직제학을 거쳐 상주판관이 되어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다.

조선 개국 후 1396년(태조 5) 봉상시소경으로서 현비顯妃의 시호를 잘못지어 축산으로 유배되었다. 1400년(정종 2) 중승을 거쳐 지보주사가 되고 1411년(태종 11) 참지의정부사로 정조사가 되어 명에 다녀와 강원도관찰사가 되었다. 조선왕조 최초의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후에 평양백에 봉해지고 개성유후사유후를 지냈다. 시호는 사간思簡이며, 장수의 창계서원에 배향되었다.

● 이양중李養中 1348(충목왕 4)~1424(세종 6)

고려 말의 절신. 광주 남한산 아래에서 은거하였고, 초월읍 신월리 산22-1에 재실인 고덕재와 묘, 묘갈이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자정子精, 호는 석탄石灘.

고려 말에 형조참의에 이르렀으나 조선 개국 후 은거하다가 귀양을 가기도 했다. 1400년 태종이 즉위하여 검교한성윤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태종의 후의가 지극하였으나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 광주(하남)의 구암서원에 배향되었다.

● 이집李集 1314(충숙왕 1)~1387(우왕 13)

고려 후기의 학자·문인. 성남에서 이장된 묘가 초월읍 신월리에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초명은 원령元齡, 자는 호연浩然, 호는 둔촌遁村. 광주이씨의 시조로 알려진 당唐의 둘째 아들이다.

충목왕 때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문장을 잘 짓고 지조가 높았다. 1371년(공민왕 20) 신돈이 주살되자 개경으로 돌아와 판전교시사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하고, 여주 천녕현에서 자연에 묻혀 살면서 시를 지으며 일생을 마쳤다. 당시 60여 명에 달하는 많은 인물들과 교유하였는데, 특히 이색·정몽주·이승인 등 삼은三隱과 교분이 두터웠다. 세 아들과 후손들이 현달하

여 광주이씨를 조선시대 대표적인 가문으로 중흥시켰다. 저서로 『둔촌유고』가 있다.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구암서원에 배향되었다.

2. 조선시대

● 각성覺性 1575(선조 8)~1660(현종 1)

조선 중기의 승려·승병장. 중부면 산성리 75-1 청량당에 봉안되었다. 속성은 김씨, 법명이 각성이다. 자는 징원澄圓, 호는 벽암碧巖. 1584년 10세에 출가하여 설묵의 제자가 되고, 14세에 다시 선수의 제자가 되어 속리산·가야산·금강산 등지를 전전하며 불경을 공부하였고 임진왜란 때 해전에 참여하였다. 1624년 남한산성을 축성할 때 팔도도총섭에 임명되어 승군을 이끌고 3년 만에 축성을 완성하니, 조정에서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의 직함을 내렸다. 1636년 병자호란으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자 전국 사찰에 격문을 보내어 3,000명의 의승군을 모집하여 향마군이라 이름을 짓고 남한산성으로 향하던 중 전쟁이 끝나자 승병을 해산하고 지리산에 들어갔다. 저서로 『선원집도중결의』, 『간화결의』, 『석문상의초』가 있고, 편저로는 스승 선수의 시문집인 『부휴당집』이 있다.

● 구치관具致寬 1406(태종 6)~1470(성종 1)

조선 전기의 문신. 곤지암읍 열미리 산3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이율而栗·경율景栗. 1434년(세종 16) 알성문과 을과 3등으로 급제, 승문원정자에 임명된 후 예문관검열·승정원주서·사헌부감찰·황해도도사를 거쳐 병조정랑·의정부검상·사복시윤을 역임하였다. 1453년(단종 1) 계유정난 직후 함길도에 파견되어 경성부사 이경유를 참살하고 보공대호군에 승진, 동부승지·좌승지에 임명되었다. 세조가 즉위하자 좌익공신 3등에 책록되고 이조참판에 승진되어 능성군에 봉해졌다. 1457년(세조 3) 예종의 세자 책봉을 위해 주청사의 부사로 청에 다녀와 호조참판이 되고, 이어 평안도절도사·우찬성·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다. 이때 건주위建州衛의 여진족이 변경을 침범하자 진서대장군이 되어 이를 토벌하고, 1468년 예종이 즉위하자 원상院相으로 호조판서를 겸직하였다. 이듬해 성종이 즉위하자 다시 원상이 되어 이조판서를 겸직하고 후에 청백리에 녹선, 좌리공신 2등에 추록되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 권일신 權日身 1742(영조 18)~1791(정조 15)

조선 후기의 학자·천주교인. 퇴촌면 우산리 500번지 천진암 터에 묘가 있다. 본관은 안동 安東, 자는 성오省吾, 호는 목암穆庵, 세례명은 프란시스 사비에르. 권철신의 동생이며, 실학자 안정복의 사위이다. 남인계열의 학자로 양명학을 연구하다가 1782년(정조 6) 이벽의 권유로 천주교에 입교, 이승훈에게 영세를 받았다.

1785년에 역관 김범우의 집에서 집회 도중 이른바 ‘추조적발사건’에 연루되었으나 학행과 가문의 덕으로 무사하였다. 그러나 1791년 ‘진산사건(신해박해)’ 때에 다시 체포되어 제주도에 유배당하게 되었으나 도중에 예산으로 바뀌어 배소로 가는 도중 사망하였다.

● 권철신 權哲身 1736(영조 12)~1801(순조 1)

조선 후기의 학자·천주교인. 퇴촌면 우산리 500번지 천진암 터에 묘가 있다. 본관은 안동 安東, 자는 기명旼明, 호는 녹암鹿庵, 세례명은 암브로시오. 성호 이익의 문인이다.

1777년(정조 1)부터 천진암 주어사에서 김원성·정약전·정약용·이벽 등 남인계열의 학자들과 서학교리연구회의 모임을 갖고 천주교에 입교, 신자가 되었다. 1791년 신해박해 때에 체포되었으나 학문적 차원에서 교리를 통해 신앙생활만 한 것이 인정되어 화를 모면하였다. 그러나 1800년 정조가 급서하고 노론벽파가 득세하면서 일으킨 신유박해에 연루되어 혹심한 형벌로 인한 장독으로 옥사하였다. 이익의 제자이자 남인학파의 리더로서 가족과 함께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서학파의 대가로 손꼽힌다.

● 김감 金勘 1466(세조 12)~1509(중종 4)

조선 중기의 문신. 초월읍 지월리 산69-1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자헌子獻, 호는 일재一齋·선동仙洞. 1489년(성종 20) 진사가 되고, 이어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정자가 되었다. 유송조·정여창 등과 천문·역법을 연구하고, 1498년(연산군 4) 홍문관 부교리가 되었으며, 이어 교리·응교·전환을 거쳐 직제학이 되었다. 1501년 부제학에 이어 병조참지·동부승지·우부승지·우승지를 거쳐 도승지에 이르고, 다시 호조참판·동지성균관사·지의금부사를 거쳐 홍문관대제학이 되었다. 임사홍과 갑자사화를 처리하고 예조판서가 되어 연산군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경서문敬誓文을 찬진하는 등 아첨하였다. 중종반정에 협

력, 정국공신 2등에 책록되어 연창부원군에 봉해지고 감춘추관사가 되어 『연산군일기』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 김상헌金尙憲 1570(선조 3)~1652(효종 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淸陰·석실산인石室山人·서간노인西礪老人. 1590년(선조 23) 진사가 되고, 1596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권지승문원부정자가 된 후 부수찬·좌랑·부교리를 거쳐 고산찰방과 경성도호부판관을 지냈다. 1608년(광해군 1) 증시문과에 급제, 사가독서 후 교리·응교·직제학을 거쳐 동부승지가 되었으나 정인홍을 탄핵하였다가 광주부사로 좌천되었다. 1613년의 '칠서지옥七庶之獄' 때에 김제남과의 인척관계로 파직되자 안동 풍산에 이거, 피신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이조참의에 발탁되자 공신세력의 보합위주 정치에 반대, 시비와 선악을 엄격히 구별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청서파淸西派의 영수가 되었다. 대사간·이조참의·도승지·부제학·성균관제학·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병자호란 때에는 끝까지 주전론主戰論을 펴다 안동에 은퇴하였다. 1639년 청의 출병요구에 반대 상소를 올렸다가 청에 압송되어 6년 만에 방면 귀국하였다. 1645년 좌의정에 잠시 특제되었다가 기사蜚社에 들어갔다. 1661년(현종 2) 효종 묘정에 배향되고, 1653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양주 석실서원·개성 송양서원 등에서 제향한다. 저서로 『청음문집』 40권이 전한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며, 남한산성 현절사에 배향되었다.

● 김윤식金允植 1835(헌종 1)~1922

한말의 문신·문장가. 중부면 산성리 1223에 영세불망비가 있다. 남종면 귀여리 출생.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순경洵卿, 호는 운양雲養. 1874년(고종 1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황해도 암행어사·문학·부응교·부교리·승지 등을 역임하고 1880년 순천부사에 제수되었다. 1881년 영선사로 학도와 공장工匠을 인솔하여 중국에 다녀오는 한편 이홍장과의 회담으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케 하였다. 임오군란 중에는 청에 파병을 요청하는 동시에 흥선대원군 제거 방략을 제의, 청의 개입을 주도하였고, 군란 수습 후 중용되어 호군·강화부유수에 임명되어 규장각직제학을 겸임하였다. 협판통리내무아문사무·협판군국사무에 임명되었으며, 갑신정변 당시 김홍집 등과 함께 청의 구원을 요청하였다. 정변 이후 병조판서를 거쳐 독판교섭통상사무가 되어 대외관계를 담당, 친청親淸노선을 한층 굳혀갔다.

김홍집 내각에 중용되어 군국기무처 회의원이 되어 갑오경장에 참여하는 한편, 재차 독판 교섭통상사무에 임명되고, 정부기구의 개편에 따라 외무아문대신이 되어 일본에 의해 국권이 잠식당하는 모든 조약이나 조처에 순응하였다. 1896년 아관파천으로 면직, 을미사변과 관련된 일로 탄핵되어 제주목에 종신징배되어 1898년 초 제주목에 유배되었다. 1907년 일진회의 탄원과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석방 조치로 10년 만에 방면되어 서울에 돌아왔다. 이후 황실제도국총재·제실회계감사원경·중추원의장 등을 맡아 보고, 1908년 정부로부터 훈일등 태극장을 받았다.

한말 계몽운동기에는 기호학회, 흥사단, 대동교총회의 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1916년 경학원대제학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용직 등과 함께 독립을 요구하는 「대일본장서」를 제출하였다. 저서로는 『운양집』, 『임신영고』 등이 있다.

● 맹사성 孟思誠 1360(공민왕 9)~1438(세종 20)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직동 산27에 경기도 기념물 제21호로 지정된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신창新昌, 자는 자명自明, 호는 고불古佛.

1386년(우왕 12)에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춘추관검열이 되고 이어 전의시승·기거랑·사인·우헌납 등을 거쳐 외직으로 수원판관이 되었다가 내직으로 내사사인이 되었다. 조선 건국 후 예조의랑·이조참의를 거쳐 1407년(태종 7) 예문관제학 때 세자가 진표사로 명에 가는 길에 시종관으로 수행하여 다녀왔다. 충주목사·이조참판·예조판서를 역임하였으며, 노부老父의 병간호를 위해 사직을 원하였으나 윤택되지 않았고, 충청도관찰사가 되어 노부를 봉양하였다. 이후 공조판서·이조판서·예문관대제학·의정부찬성사가 되고, 1425년(세종 7) 판좌군도총제부사로서 성절사가 되어 명에 다녀와 문신으로는 최초로 삼군도진무가 되었으며, 1427년 우의정이 되었다. 1429년 궐장을 하사받고 『태종실록』을 감수, 1431년 좌의정에 올랐으며, 이듬해 영춘추관사를 겸하여 『팔도지리지』를 찬진하고, 1435년 치사致仕했다. 시문에 능하고 음률에도 밝아 향악을 정리하고 스스로 악기를 제작했다. 청백리에 녹선되고 효자정문이 세워졌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 민영 閔穎 1587(선조 20)~1637(인조 15)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정보正甫.

1620년(광해군 12)에 무과에 급제하여 의주부윤을 지내고 1635년(인조 13) 경상우도병마절도사에 승진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척화론을 주장하였다. 인조가 남한산성에 포위되어 있을 때 군사를 이끌고 상경하다가 광주의 쌍령전투에서 경상좌도병마절도사 허완과 함께 청의 기병들과 싸웠다. 그러나 적의 기마병 3,000명이 습격해 병사들이 산산이 흩어지고 거의 전멸상태에 이르렀다. 민영은 부하들의 후퇴 권유를 뿌리치고 적을 맞아 수십 명의 적군을 죽이고 전사하였다. 1701년(숙종 27) 신료들의 건의에 의하여 정려를 세웠다. 1755년(영조 31) 병자호란 때의 척화절인 26인의 치제를 건의할 때 뽑혔으며, 이듬해 증시贈諡가 내려졌고, 뒤에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광주의 정충묘에 배향되어 매년 음력 정월 3일 전망戰亡일에 광주시와 광주문화원 주관으로 제향하고 있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 선세강宣世綱 1576(선조 9)~1636(인조 14)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보성寶城, 자는 사거士舉, 호는 매곡梅谷.

1603년(선조 36) 무과에 급제, 1618년(광해군 10) 벽단진첨사를 거쳐 경기중군이 되어 영평산성을 감축監築했다. 홍주영장을 거쳐 안동영장이 되어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경상좌도병마절도사 허완과 함께 광주의 쌍령에서 우세한 적과 대전하여 많은 적을 죽였으나 패전하고 전사했다.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장흥의 포충사, 보성의 오충사에서 제향하고 있으며, 민영·이의배·허완 등과 함께 광주 정충묘에 배향되었다.

● 신립申砬 1546(명종 1)~1592(선조 25)

조선 중기의 무신. 곤지암읍 신대리 산1-1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입지立之.

1567년(선조 즉위) 무과에 급제한 뒤 선전관을 거쳐 도총부도사·경력을 지내고 진주판관이 되었다. 1583년(선조 16) 은성부사가 되어 북변에 침입해 온 니탕개尼湯介를 격퇴하고 두만강을 건너가 야인들의 소굴을 소탕하고 개선, 함경북도병마절도사에 올랐다. 1590년 평안도병마절도사에 보직되고 이듬해 한성부판윤을 거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도도순변사가 되어 빈약한 병력으로 출전, 충주의 탄금대에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대결했으나 참패, 부하장수 김여물과 함께 강물에 투신 자결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 신흙申欽 1566(명종 21)~1628(인조 6)

조선 중기의 문신. 퇴촌면 영동리 산12-1에 묘와 묘표,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경숙敬叔, 호는 현현玄軒·상촌象村·현옹玄翁·방옹放翁.

1585년(선조 18) 진사시와 생원시에 차례로 합격하고 1586년 승사랑으로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나 외숙인 송응개가 이이를 비판하는 탄핵문을 보고 “이이는 사림士林의 중망을 받는 인물이니 심하게 비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한 말로 인하여 정권을 장악한 동인으로부터 종9품직인 성균관학유에 제수되었다. 이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1599년 장남 익성이 선조의 딸인 정숙옹주의 부마로 간택되면서 동부승지에 발탁되었다. 1601년 『춘추제씨전』을 합찬하였고, 1608년(광해군 즉위) 「선조애책문」을 지었다. 인조 즉위 후 이조판서 겸 예문관·홍문관대제학·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학문에 전념하여 벼슬하기 전부터 이미 문명을 떨쳤으며, 장중하고 간결한 성품과 뛰어난 문장으로 인하여 선조의 신망을 받아 항상 문한직文翰職을 겸대하고 대명외교문서의 제작, 시문의 정리, 각종 의례문서의 제작에 참여하였다. 사림의 신망을 받았으며, 이정구·장유·이식과 함께 조선 중기 한문학의 정종正宗 또는 월月·상象·계谿·택澤으로 칭송되었다. 1651년(효종 2) 인조 묘정에 배향되었고, 강원도 춘천의 도포서원에서 제향하고 있다. 편저서로는 『상촌집』, 『야언』 등과 「낙민루기」 외 여러 편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 안정복安鼎福 1712(숙종 38)~1791(정조 15)

조선 후기의 실학자. 중대동 산15-2에 묘가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백순百順, 호는 순암順菴·한산병은漢山病隱. 젊어서는 특별한 사승관계 없이 가학家學을 통해 공부하다가 35세에 이르러 첨성리(현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거주하던 성호 이익을 찾아가 그의 문인이 되었다.

1749년(영종 25) 후릉厚陵 참봉으로 관직을 시작한 이후 의영고봉사·정릉직장·귀후서별제·사헌부감찰·익위사익찬·목천현감 등을 역임하고 79세가 되던 1790년(정조 14)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까지 올랐으나 관운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어려서 할아버지의 임소를 따라 자주 옮겨 다니다가 할아버지가 사망한 이듬해인 1736년(영조 12) 고향인 광주로 돌아와 경안면 덕곡리德谷里에 ‘순암’이라는 조그만 집을 짓고 우거하였는데, 이때부터 그의 학문적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는 정통 주자학과 퇴계 이황의 학문적 입장을 사상적인 배경으로 삼았으나 형이상학적인 이기심성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학문적 여정에 전환점이 된 것은 이익과의 만남이었다. 안정복의 대표적 저술인 『동사강

목』은 주자의 『자치통감강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 그것은 이익의 『자치통감강목』에 대한 비판을 계승한 것이었다. 이 『동사강목』을 계기로 경사일체經史一體의 주자학적 역사 인식은 균열을 일으켜 마침내 주자학을 상대화시키고 조선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실학의 역사 인식을 낳게 되었다. 만년에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되고 광성군에 봉해졌으며, 사후에는 순조대에 척사斥邪의 공으로 좌참찬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하학지남』, 『동사강목』, 『임관정요』 등과 이익의 『성호사설』을 재정리한 『성호사설유선』이 있으며, 반계 유형원의 연보를 찬하기도 하였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 오달제吳達濟 1609(광해군 1)~1637(인조 1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계휘季輝, 호는 추담秋潭.

1627년(인조 5)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634년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정언·수찬·지평 등을 역임하고 다시 수찬으로 있던 1636년에 청의 침략이 임박한 상황에서 청과의 화의를 주장한 주화파 최명길을 논박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파직되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이듬해 화친이 성립되면서 척화파 신료를 보내라는 청의 요구에 윤집과 함께 자청하여 포로로 심양에 끌려갔다. 청의 회유가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여 마침내 순절하였으며, 윤집·홍익한과 함께 삼학사三學士로 불린다. 저서로는 『충렬공유고』가 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현절사와 평택의 포의사, 홍산의 창렬서원, 영주의 장암서원, 강화의 충렬사, 고령의 운천서원에서 제향하고 있다.

● 윤집尹集 1606(선조 39)~1637(인조 1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성백成伯, 호는 임계林溪.

1627년(인조 5)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631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1635년 홍문록에 오른 뒤 수찬·정랑·헌납 등을 역임하였고, 이듬해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 부교리로 있으면서 주화파 대신 최명길을 논박하는 상소를 올렸다. 1637년 화친이 성립되면서 척화파 신료를 보내라는 청의 요구에 오달제와 함께 자청하여 심양에 끌려갔다. 청의 회유가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순절한 삼학사의 한 명이다.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현절사와 평택의 포의사, 홍산의 창렬서원, 영주의 장암서원, 고령의 운천서원, 강화의 충렬사에서 제향하고 있다.

● 이벽李蘊 1754(영조 30)~1786(정조 10)

조선 후기의 학자·천주교도. 광주 출생.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덕조德操, 호는 광암曠庵, 세례명은 요한세자. 과거에 나아가지 않고 포의布衣로 지내면서 근기남인 계열의 권철신·권일신·정약전·정약용 등과 교유하였다. 그는 서학을 탐구하여 천진암 주어사에서 강학회가 열릴 때 권철신 등과 토론하였고, 정약용도 그를 통해 서학을 접하였다.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서를 가지고 돌아온 이승훈으로부터 권철신·권일신 등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후 서울의 수표교에서 교리 공부와 함께 포교에 힘을 쓰다가 1785년(정조 9)의 천주교 적발 및 탄압과 아버지의 반대로 갈등하다가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 『성교요지』가 있다.

● 이손李蓀 1439(세종 21)~1520(중종 15)

조선 초기의 문신. 초월읍 신월1리 산22-1에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자방子芳.

1459년(세조 5) 진사시에 합격한 후 문음으로 관직에 올라 호군으로 재임 중 1470년(성종 1)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그 후 여러 관직을 거쳐 1477년 경차관으로 경상우도에 나갔다가 이듬해 봉상시부정에 제수되었고, 김해부사와 판교를 거쳐 1492년 장예원판결사에 올랐다. 황해도관찰사·충청도관찰사·홍문관부제학·전라도관찰사·예조참판·형조판서를 역임하고, 1506년(중종 1) 중종반정 때 공을 세워 정국공신 3등으로 한산군에 봉해졌다. 이듬해 우참찬으로 승진하고, 좌참찬 재임 중 궤장几杖을 하사받았다. 1513년 한산부원군에 봉해지고 판중추부사를 지냈다. 시호는 호간胡簡이다.

● 이익李穡 1681(숙종 7)~1763(영조 39)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자신子新, 호는 성호星湖.

1682년(숙종 8) 부가 사망한 뒤 선영이 있는 광주 침성리瞻星里(현 안산시 상록구 일동)로 돌아와 어머니 권씨 슬하에서 자랐으며, 둘째 형 이잠에게서 글을 배웠다.

25세 되던 1705년 증광시에 응했으나, 녹명錄名이 격식에 맞지 않았던 탓으로 회시에 응할 수 없게 되었다. 1706년 형 이잠이 왕세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것으로 인해 장살杖殺되면서 과거에 응할 뜻을 버리고 평생을 침성리에 칩거하였다.

1727년(영조 3) 조정에서 학문적 능력을 높이 사 선공감가감역을 제수했으나 나가지 않았다. 1763년(영조 39) 조정에서는 우로예전(優老例典)에 따라 첨지중추부사로서 승자(陞資)의 은전을 베풀었으나, 그해 12월 17일 오랜 병고 끝에 세상을 떠났다.

주자(朱子)에게로만 치우치는 폐풍에서 벗어나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부흥을 기하였다. 또 이이와 유형원의 학풍을 존숭해 당시의 사회 실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무(世務)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재구(材具)의 준비가 있어야만 진정한 학문(實學)이라고 보고 종래의 주자학적으로 경화된 신분관, 직업관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문인으로 안정복, 권철신, 윤동규, 신후담 등이 있어 당대의 학해(學海)를 이루어 그 흐름이 정약용에게까지 미쳤다. 저서로는 『성호사설』, 『사칠신편』, 『사서삼경질서』, 『이자수어』 등이 있다.

● 이형상(李衡祥) 1653(효종 4)~1733(영조 9)

조선 후기의 문신. 퇴촌면 우산리에 묘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중옥(仲玉), 호는 병와(瓶窩)·순옹(順翁). 1678년(숙종 4) 생원시에 합격하고, 1680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여러 관직을 거쳐 호조좌랑으로 재직 중 동지사가 가지고 가는 세폐포(歲幣布)가 병자호란 이후의 보포(報布)보다 9척이나 긴 것을 알고, 이것이 앞으로 폐단이 될 것을 우려하여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리고 보냈다. 금산군수·제주목사·경상도소모사·한성부윤을 역임하였으며 선정을 베풀었다. 1796년(정조 20)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영천의 성남서원, 제주의 영혜사에 제향되었다. 시조에 깊은 관심을 가져 자료를 널리 모았으며, 시조를 한역한 작품 77수를 남겼다. 저서로 『병와집』, 『둔서록』, 『악학편고』, 『성리학대전』 등 다수가 있다.

● 정뇌경(鄭雷卿) 1608(선조 41)~1639(인조 17)

조선 중기의 문신. 광주시 장지동 산61-2에 묘가 있다.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진백(震伯), 호는 운계(雲溪). 1630년(인조 8)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홍문관직 등 청요직을 역임하고 세자시강원의 필선이 되었다. 병자호란으로 1637년(인조 15) 소현세자가 볼모로 청의 심양으로 끌려갈 때 수행원으로 동행하였다. 당시 청에서 벼슬을 하며 모국인 조선에 악행을 저지르던 역관 정명수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들이 조선이 바친 세폐를 빼돌렸음을 고발하였으나, 이미 증거를 없앤 뒤여서 청의 관헌에 잡혀 오히려 사형을 당하였다.

성격이 진실하고 제주도 뛰어났다고 하는데, 대간에 임명되자 을사삼간의 후예라는 이유

로 스스로 파직을 청한 일화는 유명하다. 도승지·이조참판·찬성에 추증되었고, 정조 때 충정충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묘지석과 함은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정약용 丁若鏞 1762(영조 38)~1836(헌종 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나주羅州, 초자初字는 귀농歸農, 자는 미용美鏞, 호는 사암侯菴·자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인鐵馬山人·다산茶山.

10세부터 가학家學으로 학문을 시작하였으며, 1777년(정조 1) 16세 때부터 이가환·이승훈 등으로부터 이익의 학문을 접하였고, 형 정약종과 이벽을 통하여 서학을 접하였다. 1783년(정조 7) 진사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서 공부하였으며, 이때 정조의 과제에 답하여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정조의 탕평책에 의하여 남인계의 인사도 요직에 등용될 때 식년문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예문관검열·사헌부지평·사간원정원·홍문관수찬 등을 거쳐 경기도 암행어사가 되었다.

정약용은 권철신, 이벽, 정약전 등과 함께 천진암 주어사에서 서학을 연구하였다. 그는 문장과 경학에 뛰어났으며, 수원 화성을 쌓을 때는 기중가설에 의한 거중기를 만들어 과학적인 기술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1795년 동부승지에 발탁되어 이후 병조참의·형조참의 등을 차례로 지내는 등 정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다.

왕성한 학문 활동을 하였는데, 조선 사회의 내적 모순을 비판한 정치·경제 개혁론 등을 비롯하여 역사·지리·언어·제도·풍속·문화에 관한 연구와 천문·역학·수학·물리·의학·박물학에 관한 연구, 그리고 고대 유교의 고증에 의한 주자학(성리학) 비판 등 당시 모든 학문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것이었다. 저서로는 『목민심서』를 비롯하여 『흙흙신서』, 『경세유표』, 『아방강역고』, 『아언각비』 등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 조영무 趙英茂 1338(충숙왕 복위 7)~1414(태종 14)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신·개국공신. 퇴촌면 지명의 유래가 된 정승으로, 퇴촌면 광동리 산 16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건아乾也, 호는 퇴촌退村·휴암休巖.

일찍이 이성계의 사병으로 출세하여, 1392년(공양왕 4) 선죽교에서 정몽주를 살해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조선 개국 후 판전중시사로 개국공신 3등에 책록되었고 한산백에 봉해졌다. 이후 상의중추원사로 강계등처도병마사와 충청도도절제사가 되고,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의 편에서 공을 세워 정사공신 1등에 봉해졌다. 참판삼군부사·평양부윤을 거쳐, 태종이 즉위하자 좌명공신 1등에 봉해졌다. 이후 판삼군부사·판승추부사·판이병조사·영삼군부사 등을 역임하였고, 1408년 부원군에 봉해졌다. 1413년 병으로 사직하였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태종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 최항崔恒 1409(태종 9)~1474(성종 5)

조선 초기의 문신·학자. 퇴촌면 도마리 산11에 묘가 있고, 197-8에 사묘가 있으며, 195번지에는 재실인 영모재永慕齋가 있고, 중간말 도로변에는 신도비가 있다. 묘는 경기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었다. 본관은 삭녕朔寧, 자는 정보貞父, 호는 태허정太虛亭·동량幢梁.

1434년(세종 16) 알성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세종이 집현전부수찬에 제수하였다. 이후 18년간 집현전에 재직하면서, 고제古制 연구 및 각종 편찬사업과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였다. 1447년(세종 29)에는 중시문과에 급제하여 직제학이 되었고, 대리청정하던 세자를 겸직으로 보좌하였다. 1453년(단종 1)에 동부승지로서 수양대군의 집권에 협조하여 정난공신에 봉해졌고, 도승지·이조참판·대사헌이 되었으며, 영성군에 봉해졌다. 세조가 즉위하자 좌익공신에 책록되었고, 이후 호조참판·이조참판·형조판서·공조판서·이조판서·우참찬·좌참찬·좌찬성을 역임하며 세자빈객·세자이사과 성균관대사성·판병조사를 겸하고, 『경국대전』의 편찬과 사서오경의 구결口訣 정리에 참여하였다. 1467년 삼의정에 차례로 임명되었고, 예종이 즉위하자 원상院相이 되었다. 1470년(성종 1) 부원군에 봉해졌고, 좌리공신에 책록되었다. 저서로 『태허정집』과 『관음현상기』가 있으며,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 허난설현許蘭雪軒 1563(명종 18)~1589(선조 22)

조선 중기의 여류시인. 초월읍 지월리 산29-5에 묘가 있다. 본관은 양천陽川, 본명은 초희楚姬, 자는 경번景樊, 호는 난설현.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의 누나다.

용모가 아름답고 똑똑하여 어깨너머로 배운 글로 8세 때 지은 「광한전백옥루상량문」이 알려져 여신동이라는 말을 들었다. 1577년(선조 10) 김성립과 혼인하였으나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시어머니에게도 학대를 받았다. 어린 남매를 차례로 잃고 뱃속의 아이마저 유산한 상태에서, 친정집마저 옥사에 연루되고 동생 허균도 귀양을 가자 삶의 의욕을 잃고 시를 지으며 지내다가 27세로 요절하였다. 묘는 1986년 5월 7일에 경기도기념물 제90호로 지정되었다.

자신의 작품을 태워버리도록 유언하였으나 동생 허균이 보관하였고, 후에 명의 시인 주지번朱之蕃에게 보여주어 『난설헌집』이 중국에서 먼저 발간되었고, 1711년 일본에서도 발간되어 애송되었다. 전해지는 시 213수 중 128수가 도가적 신선사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서경덕에게 배웠던 아버지나 스승 이달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적 섬세함을 보여주는 애정시는 황진이 등 기생 시와 달리 높은 품격을 보여준다.

● 허완許完 1569(선조 2)~1637(인조 15)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자고子固이다.

1593년(선조 26) 무과에 급제했고, 이순신 휘하에 있다가 선전관을 거쳐, 유성룡의 천거로 남평현감이 되었다. 도총부도사와 경력을 역임하고 단천군수가 되어 여진족의 침입을 격퇴하여 절충장군으로 승급하고 무산진첨절제사가 되었다. 이후 훈련중군·충청도수군절도사·전라도수군절도사를 거쳤고, 광해군 때 사임하였다가 인조반정 후 다시 중군이 되었다. 정묘호란 때 왕을 호종한 공으로 가선대부로 승진하고 경상우도절도사 겸 진주목사를 거쳐 회령도호부사를 지냈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경상좌도병마사로서 우도병마사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를 구하려다가 쌍령전투에서 군사를 잃고 목을 찢러 자살하였다. 이듬해에 병조판서에 추증되었고, 1688년(숙종 14)에 자손을 녹용하였다. 시호는 충장忠莊이며, 초월읍 대쌍령리 정충묘에 배향되었다.

● 홍익한洪翼漢 1586(선조 19)~1637(인조 1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남양南陽, 초명은 습霽, 자는 백승伯升, 호는 화포花浦·운옹雲翁. 오달제·윤집과 함께 병자호란의 삼학사로 불린다.

1615년(광해군 7) 생원이 되고, 1624년(인조 2)에 공주행재소에서 열린 정시문과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여 사서와 장령을 역임하였다. 1636년 청이 황제를 칭하고 사신을 보내자, 당장 사신을 처형할 것을 주장하며 척화론을 이끌었다. 평양부서운으로 나가있었으나, 화의가 성립된 후 오달제·윤집과 함께 청으로 끌려가 굴복하지 않고 죽었다. 아내와 두 아들 부부, 사위도 난중에 목숨을 잃었거나 자결하였다. 시신을 찾을 수 없어 평소에 타던 말안장과 옷을 수습해 장사지냈다. 저서로 『화포집』, 『북행록』, 『서정록』이 있다. 현절사 외에 2곳의 사우와 5곳의 서원에서 제향하고 있다.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3. 근현대

● 구연영 具然英 1864.6.20~1907.7.16

항일독립운동가.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나 그의 집안은 선조 때 이후 실촌면(현 곤지암읍) 삼리에서 대대로 살아왔으며, 묘는 곤지암읍 삼리 26-33에 있다. 호는 춘경春景.

아들 구정서와 함께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895년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 공포에 격분하여 김하락·조성학·김태원 등과 함께 경기도 이천에서 이천수창의소를 결성하고 중군장을 맡았다. 양근·지평·이천·음죽·죽산 등지에서 농민과 관포수를 중심으로 1,000여 명의 군사를 규합하여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1896년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기독교에 입문하여 경성 상동교회에서 웨벳청년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07년 정미의병이 일어나자 장춘명·한창섭·차화춘 등과 함께 구국회를 조직하고 신도대회를 통해 매국단체 일진회를 성토했으며 항일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구국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광주·이천·여주 일대를 순회하며 상인들의 철시투쟁을 유도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하던 중 1907년 7월 16일 일본군 수비대에 의해 구국회 지도자들이 피체될 때 아들 구정서와 함께 피살·순국하였다. 1963년 3월 1일 건국공로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 김윤경 金允經 1894.6.9~1969.2.3

항일독립운동가·한글학자·교육자. 오폐읍 고산리 출생. 중부면 광지원리에 묘가 있다.

어렸을 때 한문을 배우고 15세가 되던 1908년 신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에 가서 우산학교와 의법학교를 다녔다. 1911년 상동에 있는 청년학원에 입학했다가 주시경의 영향으로 국어를 연구하게 되었다. 1921년 조선어연구회 창립회원이 되었고, 1922년 수양동우회 창립회원이 되었다. 같은 해에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배화여자학교에 부임하였다. 1926년 일본 릿쿄대학교 문학부 사학과에 입학하여 「조선문자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졸업논문을 쓰고 1929년 졸업했다.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검거되어 재판이 5년이나 계류된 끝에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942년 10월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다시 검거되었고 이듬해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해방을 맞아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임명되었으며, 1962년 연세대학교를 정년퇴직하고 1963년 한양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었다.

조선어학회 회원으로 맞춤법 제정, 표준말 사정에 힘을 기울였고, 한글의 역사를 깊이 연구하여 주시경의 문법체계를 이어받은 『나라말본』(1948)을 지어 국어연구에 이바지하였다. 한글전용·가로쓰기·국어순화 등에 대해서도 많은 글을 썼다. 1938년 발간된 『조선문자급어학사』는 국어문자의 역사이자 국어학의 역사서이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 문자에 대해 서술한 후 훈민정음의 창제와 변천, 훈민정음에 대한 여러 학설을 역사적으로 정리했으며, 개화기 이후에 나온 국어문법서들을 자료와 학설을 통해 자세히 검토하였다. 이밖에 『한글말본』, 『어린이 국사』, 『주시경선생 전기』, 『새로 지은 국어학사』, 『한결 국어학논집』 등의 저서가 있다. 1977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 남광우南廣祐 1920.3.10~1997.12.7

국어학자. 본관은 의령宜寧, 호는 난정蘭汀. 경안면 장지리에서 태어났다.

1938년 3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1946년 4월까지 이천 제일국민학교, 황해도 서흥 대화국민학교, 경성 죽첨국민학교(현 서울금화초등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1946년 8월 경성대학 예과 부설 중등교원양성소 국문과를 수료하고 경성공립중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1950년 5월 서울대학교 문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대구고등학교, 대구사범학교의 교사와 대구사범대학, 청구대학 강사를 거쳐 경북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69년에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선(이조) 한자음 연구」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73년에 인하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1985년까지 재직한 후 정년퇴직했다. 이밖에 국어학회 간사장, 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2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대표이사 및 회장을 맡아 우리 어문연구와 진흥에 크게 공헌하였다. 저서로 『고어사전』, 『한국어의 발음연구』, 『한국어표준발음사전』 등이 있다.

● 신익희申翼熙 1894.6.9~1956.5.5

독립운동가·정치가. 중부면 엄미리 산에 추모비가 있다. 초월읍 서하리 출생. 본관은 평산平山, 이명은 왕방평王邦平, 호는 해공海公.

한성관립외국어학교 영어과를 졸업하였고, 1913년 일본에 유학하여 1916년 와세다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였다. 와세다대학 재학 중 조선학생단체들을 '조선유학생학우회'라는 하나의 단체로 통일하였다. 귀국 후에는 광주에 동명강습소를 설립하여 개화사상을 가르쳤다.

1919년 김시학·윤치호·이상재·이승훈 등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민중봉기할 것을 협의한 후 북경, 남경, 상해 등지를 돌며 동지를 규합하였다. 3·1운동 참여 후 상해로 망명하여 광복이 될 때까지 26년간 상해임시정부를 지켰다. 임시정부의 초대 대의원과 초대 내무차관을 지냈으며, 그 후 내무총장·법무총장·문교부장·외무부장 등 요직을 두루 맡았고, 국무원 비서실장과 의정원 부의장을 겸임하였다.

광복 후 임시정부 제2진으로 조소앙 등과 함께 귀국하여 곧바로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만들어 부회장을 맡았으며, 미군정하의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장을 거쳐 정부수립과 함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으로 광주에서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되었다. 제헌국회에 진출한 그는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의 뒤를 이어 국회의장이 되었다. 1947년에는 대한국민당을 결성하여 대표최고위원이 되었으며, 1949년 한국민주당과 합당해 만든 민주국민당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956년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그해 5월 5일 호남지방에서의 유세를 위하여 전주로 가던 중 기차 안에서 사망하였다. 5월 23일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렀으며 서울 우이동에 안장되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초월읍 서하리의 생가는 경기도 기념물 제134호로 지정되었고, 그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종로구 효자동 집도 서울시 기념물 제23호로 지정되었다.

● 유길준 兪吉濬 1856.10.24~1914.9.30

한말 개화운동가.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성무聖武, 호는 구당矩堂. 외조부 이경직의 소개로 박규수朴珪壽를 만나 신학문을 접하였으며, 김옥균金玉均·서광범徐光範·홍영식洪英植·김윤식金允植 등 개화사상가들과 교우하였다.

1881년(고종 18) 조사 시찰단朝土視察團의 일원이 되어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 입학하여 개화사상을 두루 섭렵하고, 1882년 6월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귀국하였다. 1883년 외무장관에 임명되었으며 박영효와 함께 《한성순보漢城旬報》 발간을 추진하였으나 박영효가 좌천되자 무산되고 말았다. 관직을 사퇴한 뒤 주미 전권대사 민영익閔泳翊의 수행원으로 발탁되어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미대통령 체스터 아서에게 고종의 국서를 전달하였다. 민영익의 권유로 미국에 남아 국비유학생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덤머 아카데미를 다녔다. 하지만 2년 뒤 국내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고종의 친서를 받고 귀국하였다.

귀국길에 일본에 잠시 머물며 김옥균을 만났는데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개화당으로 몰려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구금기간에 《서유견문》을 집필하기 시작하여 1889년에 탈고했다. 1892

년 연금에서 해제되고 동학농민운동을 핑계로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과 협상을 위해 외무外務의 주사로 발탁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외무참의 등을 역임하며 개혁을 주도하였고, 1895년 김홍집金弘集 내각의 내무협판內務協辦을 역임하면서 태양력 사용, 종두법 실시, 우체사 설치, 소학교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1896년 『독립신문』 창간을 적극 후원하였고, 그해 내부대신에 올랐으나 아관파천으로 내각이 해산되자 겨우 목숨을 건져 일본으로 망명했다.

국권피탈 후 일본정부에서 남작의 작위를 주었으나 거절했으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교육과 계몽사업에 헌신하였다. 흥사단을 발족하여 활동했고, 국민경제회를 설립했으며, 계산학교를 설립했다. 조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내지 못했고, 1914년 9월 59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 이종훈李鍾勳 1855(철종 6)~1931

독립운동가. 호는 정암正庵. 실촌면 유사리 출생. 어려서 한문을 수학하였고, 1880년 25세 때 동학에 입교하여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운동 때 선두에 서서 활약하였다.

1919년 2월 25일 천도교 기도회 종료 보고와 국장을 배관拜觀하기 위하여 서울에 갔다가, 손병희·권동진·오세창 등을 만난 자리에서 3·1운동에 관한 계획을 듣고 이에 찬동, 민족대표로서 서명 날인키로 약속하고 2월 28일 밤에는 재동 손병희의 집에서 3·1운동에 대한 최종회의에 참석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 민족대표 33인의 1명으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자진 신고하여 출동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2년 7월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고려혁명위원회의의 고문으로 추대되어 항일운동을 지속하였다. 이후 만주로 망명하여 간도의 용정 등지를 중심으로 항일투쟁을 계속하며 청년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일에 진력하다가 만주에서 병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